≪語錄解≫ 解題

安　秉　禧

1

中國의 전통적인 文章은 漢文이다. 漢文은 이름 그대로 漢代의 文章이다. 따라서 唐宋 이래로 시대가 지날수록 漢文은 口語와 거리가 생기게 된 것이다. 그러한 시대에는 漢字를 알더라도 일정한 훈련이 없으면, 漢文을 이해하는 일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글을 짓는다는 것은 여간 어렵지 않다. 口語를 사용하여 文章을 짓는 일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唐나라의 僧侶가 그 師僧의 講論을 기록한 글에 그러한 예가 나타난다. 그것을 語錄이라 하여 漢文으로 된 經典과 구별하였다. 宋나라의 儒學徒도 스승의 講學을 역시 口語로 기록하여 語錄이라 하게 되자, 語錄은 성행하기에 이르렀다. 여러 禪家語錄과 程朱의 語錄이 그것을 말한다. 이러한 語錄으로부터 漢文에 상대되는 語體文 또는 白話文이 성립된 것이다.

우리나라가 中國과 접촉하여 漢字와 漢文을 받아들여 사용한 것은 늦어도 漢代 이전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초기의 문장은 漢文만이라고 할 수 있으나(1), 語錄이 들어오게 되어 白話文을 이해할 필요가 곧 생겨났을 것이다. 白話文의 특징은 문장의 구조보다 語彙使用에 나타난다. 그리하여 語錄이란 용어가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儒學者의 경우에, 그러한 특수한 語彙를 지칭하게 된 것이다. 語錄에 관심을 가지고서 그것을 수집하여 주석한 柳希春, 鄭瀁, 宋浚吉 등은 앞으로 보게 될 바와 같이, 語錄을 中國의 俗語 또는 俚語로 이해하였던 것이다. 表題의 語錄解는 바로 그 俗語나 俚語의 註釋을 말한다.(2)

그런데, 이러한 語錄解의 편찬은 儒學者 사이에서 시작되었다. 佛敎界에

---

(1) 借字表記에 의한 문장은 여기서 논외로 한다. 그런데, 語錄이 文語體文章과 口語와의 괴리에서 성립된 사실은 借字表記의 발달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앞으로 이러한 관점으로도 借字表記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18세기 후반의 蒙語類解에서 助詞와 接尾辭등 이른바 虛辭를 모아서 用法을 해설하여 語錄解라고 한 일이 있으나, 여기의 語錄解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서는 일찍부터 禪家語錄을 접하여 그것을 본뜬 白雲和尙語錄이 麗末에 간행되기까지 하였으나, 語錄解는 존재하지 않는다. 世祖때의 蒙山法語와 四法語諺解의 原文에는「做作, 便着, 惺惺, 這裏, 這介, 伊麼, 會麼, 甚處, 一串」등등 이른바 語錄이라 할 예가 많으나 모두 훌륭히 번역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儒學界에서는 程朱學의 硏究가 진전되고 심화된 16세기에 들면서 이 語錄이 문제된다. 당대의 名儒인 退溪 李滉과 眉巖 柳希春 등은 각기 語錄을 수집하고 주석하여 弟子를 가르쳤던 것이다. 17세기에는 程朱學이 더욱 보급되는 한편으로 白話小說이 수입되어 유행하게 되어 語錄解에 대한 요구는 절실하게 되었다.(3) 이러한 배경에서 1657년(孝宗 8) 鄭瀁이 語錄解를 편찬하여 간행하고, 이어서 王命으로 弘文館에서 南二星이 주관하여 그 語錄解를 수정하여 1669년(顯宗 10) 개정된 語錄解를 간행하였다. 이에 語錄解의 定本이 성립되었다. 뒤에 重刊本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이것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白話小說에 대한 語錄解가 있으나 이것과 무관한 책인 것이다.

이 語錄解는 오늘날 國語史硏究의 독특한 資料로 이용된다. 그러나, 그 原本이 정확하게 소개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硏究者가 안심하고 다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이에 관한 관심이 새롭게 일어나는 때에,(4) 여기 1657년과 1669년의 두 刊本을 영인하게 된 일은 매우 적절하다고 하겠다. 이에 影印底本에 대한 書誌的인 解說과 함께, 그 편찬과 修正作業 및 國語史資料로서의 價値에 대한 考察을 하려고 한다. 이 影印이 國語史硏究에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儒學史와 中國語硏究史를 살피는 데에도 활용되기를 바라는 뜻인 것이다.

---

(3) 이 무렵 語錄이 어느 정도 유행하였는가 하는 것은 1682년(肅宗 8)에 내린 다음 傳旨로 알 수 있다.

科文用語錄及奇僻之語 變易文體者 一切嚴斷(受敎輯錄 권 3)

즉 科文에 語錄을 사용하여 文體를 바꾸는 일을 금지한 내용이다. 語錄이 科擧의 文章에까지 등장되어 사용될 형편이니,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受敎가 말하는 바와 같이 語錄은 儒敎書의 이해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공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허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語錄解의 刊行도 20세기까지에는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게 된다.

(4) 이것은 최근 잇달아 발표된 다음 두 論文을 지칭한다. 이 글은 그 論文에 힘입은 바 크다. 깊은 사의를 표한다.

大谷森繁, 〈「語錄解」에 대하여——그 書誌的檢討와 朝鮮小說史로부터의 考察〉《朝鮮學報》99·100 합병호 (1981)

朴甲洙, 〈語錄解에 대하여〉《李應百博士回甲紀念論文集》(서울, 1983)

2

語錄解의 原刊本은 1657년 鄭瀁이 比安縣監으로 있을 때 그곳에서 간행한 책이다. 그러나, 책에는 編者名이 없고 跋文도 無記名이다.(5) 위의 刊行 경위는 跋文의 끝부분으로 추정된 것이다.

> 適有語類分刊之役 而幸有零板 故仍刊于縣之龍興寺 以爲欲看語類者 尤不可以無此也 皇明紀元之丁酉三月下澣 志于屛山之縣齋

屛山은 현재 義城에 편입된 比安(또는 庇安)縣의 別稱이며, 縣齋에서 跋文을 쓸 수 있은 사람은 縣監이다. 이른바 崇禎紀元의 丁酉年 곧 1657년 3월에 縣監으로 있는 鄭瀁이 跋文을 쓴 것이다. 慶尙道의 각 고을에서 朱子語類를 나누어 간행할 때 比安縣도 그 일부를 맡아서 간행하였는데, 쓰고 남은 板材를 이용하여 그곳 龍興寺에서 語錄解를 간행한다는 것이다. 그 刊行의 의도는 새로 간행된 朱子語類를 읽는 데 이 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 한다. 이로써 板材 이용의 正當性도 밝혀져 있다. 跋文에서 밝혀진 이러한 사실은 尹拯이 쓴 그의 行狀(明齋先生遺稿 권 43, 世子侍講院進善鄭公行狀) 중 比安縣監으로서 이룩한 治績을 서술한 한 대목에서 뒷받침된다.

> 壬辰 又除庇安縣監 修學校敎生徒 考祭服祭器之故弊者 而改新之 言於方伯 刊行朱子語類及小學 又自爲語錄解 刻示學者

이 記錄은 鄭瀁이 1652년(壬辰) 比安縣監에 임명된 뒤에 행한 文治에 관한 것인데, 觀察使에게 말하여 朱子語類를 간행하고 또 스스로 語錄解를 편찬하여 간행하였다는 점이 위 跋文과 부합하는 것이다.(6)

---

(5) 小倉進平에 의하면, 그의 所藏本의 跋文 끝에는 「瀁鄭」(原文대로임)이란 墨書가 있는데, 그것은 鄭瀁의 自署로서 그의 手澤本으로 추정된다고 한다(小倉進平, 《增訂朝鮮語學史》(東京, 1940), pp. 545-46). 이 책을 실사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墨書에 대하여 언급할 처지가 못된다. 그런데, 위의 著書에 실린 書影(8a)에 의하면 改刊本에서 추가된 부분 (이 글, p. 159 참조)을 붓으로 써넣은 것이 많다. 改刊本은 鄭瀁의 死後에 간행되었으므로, 적어도 書影의 墨書는 후대 사람의 것이다. 그러므로, 跋文의 人名墨書도 같은 것이 아닌가 한다.

(6) 編者 鄭瀁(1600~68)은 松江 鄭澈의 손자로, 字를 晏叔, 號를 孚翼子, 뒤에 抱翁이라 하였다. 벼슬은 掌令에 그쳤으나 郡縣의 원으로 나갔을 때 훌륭한 治績을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이 語錄解의 刊行도 그 한 예다. 國語學

이렇게 간행된 原刊本은 서울大學校圖書館가람文庫本과 日本의 小倉進平舊藏本만 알려져 있으나, 그밖에 高麗大學校圖書館晩松文庫本, 成均館大學校圖書館所藏本, 誠庵文庫本이 더 있다. 여기서는 影印底本인 가람文庫本을 중심으로 그 形態를 기술하기로 한다.

책의 분량은 跋文을 포함하여 모두 29장에 지나지 않는다. 版式은 四周雙邊, 無界이나 每面 9행에 3段으로 標題語를 보이고 주석을 雙行으로 달아 놓았다. 그런데, 各段은 독립되어 있어서 주석은 다음 행의 그 段으로 계속된다. 예컨대 中段의 주석은 다음 행 中段에 계속될 경우에도, 주석이 끝난 上下段에는 새 標題語가 등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張次가 바뀔 때에도 적용되는데, 가령 다음 장 中段으로 주석이 계속되는 「儈荒」(25b 中段)따위가 그것이다. 半匡郭은 세로 21cm, 가로 16.7cm이며, 版心에는 上下內向 二文魚尾가 있고, 그 사이에 版心書名이 없이 張次만 표시되어 있다.

內容은 語錄解 22장, 漢語集覽字解와 附錄 6장과 跋文으로 되어 있다. 수록된 標題語는 字類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러한 分類는 老朴集覽의 字解를 본뜬 것이라 생각된다. 字解의 單字解는 一字類, 累字解는 二字類 이상에 상응하기 때문이다. 註釋은 漢字와 한글로 되어 있으나, 간혹 借字表記도 나타난다. 漢字는 略字도 사용되며, 같은 글자가 계속 쓰일 경우 反復記號도 사용되고 있는데, 標題語의 표기에서도 동일하다. 심한 경우에는 註釋이 없는 標題語도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改刊本에서 수정되었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하지만, 앞에서 말한 版心 體裁와 함께 이 책이 매우 소루하게 만들어졌음을 말하는 것이다. 原刊本이 나온 지 겨우 10여년에 修正作業을 거쳐 새로운 刊本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改刊本은 1669년 宋浚吉의 跋文을 붙여 校書館에서 간행되었다. 이 경위는 跋文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我殿下臨筵 方講心經 討論忘倦 一日敎曰 語錄實多未分曉處 玉堂官可取所謂語錄解者 詳可致校 以便繙閱 玆役也 應敎臣南二星實尸之 臣亦猥聞一二 刪其繁蕪 訂其訛謬 摠合前後 所錄務在明白簡易 去取次序 略有權衡 書成繕寫投進 上令臣浚吉撰進跋文

經筵에서 心經을 공부하던 顯宗의 命令으로 弘文館에서 語錄解를 첨삭하

과 國文學에 관계되는 일로는, 이밖에 松江歌辭星州本의 跋文에 의하면 그 책의 底本을 만들게 한 것이 있다.

는 修正作業이 행하여졌는데, 南二星이 주관하였으나 宋浚吉등 당대 巨儒가 참여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跋文은 1669년 4월 20일(顯宗實錄 10년 4월 壬午 및 顯宗改修實錄 같은 날 참조)에 이루어진 것이나, 宋浚吉은 3월 9일(顯宗實錄 10년 3월 壬寅) 跋文製進을 南二星에게 사양하는 上疏를 올리는 등 곡절이 있었다. 이틀 뒤에 王이 宋浚吉을 불러들여 마음을 돌리게 하는데, 이때의 記錄에서 語錄解 校正의 실상을 좀더 분명히 알 수 있다.

> 上曰語錄解之命跋 蓋有意也 何以辭爲 浚吉所啓 此册多錯亂 欲加校正 使南二星主之… 臣意則欲使南二星略書顚末以爲跋 而向日筵中下問時 玉堂不知此間曲折 而誤對耳 臣尋常書簡 亦不能如意 何敢作序跋也 上曰當初校正 非委南二星也 使二星就判府事處以問矣 予意則必欲使卿作跋耳(承政院日記 顯宗 10년 3월 11일)

즉 語錄解의 修正作業이 南二星의 주관임이 더욱 뚜렷하지만, 당초부터 修正을 南二星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判(中樞)府事에게 물어서 하게 하였다는 사실이다. 당시의 判府事는 宋時烈이다. 그는 宋浚吉과 함께 經筵에서 心經의 文義를 강론하기도 하였는데, 2월 중순에 낙향하였다. 그러므로, 語錄解의 修正은 顯宗의 의도와는 달리 南二星이 맡아 하게 되었고, 이에 王은 跋文만이라도 元老學者에게 짓게 한 것으로 보인다. 곡절은 어떻든, 改刊本은 南二星이 주로 수정하였기 때문에 南二星修正本이라고 일컫는 일도 있다.(7) 原刊本을 鄭瀁本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改刊本은 상당히 많이 전하고 있다. 初刷本이면서 보존상태가 좋은 책으로서, 여기에 영인하는 奎章閣所藏本(複本 중 도서번호 奎 1536의 책을 말한다.)의 形態를 기술한다.

이 책은 目錄과 跋文을 포함하여 모두 45장의 木版本이다. 版式은 四周雙邊, 有界 每面 8행, 2段으로 標題語를 보이고 雙行으로 주석을 달았다. 5·6字類에는 1段으로 標題語를 보이는 일도 있는데, 이것은 原刊本과 달리 各段이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上段 標題語의 긴 주석이 그 행의 下段에 계속되고, 下段의 긴 주석이 다음 행의 上段에 계속되는 것이다. 半匡郭은 세로 가로 각각 19.4cm, 15.3cm이며, 版心은 上下內向 二文魚尾가 있고, 그 사이에 版心書名인 語錄解와 張次가 있다.

---

(7) 南二星(1625~83)은 宜寧人으로, 字를 仲輝, 號를 宜拙이라 하였다. 1662년(顯宗 3)에 文科, 벼슬이 禮曹判書에 이르렀다. 같은 西人으로 宋時烈, 宋浚吉 등에 가까왔다. 文章으로 유명하다.

內容은 凡例 2장, 本文 40장, 跋文 3장으로 되어 있다. 編纂方式을 말하는 凡例가 있는 점은, 위의 版式과 함께 改刊本이 구비된 체재의 책임을 말하는 것이다. 本文도 原刊本이 3部로 되어 있었으나, 改刊本은 語錄解를 중심으로 개편하여 漢語集覽字解와 附錄을 語錄解의 해당 字類 끝에 계속하였다. 標題語와 註釋에서도 상당한 修正이 행하여진 것이다.

標題語의 修正은 줄이는 방향으로 행하여져 있다. 對照에 의하면, 改刊本이 133항을 줄이고, 오직 1字類의 끝에 「葬」의 1항만을 추가하였다. 標題語 항목의 증감을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8)

	1字類	2字類	3字類	4字類	5字類	6字類	총 계
原刊本	183	831	88	65	13	2	1,182
		618 (漢) 64 (附) 149	76 12	54 11			
改刊本	157	737	83	58	13	2	1,050
	(−27) (+1)	573(−45) 58 (−6) 106(−43)	73 (−3) 10 (−2)	48 (−6) 10 (−1)	13	2	(−133) (+1)

이러한 標題語의 증감이 곧 수록된 語錄의 수효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原刊本에서 「落落仝」으로 주석된 「灑灑」(13a)가 改刊本에서 標題語로는 제거되었으나, 「落落」의 주석에서 「灑灑亦同此意」(12a)이라 하여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圖表가 改刊本의 語錄이 原刊本보다 100여항 줄어든 것을 보이고 있음은 명백하다. 이 삭제의 원인에 대하여 大谷교수는 첫째 附錄의 標題語가 語錄이 아니라 吏文에 속하며, 둘째 중복되거나(예 「有箇」, 註釋이 없거나(예 「未解」), 뜻이 분명하기(예 「五種」「大率」) 때문에 말미암는다고 한다.(9) 이 說明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첫째 理由는 儒教書를 읽는 데 필요하지 않는 標題語라고 설명함이 온당하지 않을까 한다. 附錄에서 삭제된 標題語가 吏文에 사용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8) 이 도표는 앞의 大谷교수의 論文(pp. 288-89)과 朴甲洙교수의 論文(p. 173)에 의한다. 두 論文이 꼭같으나, 朴교수가 改刊本에서의 1항 추가를 밝힌 것만 다르다.

(9) 大谷교수의 앞 論文, p. 289.

註釋은, 標題語와 판이하게 보완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 있다. 凡例의 다음 2항이 그것을 말한다.

一. 舊釋或有未備且未分曉處 則未免儹附新注 而加圈以別之
一. 語錄中或有字義字音之可考者 則亦加訂定 如便字要字之類是也

改刊本에서 原刊本의 주석 중 미비한 것에 새로 추가하여 주석하되 ○표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追加는 상당한 양인데, 字義字音을 상고하여 추가한 「要, 便」의 주석 부분을 보면 어느 정도인가를 단적으로 알게 된다.

音見平聲及去聲 要約也勒也固要也察也 以上平聲 久要也樞要也要會也欲也 以上去聲(「要」 1B)
音見平聲及去聲 安也習也便便言也肥滿也溲也 以上平聲 利也宜也順也即也便殿也便安也 以上去聲(「便」 2A)

註釋에서의 이러한 追加와 補完 이외에도 漢字의 사용 등 改刊本은 原刊本의 소루한 점을 여러모로 고쳐 놓았다.

그 첫째는 原刊本에서 「未解」(10B)와 같이 주석없이 標題語만 수록한 것을 삭제하기도 하였으나 주석을 추가하기도 한 사실이다. 즉 주석이 없는 原刊本의 「將就的」(18A)은 改刊本에서 「猶容恕扶護之意 的語辭」(32B)로 주석되어 있다. 그러나, 改刊本에서도 그 뜻이 확인되지 못하여 「未詳」(14B)이라 한 「懡㦬」(10A)가 있다.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原刊本에서 「音弋九切 善也」(2A)라 주석된 「羑」를 改刊本에서 「未詳」(3A)이라 한 예가 그것이다. 이는 原刊本의 주석을 改刊本 편찬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代案도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예외라 할 것인데, 原刊本에서 중복된 標題語 「自由」(7B, 23B)가 改刊本에서도 답습된 사실(11B, 27A)과 함께 改刊本의 修正이 철저하지 못함을 말하는 것이다.

둘째는 原刊本은 주석은 물론이고 標題語도 略字와 反復記號 「〻」를 사용하여 표기하나, 改刊本은 正字를 사용하고 反復記號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原刊本과 改刊本으로 대조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众人(12A)	衆人(18A)
仸語(12A)	佛語(17B)
了〻 (7A)	了了(10A)
落〻 (8A)	落落(12A)

한편 標題語의 漢字를 주석에서 반복할 경우에 기호「一」로써 표기하는 일이 있는데, 두 책이 다 같다. 예컨대「箇(原, 改 1A)」「自家(原 5B, 改 7B)」의 주석이 다같이「有一一二一之意」「指彼而稱自己曰一一」라 하고 있다. 그러나, 改刊本은 이 기호가 혼동을 일으킬 경우에는 標題語의 漢字를 다시 사용한다. 즉「斡了」의「斡」대신에 原刊本은 기호를 사용하여「若妻則一 家奴則一事」(12A)라 하였는데, 이때의 기호는「了」를 받을 수 있으므로 改刊本에서는「斡」(17B)을 사용한 예등이 그러하다.

세째 原刊本은 주석에서 口訣표기에 사용되는 借字가 사용되어 있다. 그 예(圈點을 적은 것)는 다음과 같다. 이중「爲」「多」는 略字「ソ」「タ」로 되어 있으나, 印刷의 편의를 위하여 正字로 고치기로 한다.

物乙̇ 格홈매(「格」 4B)
是乙̇ 賭타(「賭是」 9A)
모로미 放爲̇也̇(「須放教開」 21A)
므슴 來由乙̇ 一爲̇也̇(「著甚來由」 21A)」
보숣펴 더답爲̇多̇(「打發」 23B)

이러한 표기는 鄭瀁이 原刊本을 편찬할 때 이용한 原典(이에 대하여는 다음 章에서 다루기로 한다.)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마지막 예는 出典인 老朴集覽의「보숣펴 더답ᄒᆞ다」(字解 9a)에서 옮겨온 것이다. 책의 편찬이 거칠게 되었음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이들 借字가 모두 改刊本에서 한글로 바뀐 것은 말할 것도 없다.(10)

이 改刊本은 널리 유포되었다. 이를 底本으로 한 寫本도 많고 새로운 刊本의 출현도 보게 되었다. 寫本 중에는 약간 손질한 것이 있으나, 筆寫者와 年代가 모두 미상이므로 資料로서의 價值가 크지 못하다. 刊本은 19세기 말에 간행된 木活字本 語錄解와 1919년 翰南書林에서 간행된 木版本 註解語錄總覽이 있다. 전자에는 藝海珠塵駢字分箋, 후자에는 水滸誌·西廂記·西遊記·三國誌語錄과 吏讀를 수록한 吏文語錄이 합철되어 있다. 후자는 語錄解를 水滸誌語錄등과 구별하기 위하여 朱子語錄이라 하고 있는데,(11) 老朴

---

(10) 이밖에도 세밀한 차이는 많다. 原刊本의 주석에서는「朴君寔」「鄭子中」의 의견임을 밝힌 것(6B)이 있으나, 改刊本에서는 삭제된 것등이 그것이다. 이들의 身元은 밝힐 수 없으나, 漢語 곧 中國語에 통달한 듯하므로 譯官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君寔과 子中은 字로 보인다.

(11) 大谷교수의 論文등에서도 이 명칭을 따르고 있다.

集覽등에서도 語錄이 채취되었으므로 적절한 명칭이 아니다. 이들 두 刊本은 凡例와 跋文에 약간 손질을 하고 本文도 標題語를 늘이는 등 改編이 있으나, 改刊本의 체재와 內容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語錄解는 鄭瀁이 편찬하여 간행한 原刊本으로 시작되어 南二星이 수정한 改刊本에 이르러 확정되고 공인된 刊本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鄭瀁은 무엇을 참고하여 語錄解를 편찬하게 되었을까. 이제 編纂의 근거를 살펴보기로 한다.

3

原刊本을 편찬한 鄭瀁은 앞에서 말한 跋文에서 編纂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右語錄解者 本出退溪李先生門 先生嘗曰古無語錄 至程朱始有之 是蓋當時訓誨門人之俗語 而至於書尺 亦往往用此 則本欲人之易曉 而我東顧以語音之不同 反成難曉 可嘅也已 幸而今有此解 復使難曉者易曉 而郢書燕說之患 終可以免焉 則先生之功 可謂大矣 第其中有所謂溪訓之目 以別衆說 而又參以柳眉巖希春之訓 則知此解不盡出於先生 而又諸本各出異同相半 苟非具眼者殆難卞識矣 今謹就其緊語而拈出之 並以漢語解聯爲小編 旣又以其所得於傳紀諸家者若干條而附錄焉

程朱가 門人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한 俗語인 語錄이 우리나라에서는 도리어 난해하기 때문에 李滉이 주석한 溪訓으로부터 語錄解는 비롯된다는 것이다. 또 柳希春에 의한 주석인 眉訓이 참고된 점으로 보면 語錄解가 어느 한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당시 李滉門下의 異本이 異同이 相半하였으므로 鄭瀁은 긴요하다고 생각되는 語錄을 가려뽑아 이 책을 편찬하고, 여기에 漢語集覽字解와 諸家의 傳紀에서 채록된 附錄을 덧붙여 책을 완성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정은 改刊本의 宋浚吉의 跋文에서도 나타나 있다.

> 臣仍竊伏念 語錄云者(12)即中國之俚語 昔有宋諸賢訓誨後學 與書尺往復 率多用之 盖欲人之易曉 而顧我東聲音言語謠俗不同 反有難曉者 此解之所以作也 舊本初出於先正臣李滉門人所記 而隨手箚錄實欠精粹 向者故掌令臣鄭瀁 就漢語集覽中拈出如干語 以補前錄之未備者

---

(12) 影印底本은 「語錄解者」로 되어 있다. 붓으로 補正한 初刷本, 埋木으로 고쳐 찍은 後刷本, 宋浚吉의 文集(권20)과 같이 「語錄云者」라야 한다. 부수적이지만, 이 差異로 印出의 先後가 판정된다.

眉訓과 傳紀에 대한 言及이 없으나, 凡例에서 眉訓이 언급되고 있으므로 대체로 鄭瀁의 跋文과 같은 내용이라 하겠다. 따라서, 原刊本을 편찬하면서 이용한 原典은 溪訓과 眉訓의 出處, 및 漢語集覽字解와 諸家의 傳紀를 구명함으로써 드러날 것이다.

溪訓에 대하여, 大谷교수는 李滉의 朱子書節要記疑와 庸學釋義에서 門人이 語錄에 관한 주석을 발췌하여 語錄釋이라 한 듯하다고 추정하여, 여기에서 溪訓이 유래한다고 한다.(13) 그런데, 庸學釋義 곧 中庸釋義와 大學釋義는 四書釋義에 포함되어 있으나 語錄이 나타나지 않는다. 朱子書節要記疑(寫本)가 남는데, 거기에는 상당한 語錄이 수록, 주석되어 있다. 더우기 그 주석에는 口訣표기에 사용되는 略字의 借字가 많이 나타난다. 原刊本의 借字는 이의 모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大谷교수의 推論은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李滉의 著書로서, 語錄을 수록하여 주석한 것은 그것만이 아니다. 心經附註釋疑(刊本)가 그것이다. 1681년 宋時烈이 교정하여 간행하였는데, 여기에도 상당한 語錄이 수록되어 한글로 주석되어 있다. 권 1에 나타난 語錄으로서 原刊本의 標題語와 일치하는 것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뒤의 숫자는 原刊本 標題語의 출처다.

理會(1b, 5B)
些子(1b, 5B)
怎生(5a, 6B)
自家(5b, 5B)
合下(6a, 5A)
惺惺(6a, 8B)
大率(8a, 13A)
便是(1b, 10B)
放下(4b, 7A)
頭當(5b, 6B)
安頓(5b, 6A)
一段(6a, 5B)
家事(7a, 6B)
莫是(9b, 9B)

註釋에서도 큰 일치를 보인다. 괄호 안이 原刊本의 주석이다.

理會 : 출화 아다(혜아리다 又싱각다 又아다 又출오다…)
些子 : 죠고만(죠고만 又잠ᄭᅡᆫ 又벙으다)
放下 : 노하 ᄇᆞ리다(노하 ᄇᆞ리다)
頭當 : 다ᄃᆞ른ᄃᆡ 或云다힐ᄃᆡ(다힌ᄃᆡ 疑다ᄃᆞ른ᄃᆡ 溪訓)

한편 李滉門人 李德弘이 朱子書節要에 대한 李滉의 講論을 기록한 朱子書

---

(13) 大谷교수의 앞 論文, p. 283.

節要講錄(寫本)이 전한다. 여기에도 語錄이 수록, 주석되어 있는데, 朱子書節要記疑와 꼭같이 略字로 된 借字가 많이 사용되어 있다. 그러므로, 溪訓과 그 門人所錄의 語錄에 관한 註釋은 위의 어느 한 책이 아니라 이들 책에 나타난 語錄의 註釋을 모두 가리킨 것이라고 생각된다.

眉訓은 前間恭作이 朱子語類箋解의 解題에서 그 책의 語錄을 베낀 것이라 하고 있다.(14) 그런데, 이 朱子語類箋解는 文獻備考 藝文考의 歷代著述에 보이는 書名으로서, 현재 실책이 전하지 않는다. 前間의 推論은 推論으로 그칠 뿐이다. 그러나, 이 書名은, 柳希春이 돌아간 뒤에 그의 著述을 추심하는 實錄의 記事에서 朱子語類訓釋(宣祖實錄 14년 9월 丙申), 朱子大全語類箋釋(宣祖修正實錄 10년 5월 丁丑)으로 나타나서 일정하지 않다. 당시에도 草稿로만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러므로, 柳希春의 다른 著述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柳希春은 그의 眉巖日記草로써 그의 행적을 극명하게 남겨 놓은 것으로 유명하다. 語錄에 관한 관심과 주석에 관하여도 예외가 아니다. 朱子語類에서 語錄을 뽑아서 주석한 語錄字義란 책을 비롯한 記錄들이 나타나 있는 것이다. 語錄字義는, 宣祖의 語錄에 관한 下問에 의하여 1568년(宣祖 1 戊辰) 5월 25일 개정되고 정사되어 宣祖에게 올리어지게 되었다. 다음 日記가 그것이다.

是日改正繕寫語錄字義入啓 以去月二十九日承問語錄故也(戊辰 5월 25일)

新增類合을 편찬하여 宣祖에게 진상할 때와 마찬가지로, 柳希春은 이 語錄字義의 경우에도 補完과 修正을 계속하였던 것이다. 이에 앞선 약 7일간의 日記에는 그러한 記事가 연일 나타난다. 즉 진상하기 위하여 5월 17일 청서시켰을 때에는 75항의 語錄인데,

令書寫官金繼南 正書語錄字義大略 凡七十五語之釋也 底則以諺字解云ᄒᆞ 將俟明明日獻焉(戊辰 5월 17일)

그 다음날에는 다시 5항을 추가하여 80항으로 늘어났다.

添書語錄字義五段 凡八十段也(戊辰 5월 18일)

---

(14) 前間恭作, 《古鮮册譜 Ⅱ》(東京, 1956) p.796.

이와 같이 스스로는 일단 마무리하였지만, 5월 19일부터 24일까지 右副承旨 金添慶과 同副承旨 金啓 등의 의견을 들으면서 주석을 다듬었다.(15) 그 중한 記事만을 보아도 그 고치고 덧붙이는 장면을 눈에 보는 듯하다.

> 著作趙君以語錄字義單子 持詣政院欲納 右副承旨金添慶文吉 以爲可添注有數條 可改處有一條 遂回送於我 我看詳則可從者多 而可無從者次之 遂改正數條 余深喜切磋之喜(戊辰 5월 19일)

책의 切磋는 進上으로 끝나지 않는다. 진상한 며칠 뒤의 晝講에서 柳希春은 宣祖에게 이 책을 편찬할 때 同僚와 반복 검토하여 한 마디라도 옳은 것이 있으면 고쳤다고 하면서, 「到頭」「等閑」의 두 語錄에 관한 주석의 수정을 말하고 있다. 즉 진상할 때의 주석인 「到終」「不緊無益」을 「造極」「부질업다」로 함이 옳다는 것이다.(16)

> 講畢 進榻前進曰 臣頃撰語錄字義 與金添慶金啓李後白及同僚 反覆商確 一言之當亦必從之 但到頭釋到終也 不若釋造極 等閑不緊無益 不若以諺字釋부질업다爲當(戊辰 6월 2일)

이러한 修正은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그해 7월 中國에서 使臣이 왔을 때 接待를 맡은 朴淳에게 語錄問目을 보내어서 使臣에게 문의할 것(7월 4일 및 5일 日記 참조)을 부탁하였다. 그 결과 副使인 王璽에게서 절반 가량의 解答을 얻게 된 것이다.

> 申時聞 伴送使朴公淳和叔入來 即與冲卿往訪于報漏門談話……聞余所訊語類疑晦之語 副使王璽爲半答之 其本隨來云 深喜深喜(戊辰 7월 29일)

2년 뒤인 1570년(庚午)에는 佛書로써 朱子語類의 의문을 풀기도 하였다.

---

(15) 이들은 「金添慶金啓解漢語者之說」(戊辰 6월 9일)의 日記로 보아서 中國語에도 어느 정도 통달한 듯한데, 특히 金啓는 당대의 가장 뛰어난 中國語의 精通者였다. 일찌기 中國語로 대성할 것이 기대되었으며(明宗實錄 12년 3월 辛酉), 뒤에 地方官에 나가면 漢學教授(同 13년 6월 丙戌)나 承文院副提調(宣祖 6년 1월 丁酉)로 부르도록 啓達하고 있다. 그러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은 점에서 語錄字義의 편찬에는 당시 우리나라의 그 방면 專門家가 모두 동원되었다고 할 수 있다.

(16) 이들 語錄은 原刊本과 改刊本에 다같이 수록되어 있는데, 「等閑」(原刊本 11A, 改刊本 16A)의 주석은 柳希春이 여기서 말한 것과 다르게 되었으나 「到頭」(原刊本 7B, 改刊本 11B)는 「眉訓到極也」로 되어 있다. 造가 至, 到와 통하므로 語錄解의 眉訓은 처음 진상할 때의 주석인 「到終也」가 아니라 여기서 수정하여 말한 주석인 「造極」이다. 眉訓의 出處를 語錄字義라 할지라도, 그것은 이 때의 進上本이 아니라 다시 수정된 책이라 할 것이다.

> 夕許篈來 於燈下具言語類佛氏門僧名出處 以補吾所不逮 蓋以曾見傳燈錄故也(庚午 7월 25일)

그러므로, 眉訓의 出處는 이러한 모든 語錄의 주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좁혀 말한다면 宣祖에게 진상한 語錄字義다. 위의 日記(戊辰 6월 2일)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책은 진상된 뒤에도 修正이 있었고, 또 語錄解의 주석은 그 修正에 따른 것(註 16 참조)으로도 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진상된 책이라 할 것이다. 다음 日記가 그것을 뒷받침한다.

> 昨日晝講 上問臣希春曰 前日語錄字義中 釋了字云事之已畢者 謂之了 然候景傳 了無悑心 此了字何義也 臣對曰臣只釋語錄字義而已 非文字行用之義也 謂事之已畢者 語錄也 了無悑心之了 猶頓也全也 謂語助也 金添慶金啓解漢語者之說 非臣之所釋也 臣本不曉漢語 只因讀朱子語類尋求得來 又於添慶啓李後白等處參論 更定以啓之 臣非願聖上滯心於小註語錄之末(戊辰 6월 9일)

여기 「了」를 「事之已畢者」라 한 주석은 原刊本(1B)과 改刊本(2A)에 「眉訓在末句者 事之已畢爲一」라 하여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日記와 위에 인용된 日記를 종합하면, 語錄字義는 朱子語類에서 뽑은 약 80항의 語錄에 대한 주석을 보인 책이라 생각된다.

끝으로 原刊本의 漢語集覽字解와 附錄의 出典이 문제된다. 종래의 語錄解에 관한 論著에서는, 이들도 李滉과 그 門人이나 柳希春의 주석으로 보아버린 것인지 모르나, 그 出典을 논의한 일이 없다. 그런데, 이들의 주석에는 溪訓과 眉訓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原刊本의 「語錄解」와는 出處가 다른 것이다. 鄭瀁도 跋文에서 語錄解에 대한 설명에 이어 따로 漢語集覽字解와 附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附錄은 傳紀諸家에서 얻은 것이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현재의 筆者는 알 수가 없다. 후일을 기다리기로 한다. 그런데, 거기에 수록된 語錄을 보면, 中國과 우리나라의 外交文書인 이른바 吏文과 比部(刑部)招議에 나타나는 語彙이다. 그러한 語彙는 崔世珍의 吏文輯覽과 편자 미상의 比部招議輯覽에 수록되어 있으나, 附錄의 語錄은 거기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承文院官僚나 中國에 내왕한 使臣들의 記錄인 質正錄 등에 그 語錄이 실려 있던 것이나 아닌가 할 뿐이다.

漢語集覽字解의 出典은 결론부터 말한다면 老朴集覽의 字解다.(17) 字解가

---

(17) 老朴集覽의 書名에 대하여 일언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이 朴通事諺解序文과 같이 후대에 老朴輯覽으로도 불리어졌으나, 원래는 「集覽」으로 불리어진 것

單字解와 累字解로 되어 있는데, 漢語集覽字解는 累字解 중 二字類에 속하는 것에서 가려뽑은 것이다. 順序와 註釋도 대체로 일치하나, 지나치게 實生活과 직결된 語彙는 빠져 있다. 물론 註釋의 한글에서 旁點이 폐기되고, ㅿㆁ도 사용되지 않는다. 다만 標題語의 마지막 「名捕」「吉徵」 2항은 累字解에 없는 것이다. 요컨대 漢語集覽字解는 부분적이지만 老朴集覽字解의 17세기 重刊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老朴集覽은 壬辰倭亂과 丙子胡亂을 겪으면서 거의 산일되었다. 原刊本보다 10 여년 늦은 老乞大諺解의 간행 때에 司譯院에서조차 볼 수 없던 책이다. 그뒤 1677년(肅宗 3) 朴通事諺解가 간행될 무렵 宣川에서 老朴集覽이 발견되었다고 李聃命은 朴通事諺解序에서 특기하고 있다. 그러나, 그 책도 老朴集覽과 單字解만으로 되어 있고, 累字解는 없어진 상태였다. 朴通事諺解의 책 뒤에 附錄으로 간행하면서 單字解만 실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鄭瀁이 그보다 앞서 累字解를 보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鄭瀁의 語錄解 편찬이 희귀한 資料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상으로 原刊本의 典據는 구명되었으리라 생각된다. 그것을 수정한 改刊本에 대하여는 이미 앞의 章에서 말한 바 있다. 이로써 語錄解의 體裁와 形態, 그리고 編纂과 修正의 經緯는 어느 정도 드러났으리라 믿는다. 이제 그러한 語錄解가 갖는 價值에 대하여 설명할 단계에 이르렀다. 價值는 儒學史 등의 관점에서도 논의될 수 있겠으나, 國語史 資料의 면으로만 보기로 한다.

4

語錄解는 朱子語類를 위시한 儒敎書의 이해를 위하여 편찬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 책은 註釋이 17세기 후반의 國語史 資料가 되는 점에서 귀

이 아닌가 한다. 현존 乙亥字로 된 原刊本의 目錄書名이 「集覽」이고, 原表紙에는 墨書로 「集覽 合部」란 書名과 「字解, 老乞大, 朴通事」의 目錄題簽이 쓰여져 있다. 李丙疇교수는 아래의 論文에서 表紙書名 자리에 「□□集覽 合部」가 감식된다고 하였으나 筆者의 실사로는 「集覽 合部」만이며, 그 위에 덧붙여 쓸 자리가 없는 것이다. 合部란 字解와 老乞大集覽과 朴通事集覽의 3부를 합철하여 1책으로 하였다는 뜻인 것이다. 그러므로, 語錄解에서 이 書名을 漢語集覽이라 한 것은 「漢語」를 冠稱으로 붙인 데 지나지 않는다.
李丙疇, 《老朴集覽考》(서울, 1966) p. 14 참조.

중하다. 17세기 후반에는 다양하고 풍부한 資料가 있지만, 독특하면서도 많은 語彙를 갖는 점에서 특이한 近代語의 資料가 된다. 또 原刊本이 地方에서 간행되고 改刊本이 中央에서 수정, 간행되었기 때문에, 資料의 地方性이란 점에서 이 책은 새로운 사실을 보이고 있다. 우선 독특한 語彙를 原刊本에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손ᄃᆡ타(下手 4A, 9B)
흑ᄇᆞᄉᆞ다(零碎 6A)
숨박질(迷藏 9A)
뵈ᄉᆞᆯ(挖攢 12B)
오냐오냐(唯阿 14B)
니믜여(所有 15B)
새암된 工夫(生面工夫 20A)

이들은 改刊本에서 탈락되거나(예, 뵈ᄉᆞᆯ) 語形이 약간 다른 것(예, 흑ᄇᆞᄉᆞᄉᆞᄒᆞ다 8B)이 있으나 그밖은 모두 같이 나타난다. 語錄解의 資料로서의 특성을 함께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原刊本과 改刊本을 대조하면, 國語史의 관점에서 흥미있는 사실이 발견된다. 첫째로, 당연한 사실이지만 原刊本의 예가 낡은 表記와 語形을 보여준다. 앞뒤로 原刊本과 改刊本을 대조하여 보인다.

굳다(硬 2B) : 굿다(4A)
일란 말오(除是 6A) : 일란 말고(9A)
블러 일홈지타(喚做 8A) : 블러 일홈짓다(12A)
又曾아ᄅᆡ(未曾 10B) : 又曾젼의(15B)

둘째로, 音韻變化에서는 改刊本이 오히려 原刊本보다 보수적인 점이 지적된다. 두 책이 有氣化를 보이고 脣音化를 안 보이는 점은 공통되는데,(18) t

---

(18) 朴甲洙교수는 앞의 論文(p. 171)에서 「쇠불릴재 즛싀니」(13A)의 「불리-」(冶)로써 原刊本이 脣音化를 보인다고 하였으나, 이 단어는 中世語가 「불이-」이므로 脣音化와는 무관한 것이다. 改刊本(19A)에서도 꼭같이 나타난다. 그런데 中世語와 原刊本(24A)에서 「부질업시」로 나타나는 단어가 改刊本에서 「부졀업시(32A)」 「브졀업시(27B, 29B)」로 사용되어 있다. 이로써 改刊本에서 脣音化가 일어났다고 할지 모르나, 유일한 예이므로 다른 原因에 의한 變化가 아닐까 한다. 혹 「부질업시」와 「속졀업시」의 混成과 「블」(不)에의 牽引 등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후일을 기다리기로 한다. 또 原刊本의 「고분 불무」(17A)는 改刊本 「고븐 불무」(25A)의 잘못된 표기로 생각된다. 현대어에 있어서도 脣音化가 屈折의 語幹과 語尾 사이에서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口蓋音化는 原刊本만이 보이고 있다. 「디」「티」가 口蓋音化되어 「지」「치」로 된 예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지」「치」가 잘못 「디」「티」로 표기된 예도 있는 것이다. 原刊本의 다른 곳에 나타나는 같은 단어의 中世語 語形을 덧붙여 보이기로 한다.

지ᄅᆞ다(1B) : ᄀᆞᄅᆞ 디ᄅᆞ다(7B)
엇지ᄒᆞ고(19A) : 엇디(1A)
ᄌᆞ조 채치다(25B) : 채텨(26A)
ᄒᆞᆫ가디(18A) : ᄒᆞᆫ가지(17B)
어ᄅᆞ문티다(8A) : 문치다(16A)

이러한 혼란된 표기는 原刊本이 口蓋音化가 완성된 言語를 보인다고 설명된다. 그런데, 改刊本에는 이러한 표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뒤에 보인 語形으로만 표기된다. 改刊本은 口蓋音化가 일어나지 않은 言語를 보이는 것이다.(19)

原刊本만이 보이는 또하나의 音韻變化는 有聲的 環境에서의 ㅎ消失이다. 다음과 같이 原刊本에서 ㅎ이 표기되지 않은 語形이 改刊本에서는 ㅎ이 표기된 예가 있다.

ᄎᆞᆯ오다(5B) : ᄎᆞᆯ호다(7B)
ᄀᆞ옴아라 ᄎᆞᆯ이다(10A) : ᄎᆞᆯ히다(15A)

그런데, 이 두 單語는 16세기 文獻부터 이미 ㅎ의 표기에서 혼란을 보이고 있다. 즉, 「ᄎᆞᆯ호-(小諺 V, 94b)」「ᄎᆞᆯ히-(捷新, I, 27a)」에 대한 「ᄎᆞᆯ오-(新增類合下 10a)」「ᄎᆞ리-(老朴 字會 9a)」가 그것이다. 原刊本과 改刊本의 예도 그러한 혼란으로 다룰 수 있다. 그러나, 原刊本의 다음 예는 분명히 ㅎ을 표기할 수 없는 곳에 표기하고 있는 것이다.

ᄲᅢ혀(2B)
ᄇᆡ호로시(23A)

앞의 예는 改刊本에서 「ᄲᅢ여」(3B), 뒤의 예는 다르게 주석되어 改刊本에 보이지 않으나 그 出典인 老朴集覽字解에서 「ᄇᆡ오로시」(8a)로 나타나므로,

---

(19) 改刊本에서도 原刊本과 같이 「너겨」 「너기다」(21A), 「너긴다(24A)」의 混記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口蓋音化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규칙적인 音韻變化로 설명되지 않는 예인 것이다.

原刊本의 ㆆ은 잘못된 표기라 할 수밖에 없다. 이 잘못된 표기는 有聲的 環境의 ㆆ이 소실된 경우에 가능하다. ㆆ이 소실되지 않은 경우라도 글자 그대로 잘못된 표기는 가능하나, 위의 「ᄎᆞᆯ오다」「ᄎᆞᆯ이다」와 함께 생각한다면 有聲的 環境의 ㆆ이 소실되었기 때문에 音聲言語 「ᄭᅢ여」가 「ᄭᅢ혀」로 쉽게 표기될 수 있는 것이다. 原刊本과 같이 t口蓋音化가 완성된 言語를 보이는 資料의 표기에서는 「디」「지」가 구별되지 못하고서 歷史的으로 「지」가 옳은 「ᄒᆞᆫ가지」가 「ᄒᆞᆫ가디」로 표기됨과 같다. 여기에서 原刊本이 보이는 言語에서는 t口蓋音化와 有聲的 環境에서 ㆆ消失이 일어났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改刊本은 그러한 變化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言語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原刊本과 改刊本이 보이는 方言은 어떤 것일까. 단적으로 말하여 中央에서 간행된 改刊本은 中部方言, 慶尙道에서 간행된 原刊本은 東南方言이나 南部方言을 배경으로 갖는다고 생각된다.(20) 中部方言을 배경으로 한 文獻에서 보이지 않는 口蓋音化가 그보다 刊年이 훨씬 앞서 있으면서도, 東南方言과 西南方言, 곧 南部方言을 배경으로 한 文獻에서는 나타난 실례가 있다. 유명한 重刊杜詩諺解와 1577년(宣祖 10) 全羅道松廣寺重刊의 蒙山法語諺解 등이 그러하다. 1577년 松廣寺刊行의 初發心自警諺解는 口蓋音化를 보이지만, 1583년 京畿道瑞峯寺改刊의 책은 그렇지 않음도 그 예인데,(21) 語錄解의 原刊本과 改刊本도 바로 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口蓋音化뿐 아니라 有聲的 環境의 ㆆ消失이 특이하다. 오늘날 東南方言에서 이 環境의 ㆆ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17세기에 이 ㆆ의 消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東南方言을 배경으로 한 文獻에서 이 變化가 구명되기를 바란다. 비록 ㆆ消失이 달리 나타난다 하더라도, 口蓋音化의 사실만으로도 原刊本이 東南方言 또는 南部方言을 배경으로 갖는 점은 움직일 수 없다.

다음의 語彙도 그러한 方言으로써 설명되는 것으로 보이다. 뒤에 改刊本을 대조하여 둔다.

헤적시다(郞當 8B) : 헤젓ᄂᆞ다(12B)
삽작이라(笆籬 15B) : 사립ᄧᅡᆨ이라(23A)

---

(20) 물론 간행한 곳이 慶尙道일 뿐 아니라, 出典인 李滉과 그 門人이 적은 語錄의 주석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그 出典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刊行의 地域만 말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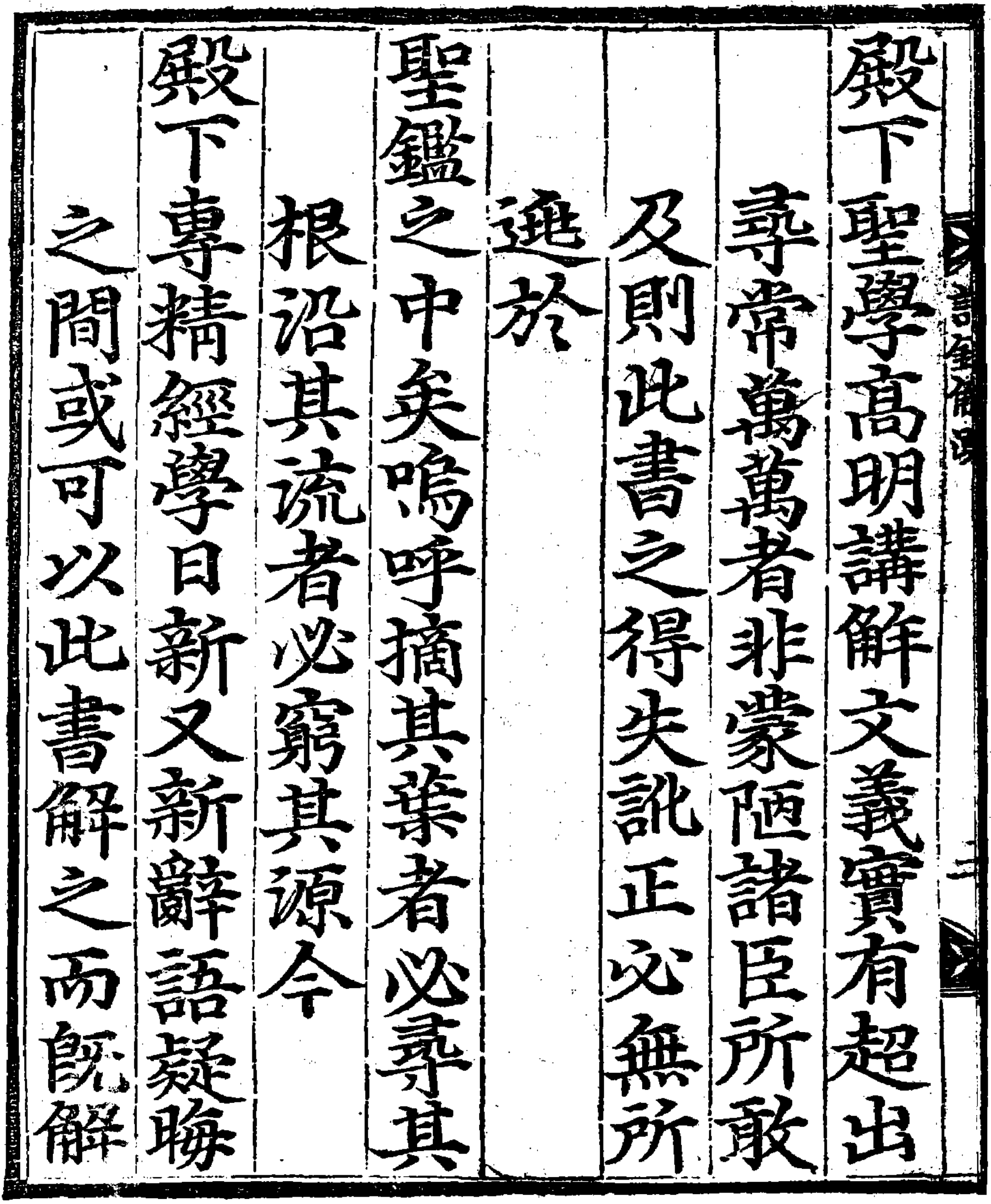
(21) 이러한 文獻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조할 것.
安秉禧, 〈壬辰亂直前 國語史資料의 二三問題에 대하여〉《震檀學報》 33(1972)

도래ᄇᆞᄅᆞᆷ(石尤風 19A) : 회호라ᄇᆞᄅᆞᆷ(33B)

이상으로 語錄解에 대한, 國語史 資料로서의 價値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로 한다. 풍부한 語彙를 보여주고, 原刊本과 改刊本이 흥미있는 言語差를 보여주는 점에 그것은 요약된다. 그러나, 세밀한 조사와 연구에 의하여 이와는 다른 評價도 가능할 것이다. 또 여기에서 다루지 못한 우리나라의 儒學史와 中國語史硏究의 관점에서도 그 價値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러한 硏究에 이 글이 조금이라도 이바지되고, 자극을 줄 수 있다면 그런 다행이 없겠다.

其言又必體之於心行之於事上達不已然則此解雖微亦可爲摘葉尋根沿流窮源之一助此實微臣區區所望之意也時龍集己酉四月日正憲大夫議政府左參贊兼世子贊善成均館祭酒臣宋浚吉奉

教敬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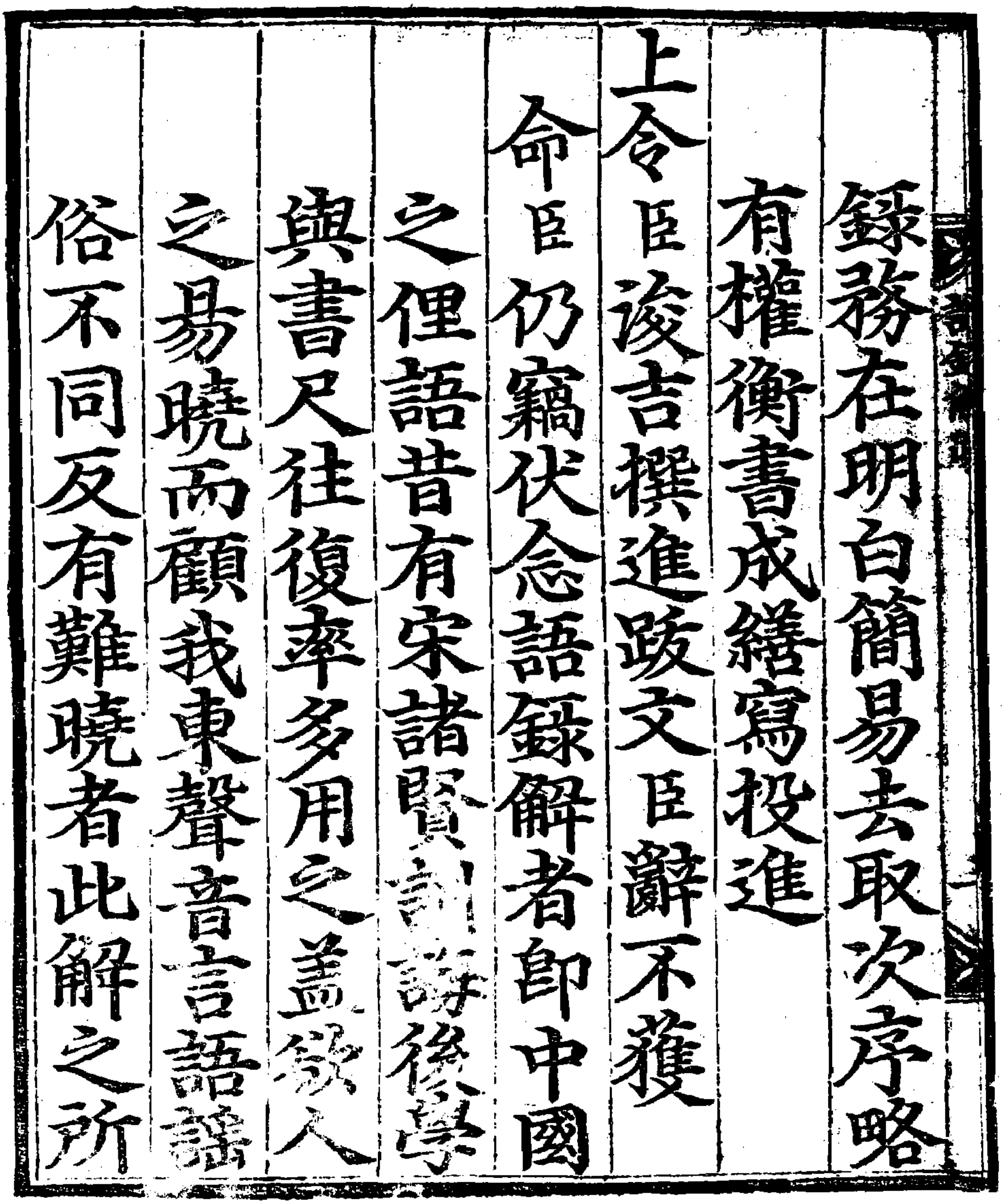


殿下聖學高明講解文義實有超出
尋常萬萬者非蒙陋諸臣所敢
及則此書之得失訛正必無所
逃於
聖鑑之中矣嗚呼摘其葉者必尋其
根沿其流者必窮其源今
殿下專精經學日新又新辭語疑晦
之間或可以此書解之而旣解

(발문 2장 B)

以作也舊本初出於先正臣李滉門人所記而隨手劄錄實欠精粹向者故掌令臣鄭瀁就漢語集覽中拈出如干語以補前錄之未備者然其書不出一人之手故或前後重複或同異牴牾我

殿下命之釐正者為是也仰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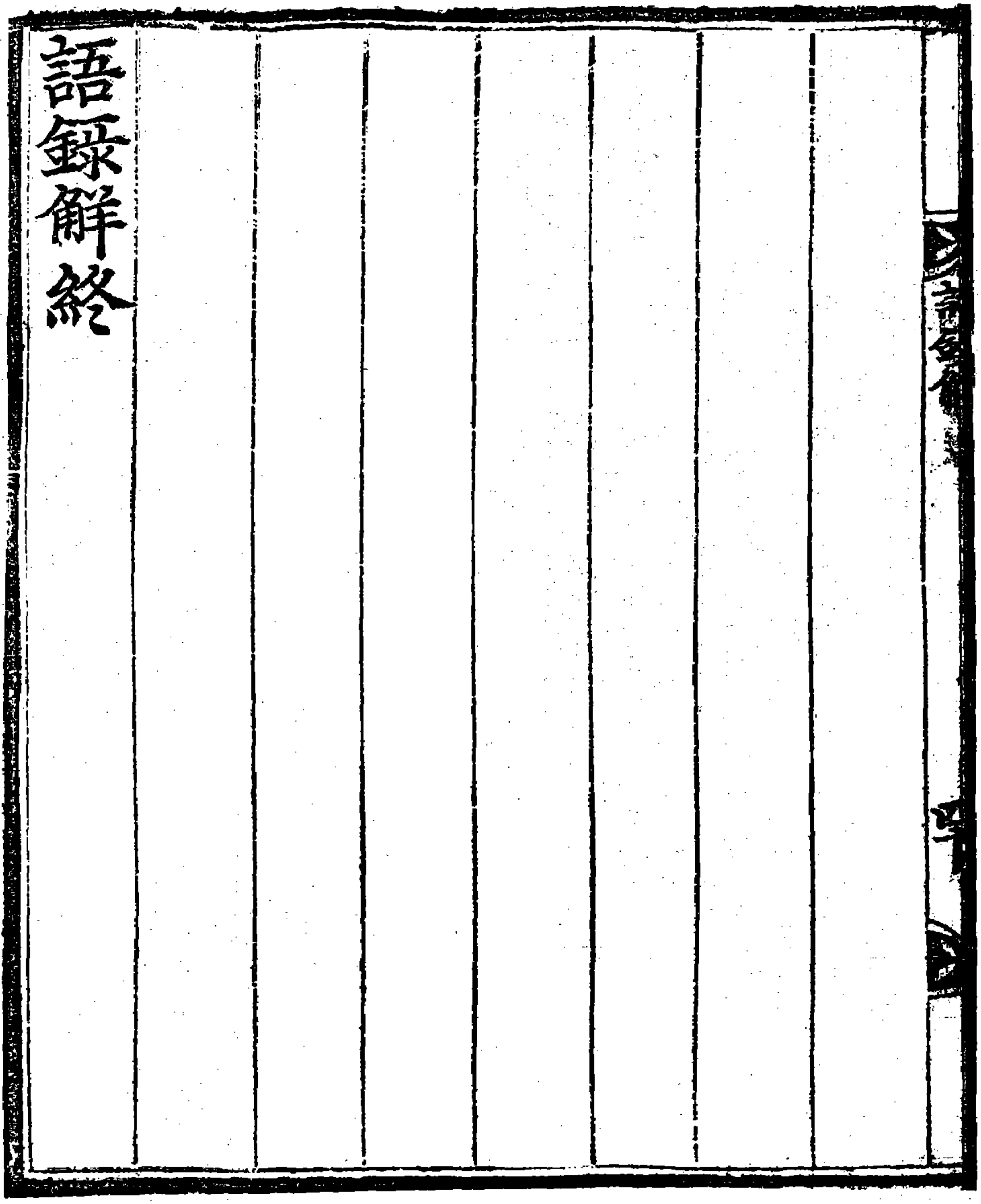


錄務在明白簡易去取次序略
有權衡書成繕寫投進
上令臣浚吉撰進跋文臣辭不獲
命臣仍竊伏念語錄解者卽中國
之俚語昔有宋諸賢討論後學
與書尺往復率多用之蓋欲人
之易曉而顧我東聲音言語
俗不同反有難曉者此解之所

(발문 1장 B)

語録解跋

我
殿下臨筵方講心經討論忘倦一日
教曰語録實多未分曉處玉堂官
可取所謂語録解者詳加攷校
以便繙閱玆役也應教臣南二
星實尸之臣亦猥聞其一二刪
其繁蕪訂其訛謬揔合前後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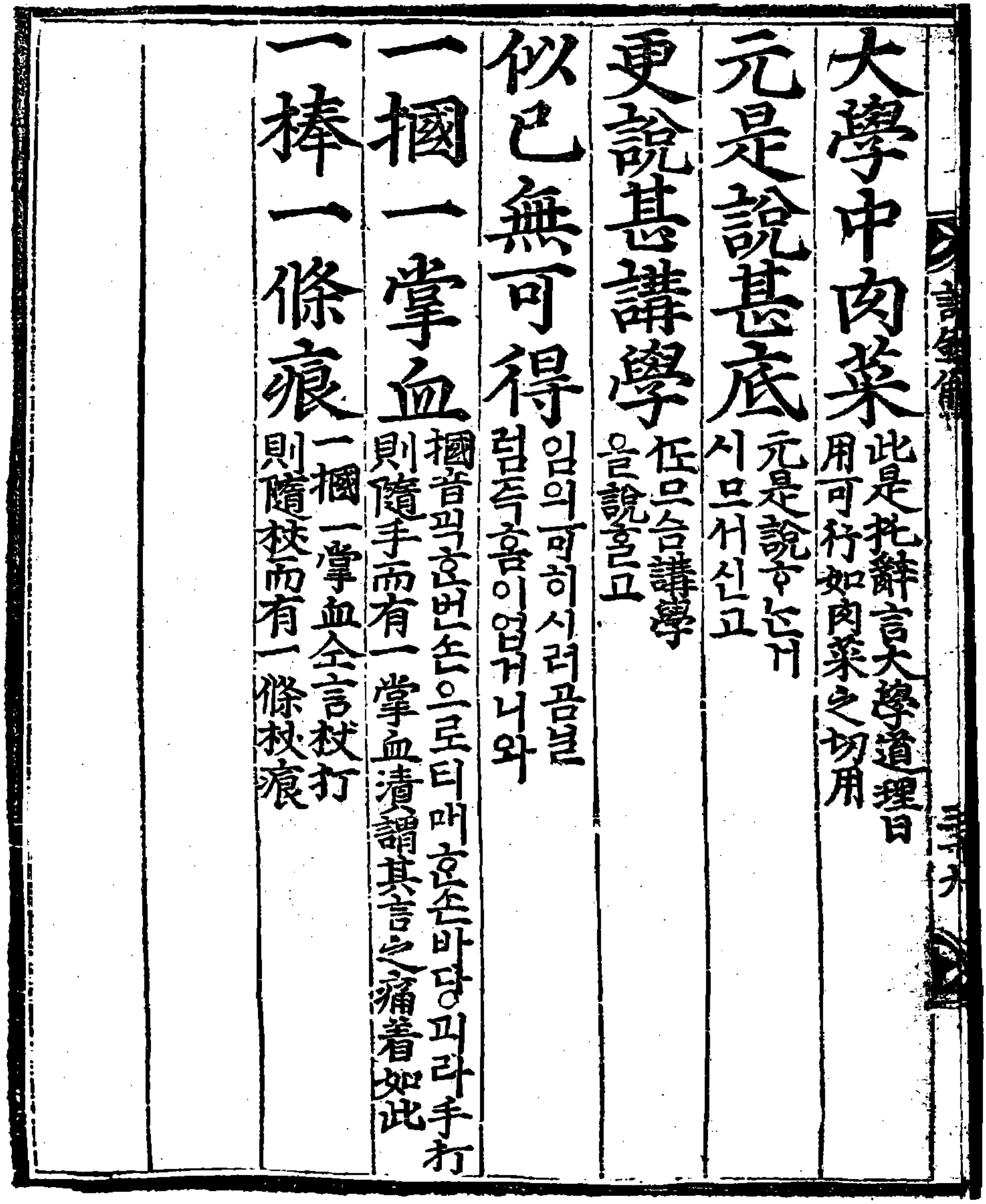


語錄解終

六字類

一節易如一節（一節이一節두곤쉽다）

會去分別取舍（去ᄒᆞ야分別取舍를會ᄒᆞ다○去似是語辭）



大學中肉菜（此是托辭言大學道理日用可行如肉菜之切用）

元是說甚底（元是說ᄒᆞᄂᆞᆫ거시므어신고）

更說甚講學（ᄯᅩ므슴講學을說ᄒᆞᆯ고）

似已無可得（임의可히시러곰ᄇᆞᆯ렴즉ᄒᆞᆷ이업거니와）

一摑一掌血（摑音괵ᄒᆞᆫ번손으로티매ᄒᆞᆫ손바당피라手打則隨手而有一掌血漬謂其言之痛着如此）

一棒一條痕（一摑一掌血仝言杖打則隨杖而有一條杖痕）

(39장 B)

五字類

看做甚麽事（므슴일을ᄒᆞ、논고볼디라）

义手如何法（用二手大指相交則右大指在上左大指在下右四指在內左四指在外盖取陰陽交合之義○졈댱디ᄂᆞᆫ거시므슴법고）

真箇會底意（會理會之會兼知行意진실로니회ᄒᆞ욘ᄠᅳ디라○底本也진실로本意를안다）

癡獃罔兩漢（딥獃騃어린놈罔兩俗語망ᄐᆡᆼ이之意○罔兩鬼魅也）

一場大脫空（ᄒᆞᆫ밧탕크게소탈ᄒᆞ고허타）

更着甚工夫（甚音合다시므슴工夫ᄅᆞᆯ着ᄒᆞ리오）

精切似二程（二程두븐精切ᄒᆞ다）

職輕任碎（謂雜職）責惡於人（以惡移人而自脫）

進熟圖身（進軟熟之言ㆍ而圖貴其身）受其斟酌（猶言被進退操縱）

首尾周皇（首尾믄두루ᄯᅥ려猶言畏首畏尾）

多爭十年（爭爭較也謂一年血氣之衰將與十年衰耗者相較也較比也）

賦食行水（밥ᄂᆞᆫ화주고믈도로다○齊竟陵王子良篤信釋敎大集衆僧｜｜｜｜躬親其事世以爲失）

任運騰騰（싀헌이ᄆᆞᅀᆞᆷ으로잇다○猶云任便）

無甚利害（그대도록니홈도업고해홈도업다）

鞭辟近裏（채텨뵈야안ᄒᆞ로갓가이ᄒᆞ다○朱子曰此是洛中語一作鞭約是要鞭督向理去）

打成一片（表裡精粗貫通浹洽○猶言作成一塊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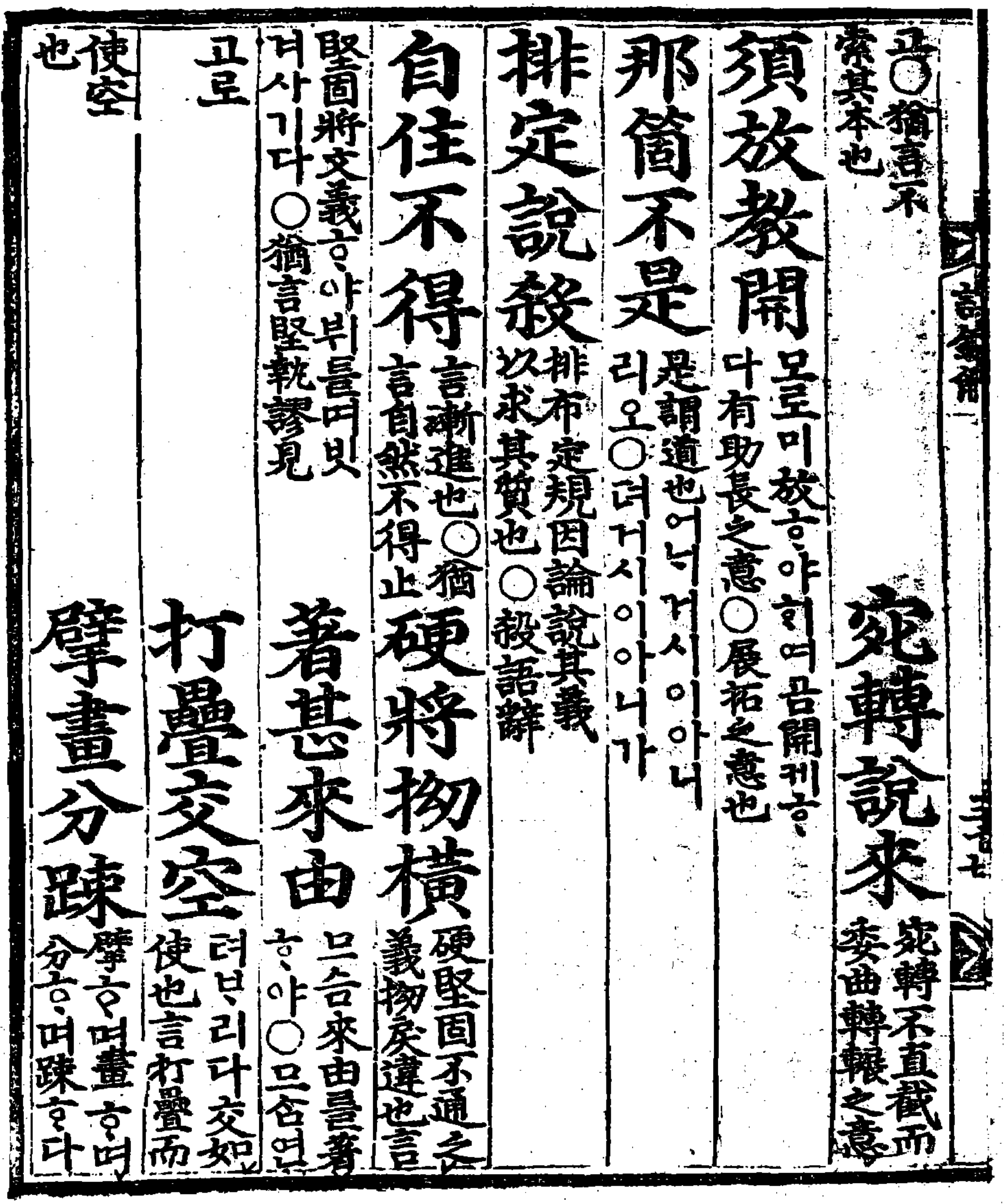
捺生做熟（生을捺ᄒᆞ야熟을做ᄒᆞ다）　奔程趂限（程에奔ᄒᆞ며限에趂ᄒᆞ다）

亭亭當當（言處之皆得其意）　因循擔閣（虛度時日以致廢事）

直饒見得（빌ᄉᆞ보나直饒猶言縱使也）　鶻突包籠（人之心地不明者曰鶻突作事不果斷者曰包籠）

未解有父（見大學九章小註尋常釋語錄解字爲아다ᄒᆞ거니와以此未解之解釋之豈可謂아다ᄒᆞ리오凡用解字會字處雖難以方言的實解得只是그이리그리도외믈謂之解라ᄒᆞ니亦謂之會）

事在恩後（謂犯罪在赦後不可赦也）



語錄解 三十七

（곰○猶言不索其本也）

宛轉說來（宛轉不直截而委曲轉輾之意）

須放教開（모로미放ᄒᆞ야ᄒᆡ여곰開케ᄒᆞ다有助長之意○展拓之意也）

那箇不是（是謂適也어ᄂᆞ거시이아니리오○뎌거시이아니가）

排定說殺（排布定規因論說其義以求其質也○殺語辭）

自住不得（言漸進也○猶言自然不得止）

硬將拗橫（硬堅固不通之義拗戾違也言堅固將文義ᄒᆞ야뷔틀며빗거사기다○猶言堅執謬見）

著甚來由（므슴來由를著ᄒᆞ야○므슴연고로）

打疊交空（더브리다交如使也言打疊而使空也）

擘畫分踈（擘ᄒᆞ며畫ᄒᆞ며分ᄒᆞ며踈ᄒᆞ다）

(37장 B)

兩項地頭（두녁ᄯᅡ곳티라猶言두가짓곳이라）

挨着粉碎（挨音의排也盪也排盪猶言撞着言諸說撞着於此說便成破碎也）

做件事着（件事ᄅᆞᆯ밍ᄀᆞ라ᄒᆞᄂᆞ니着字不必釋○ᄒᆞᆫ일ᄒᆞ려ᄒᆞ면）

甚生氣質○（甚生猶言非常也見近思錄註어ᄯᅵᆫ긔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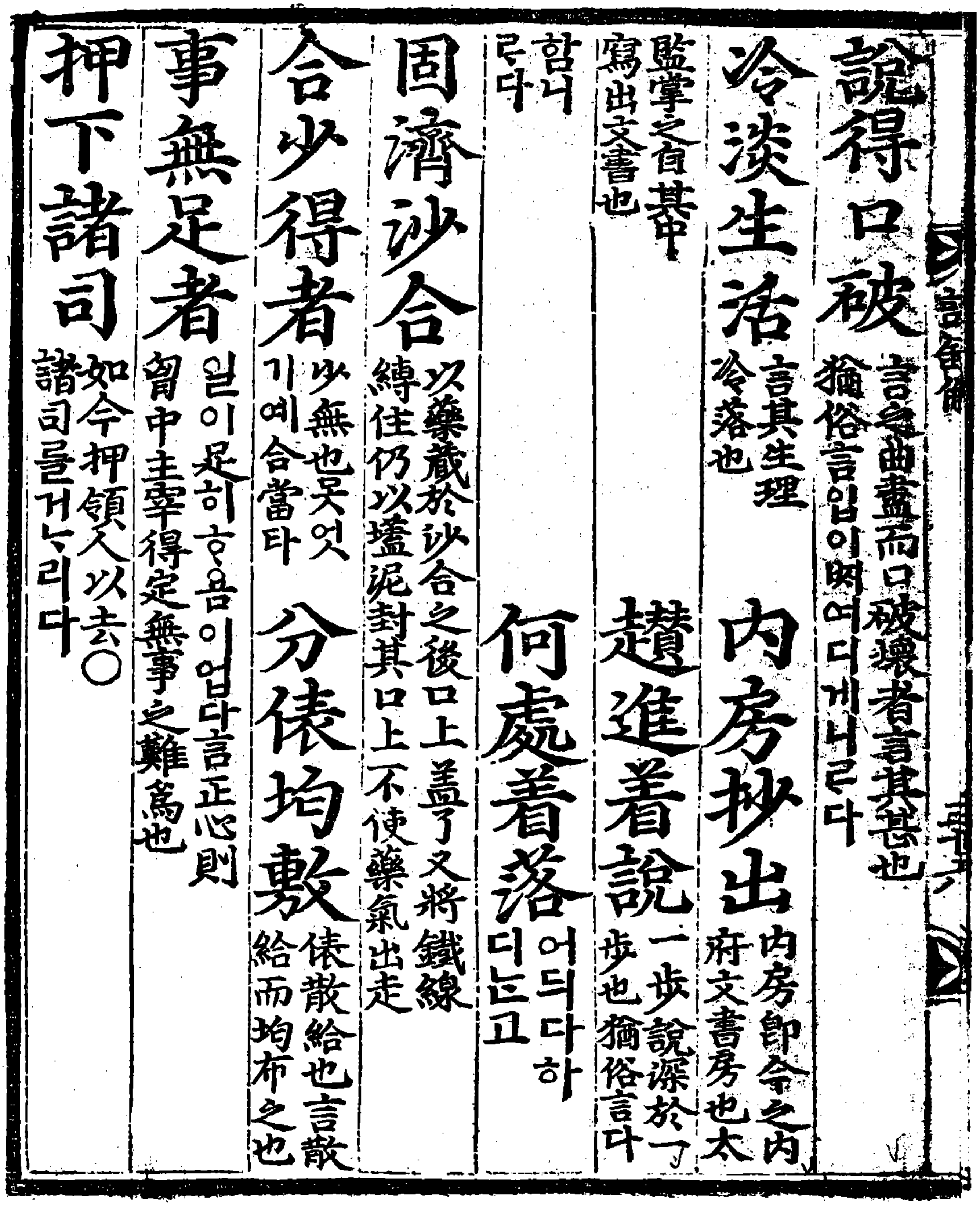
領略將去（領會也略取也領會ᄒᆞ야取ᄒᆞ야將ᄒᆞ야가다）

奈何不下（아ᄆᆞ리티몯ᄒᆞ다）

八字打開（八別也象分派相別之意言分明也）

鐵籠罩却（罩者以籠自上罩下以捕魚者謂以鐵作籠自上籠下則其中籠罩之物無緣脫出言無所見）

不求其素（그틘의그ᄅᆞᆫ일란求티아니ᄒᆞ야



說得口破（言之曲盡而口破壞者言其甚也猶俗言입이ᄠᅧ여디게니ᄅᆞ다）

冷淡生活（言其生理冷落也） 內房抄出（內房卽令之內府文書房也太監掌之官其中寫出文書也） 趲進着說（一步說深於一步也猶俗言다함니ᄅᆞ다）

何處着落（어듸다하디ᄂᆞᆫ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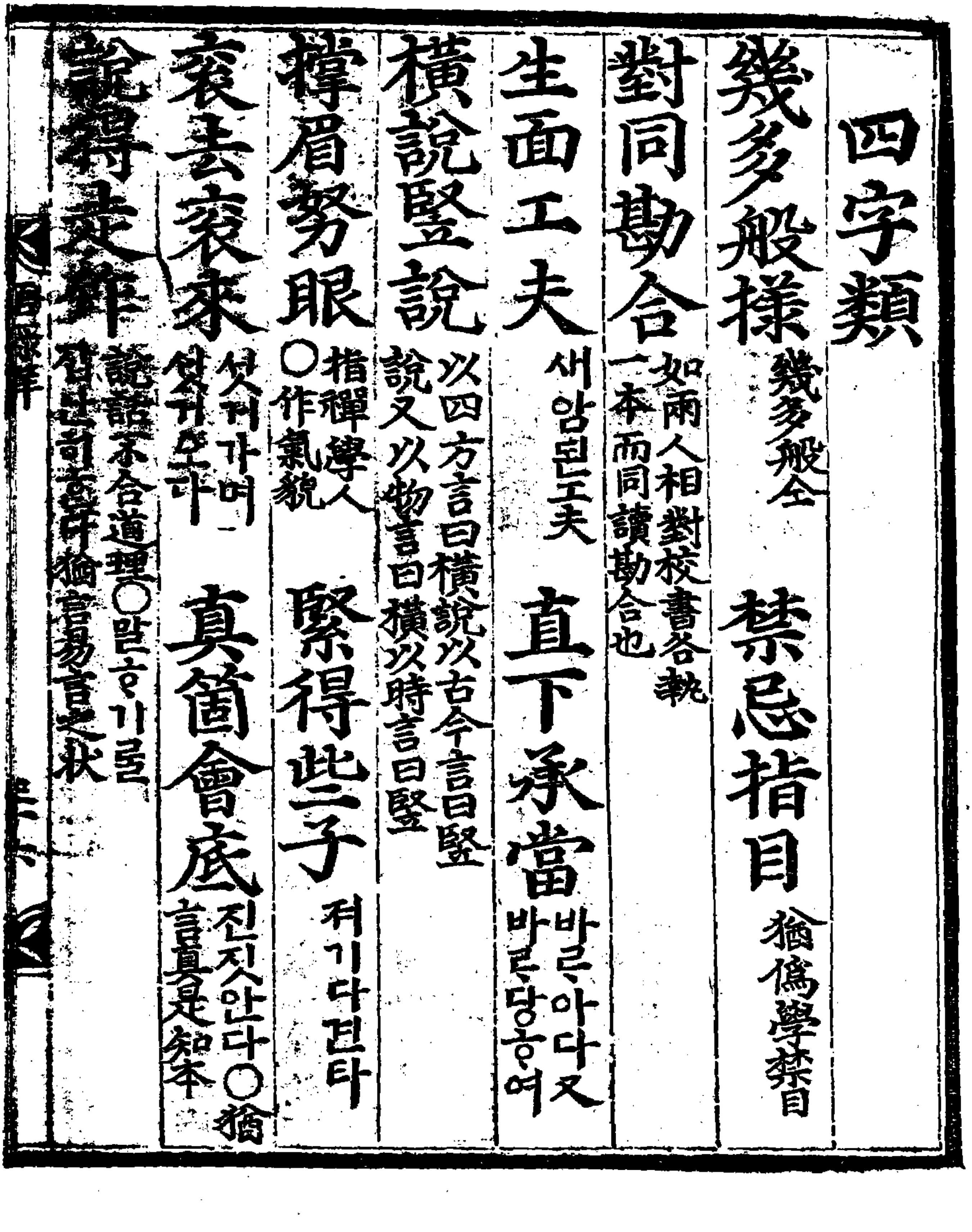
固濟沙合（以藥藏於沙合之後口上蓋了又將鐵線縛住仍以壚泥封其口上不使藥氣出走）

合少得者（少無也몯엇기예合當타） 分俵均數（俵散給也言散給而均布之也）

事無足者（일이足히ᄒᆞ욤이업다言正心則胷中主宰得定無事之難爲也）

押下諸司（如今押領人以去○諸司를거ᄂᆞ리다）

(36장 B)



四字類

幾多般樣（幾多般仝） 禁忌指目（猶僞學禁目）

對同勘合（如兩人相對校書各執一本而同讀勘合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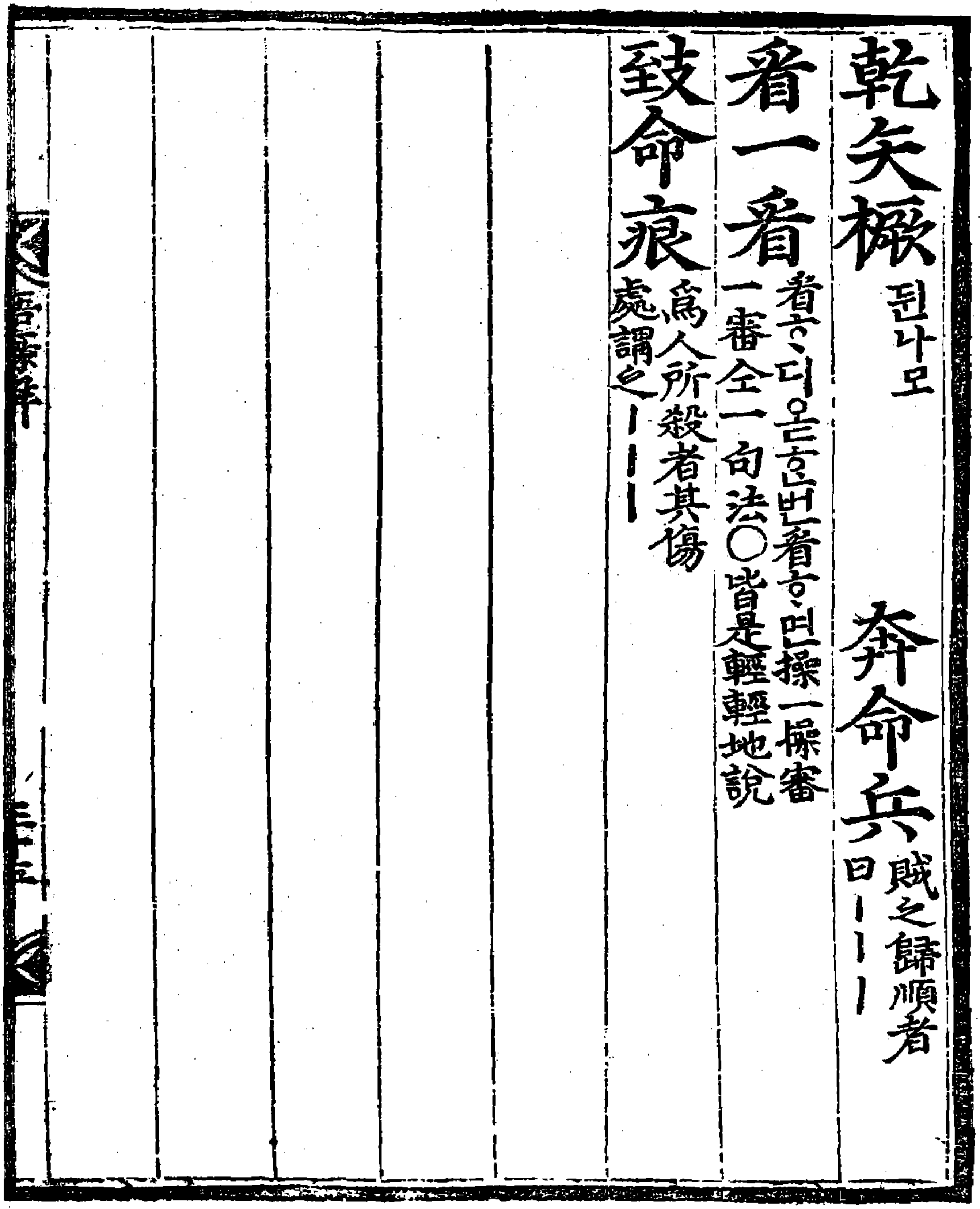
生面工夫（새암된工夫） 直下承當（바ᄅᆞ아다 又 바ᄅᆞ당ᄒᆞ여）

橫說竪說（以四方言曰橫說以古今言曰竪說又以物言曰橫以時言曰竪）

撐眉努眼（指禪學人○作氣貌） 緊得些子（져기다뎓타）

衮去衮來（섯겨가며 섯겨오다） 眞箇會底（진짓안다○猶言眞是知本）

說得走作（說話不合道理○말ᄒᆞ기를 잡말히ᄒᆞ야猶言易言之狀）



乾矢橛（된나모）　奔命兵（賊之歸順者曰ㅣㅣ）

看一看（看ᄒᆞ디온ᄒᆞᆫ번看ᄒᆞ면操一操審一番全一句法○皆是輕輕地說）

致命痕（爲人所殺者其傷處謂之ㅣㅣㅣ）

(35장 A)

渾化却（言查滓渾化而無也 却語助辭當屬上句）急衮處（急히밥븨므린듸）

激惱人（사ᄅᆞᆷ을도도와보채단意）太瀾翻（言放肆鴻洞如波瀾翻動也）

陪奉宅（問陪奉猶陪隨奉持之意否曰此說亦得但奉持之持改作事爲切○뎌ᄅᆞᆯ뫼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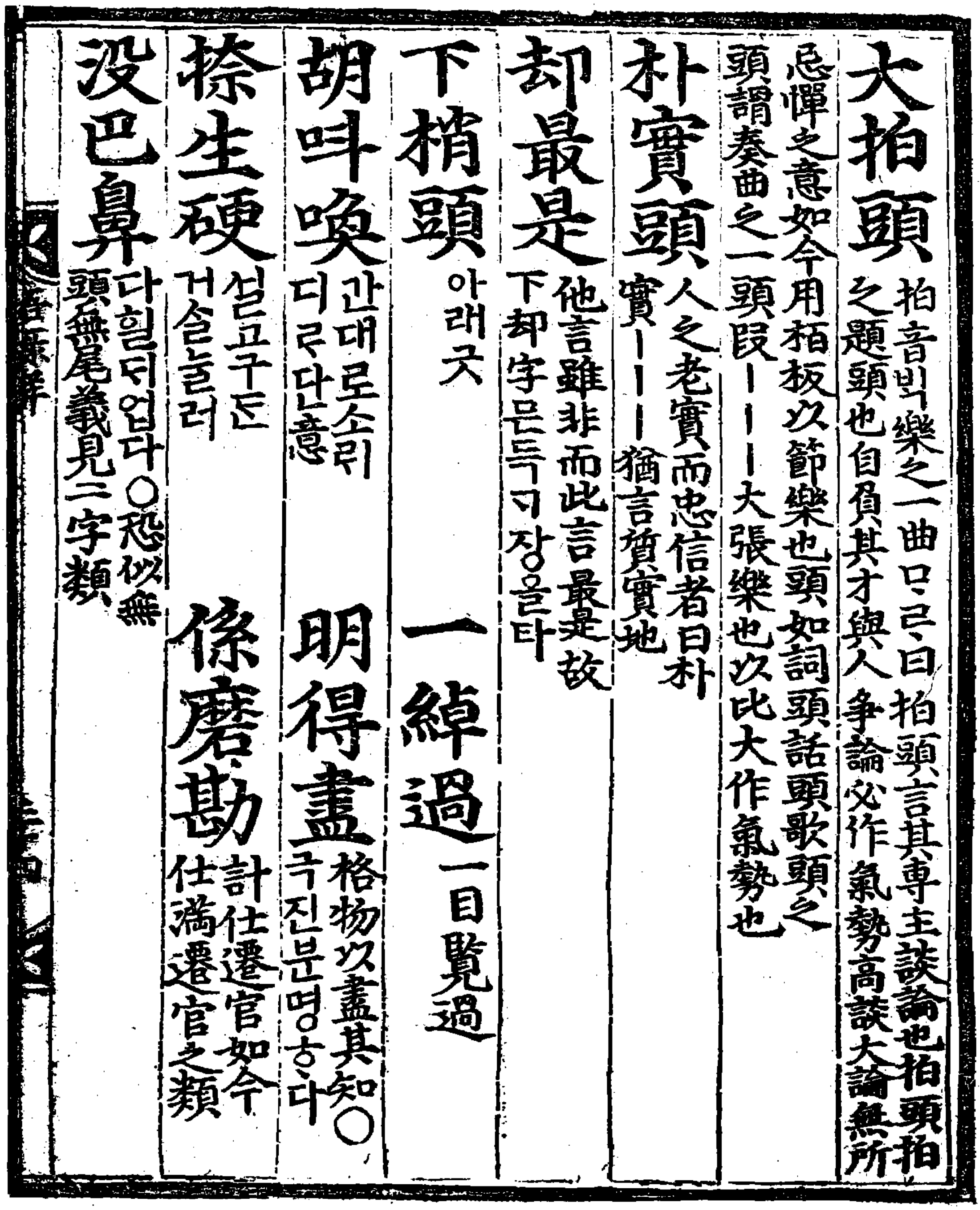
要得剛（剛을브듸ᄒᆞ고뎌ᄒᆞ다）射糖盤（見論語北辰章小註○似是맛돌쇠）

伊蒲塞（佛語漢語翻爲近住 言受戒行堪近僧住）一錢漢（謂人物僅直一錢也漢賤稱）

犢一羫（羫音江軀殼也猶言犢一頭○羫一作腔骨體也）

不別才（無特別之才謂庸人）彼此言（譏言）

何物人（그사ᄅᆞᆷ이엇던것고 侮而責之之辭）兩當衫（衫之只掩心背者○漢語云背心子）



大拍頭（拍音빅樂之一曲ᄆᄅ曰拍頭言其專主談論也拍頭拍之題頭也自負其才與人爭論必作氣勢高談大論無所忌憚之意如今用栢板以節樂也頭如詞頭話頭歌頭之頭謂奏曲之一頭段丨丨丨大張樂也以比大作氣勢也）

朴實頭（人之老實而忠信者曰朴實丨丨丨猶言質實地）

却最是（他言雖非而此言最是故下却字믄득ᄀᆞ장올타）

下梢頭（아래긋）　一綽過（一目覽過）

胡叫喚（간대로소ᄅᆡ디ᄅᆞ단意）　明得盡（格物以盡其知○극진분명ᄒᆞ다）

捺生硬（설고구든거슬눌러）　係磨勘（計仕遷官如今仕滿遷官之類）

没巴鼻（다힐ᄃᆡ업다○恐似無頭無尾義見二字類）

(34장 A)

大字面（古者黥賊字於其面） 不奈何（아므라타몯ᄒᆞ려니와）

白頭浪（水波湧起高出而白者曰｜｜｜） 形而上（形으로上애未有形之前只有理而已）

形而下（形인下애旣有形之後有器之名） 動不動（動與不動之間如動輒之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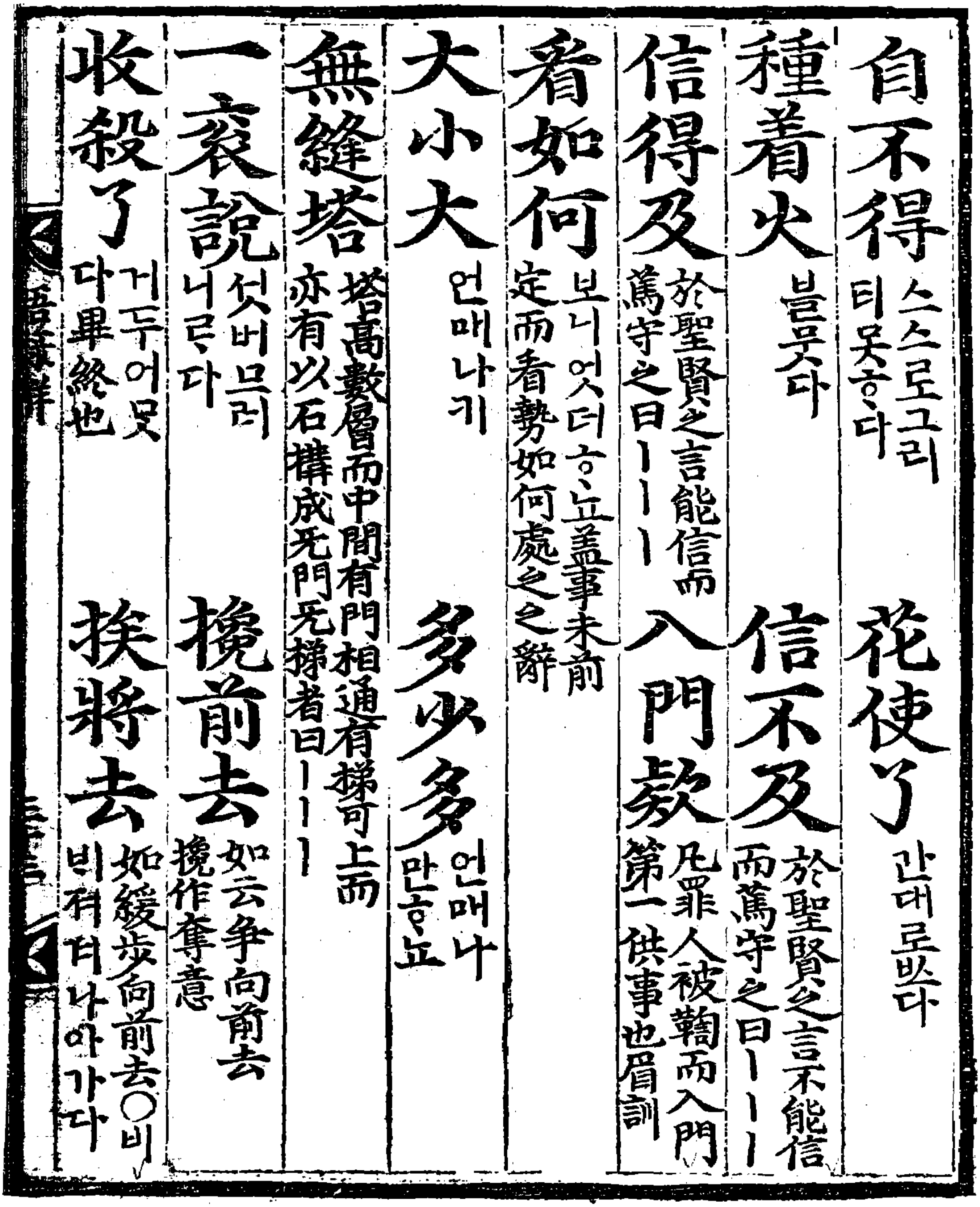
石尤風（逆風舟不利行曰｜｜｜회ᄒᆞ리ᄇᆞ람唐詩無將故人酒不及石尤風○亦云頂頭風）

作怎生（엇디ᄒᆞ료又므슴ᄒᆞ라○므ᄉᆞ일을ᄒᆞᄂᆞᆫ다）

甚工夫（甚怎全○므슴工夫） 大着肚（肚腹也○힘스ᄂᆞᆫ거동）

鶻崙棗（如云完全○有鶻崙吞棗之語대쵸ᄅᆞᆯ오니로ᄉᆞᆷ키단말）

上着牀（上於牀也牀卽坐臥牀也） 放門外（門外예두다）



自不得（스스로그리티몯ᄒᆞ다）花使了（간대로ᄡᅳ다）

種着火（블븟다）信不及（於聖賢之言不能信而篤守之曰ㅣㅣㅣ）

信得及（於聖賢之言能信而篤守之曰ㅣㅣㅣ）入門欵（凡罪人被鞫而入門第一供事也眉訓）

看如何（보니엇더ᄒᆞ뇨蓋事未前定而看勢如何處之之辭）

大小大（언매나기）多少多（언매나만ᄒᆞ뇨）

無縫塔（塔高數層而中間有門相通有梯可上而亦有以石構成无門无梯者曰ㅣㅣㅣ）

一衮說（섯비므리니ᄅᆞ다）攙前去（如云爭向前去攙作奪意）

收殺了（거두어ᄆᆞᆺ다畢終也）挨將去（如緩步向前去○비븨쳐텨나아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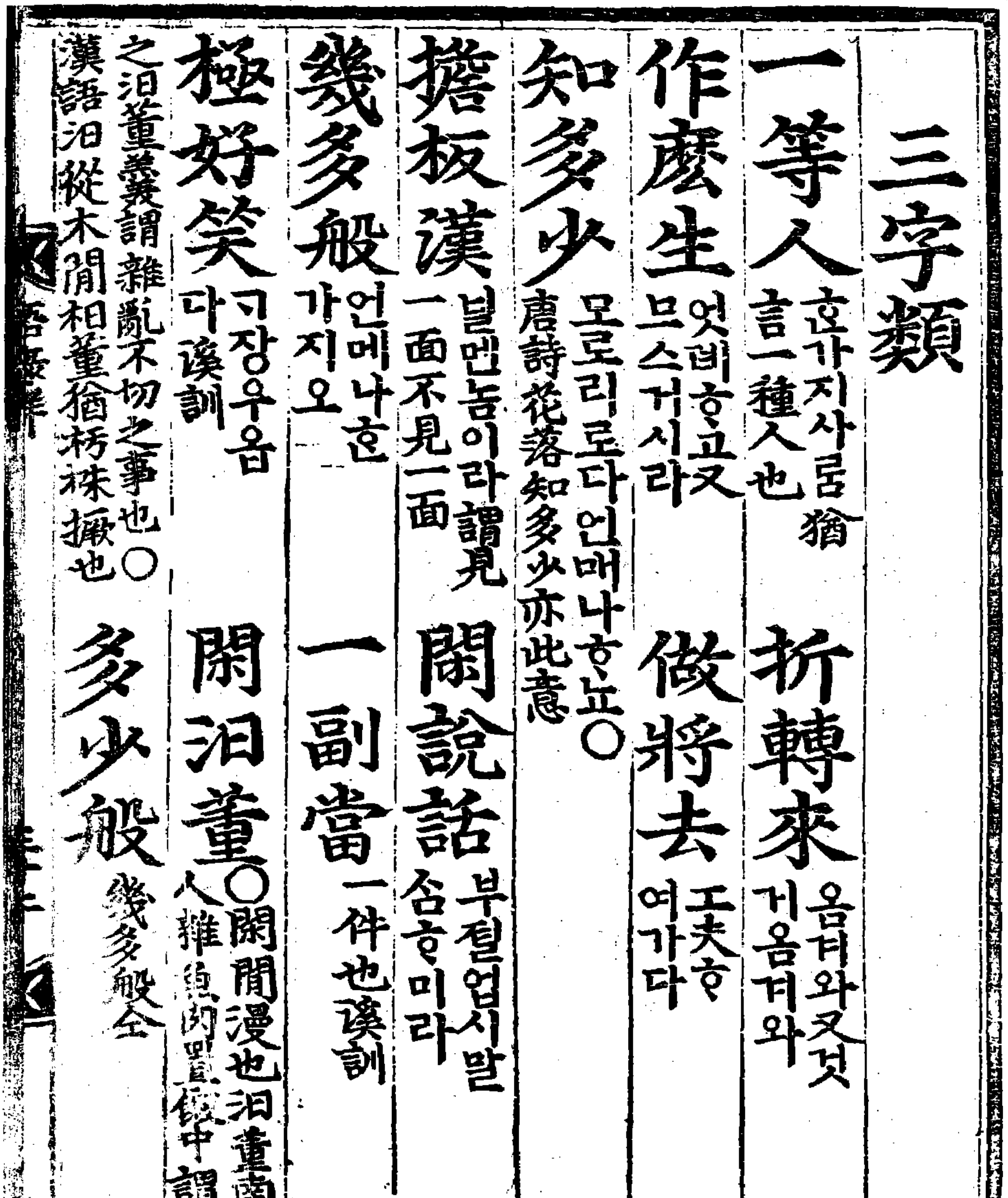
語錄解

三十三

(33장 A)

從他說（○뎌의니ᄅᆞ논대로좃다）
將就的（○猶容恕扶護之意的語辭）
就那裏（즉제게셔）
都不得（아므려도못ᄒᆞ다○다못ᄒᆞ다）
不折本（밋디디아니타）
記認着（보람두다）
這幾日（요ᄉᆞ옴）
没由來（쇽졀업다）

較些子（져기방ᄋᆞ다○져기겨로다）
花搭步（ᄌᆞ늑ᄌᆞ늑건다）
不多時（아니한ᄉᆞ이）
織的鬆（ᄧᆞᆫ거시얼믜다○鬆漢音숑）
錯承當（외오아다○그릇담당ᄒᆞ다）
俽俫的（긔수ᄒᆞ다○俫字恐是倸字之誤）
許多時（하다ᄒᆞᆫ시졀이라）
剋落了（골겨내다）



三字類

一等人（ᄒᆞᆫ가지사ᄅᆞᆷ猶言一種人也）

折轉來（옴겨와又것거옴겨와）

作麽生（엇디ᄒᆞ료又므스거시라）

做將去（工夫ᄒᆞ여가다）

知多少（모로리로다언매나ᄒᆞ뇨○唐詩花落知多少亦此意）

擔板漢（ᄂᆞᆯ면놈이라謂見一面不見一面）

閑說話（부질업시말ᄉᆞᆷᄒᆞ미라）

幾多般（언메나ᄒᆞᆫ가지오）

一副當（一件也溪訓）

極好笑（ᄀᆞ장우ᄋᆞᆸ다溪訓）

閑汨董（○閑閒漫也汨董南人雜魚肉置飯中謂之汨董義謂雜亂不切之事也○漢語汨從木閒相董猶杇株撅也）

多少般（幾多般仝）

(32장 A)

驗白（효험나 분명타）

已日（已過一日也）

花押（如今슈례）

고북권（기동）

疾足（밧비 가ᄂᆞᆫ사ᄅᆞᆷ惡足同）

折閱（흥졍애 힘혀 믿가ᄒᆞ여 죠곰 리주ᄂᆞᆫ 거ᄉᆞᆯ 名曰ㅣㅣ）

陪貼（增益不足之數也古有ㅣㅣ輸官之語○陪字恐是賠字）

下熟（稍豐也中熟上熟以此推之）

王租（나라구실）

鬆鬆（江左人以酒和麵則麵起ㅣㅣ如今상화○섭섭ᄒᆞᆫ）

吉還（好歸）

觀說（見而言之）

失入（誤入無罪者於法綱）

白民（無官者）

常來（常時）

染涉（上仝）

詢仰（稟問而尊仰）

還忌（顧念而忌憚）

都伯（刑人者都亦作屠）

催切（빗ᄌᆡ촉ᄒᆞ여일텬다바드려ᄒᆞ다）

裁給（계유ᄡᅳ다）

漸來（將來）

連帶（걸리다○ᄂᆞ믜죄여걸리이다猶云죄여지이다）

苦手（杖也매○猶云毒手也）

大可（ᄀᆞ장므던）

索節（索寞）

儈子（上仝○一作劊）

餘犯（旣有重罪又有他罪○餘黨）

休下（如今下番）

饍奴（炊飯之奴○猶言廚子也）

射堋（射垜○활쏘는터회흘ㆍ그로무겁ᄆᆡᆫᄃᆞᆫ거시라）

評直（論價）

在事（有司）

剛濟（剛斷成事○비우이루다）

折難（○벗디러힐난ᄒᆞ다）

頓辱（捽髮而頓地）

中晡（申時）

物土（貢稅）

賭跳（跳躑以高爲勝○ᄠᅧ음나기ᄒᆞ다）

作適（適意作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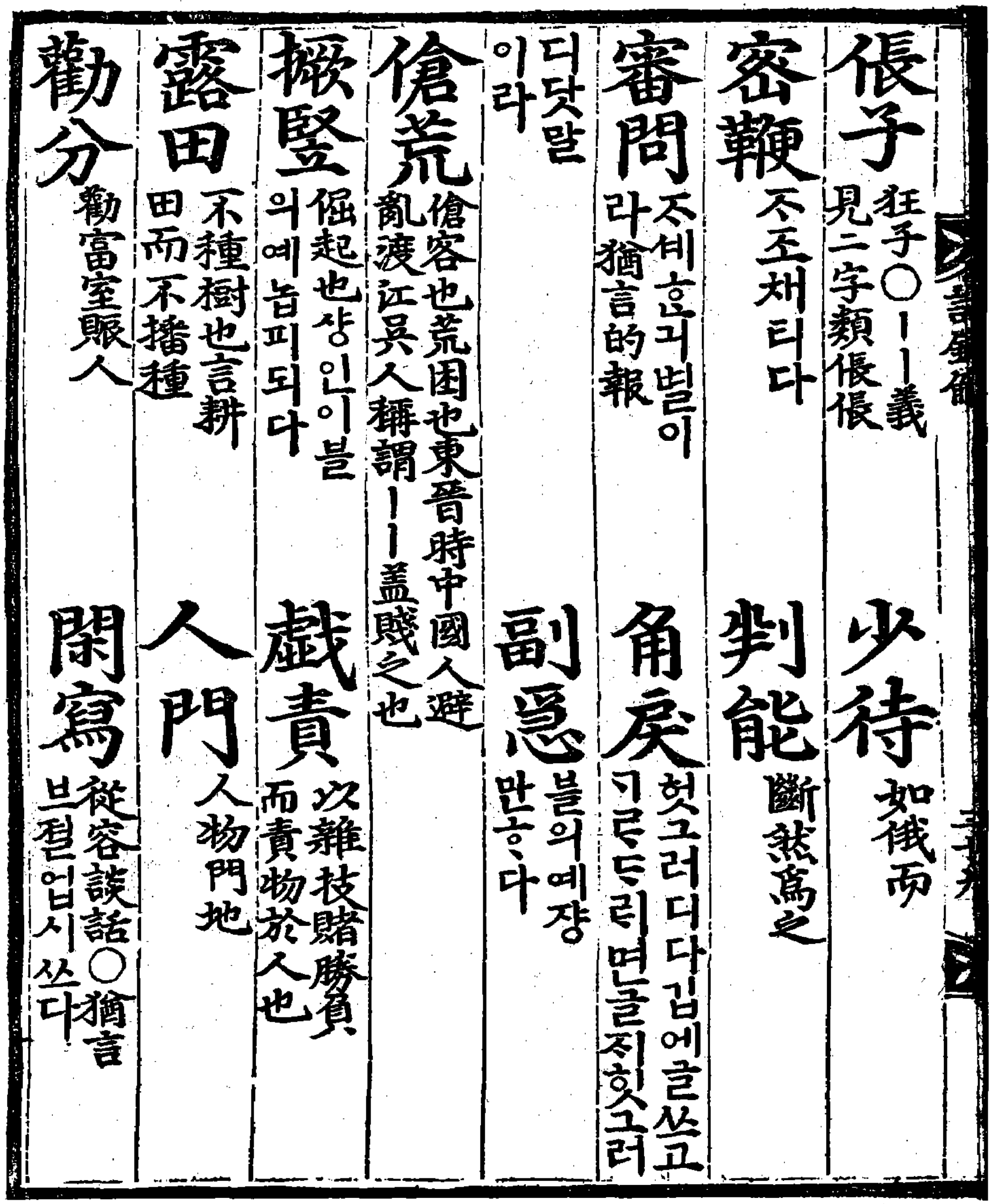
傳可（뎐뎐으로그리ᄒᆞ라ᄒᆞ다）

擲塗（塗泥丸也丨丨以泥丸相擲爲戲）

感尋（感傷艱危而尋思經濟之術）

閣手（縮手不爲也）

下晡（申時末）



倀子（狂子○〡〡義見二字類倀倀）
少待（如俄頃）
密鞭（ᄌᆞ조채티다）
判能（斷然爲之）
審問（ᄌᆞ셰ᄒᆞ긔빌이라猶言的報）
角戾（헛그려디다김에글쓰고ᄀᆞᄅᆞᄃᆞ리면글ᄌᆞ헛그려디닷말이라）
副急（블의예장만ᄒᆞ다）
傖荒（傖客也荒困也東晉時中國人避亂渡江吳人稱謂〡〡蓋賤之也）
撅竪（倔起也상인이블의예놉피되다）
戲責（以雜技賭勝負而責物於人也）
露田（不種樹也言耕田而不播種）
人門（人物門地）
勸分（勸富室賑人）
閑寫（從容談話○猶言브졀업시쓰다）

(29장 B)

折券 빗에우다如馮驩燒券之意○문권에우다

生受 不殺而困苦之

治定 作文而點改

嬈懼 嬈一作撓

裲襠 袴也○前漢書皇后傳宮人皆爲窮袴卽今잠방이

催足 구실지촉ᄒᆞ여다밧다

任催 구실밧기날회다

撿詰 撿核其事而詰問之

收録 捕捉罪人

走弄 奸吏弄法

賧罰 以貨贖罪○賧音淡晉食貨志元后渡江蠻陬賧布註蠻夷以財贖罪也

首悔 首實而伏罪也

詰厲 詰責而勉其自新也

徵備 上仝

假還 受由而歸○假字恐與暇字通用

護前（不使人在己前摘言忌克○압ᄯᅳ리다）

愆懸（糧食不繼○懸似是室如懸之懸）

纂嚴（戒嚴）

拙行（바독못두다불워디ᄂᆞᆫ거ᄉᆞᆯ曰故爲ㅣㅣ）

枉酷（이미히최빕다）

目整（微怒目容以整他人之非）

裨販（賣賤買貴）

妄階（○猶俗言賊職）

劳容（劳僅也如屨小則云ㅣㅣ」足指屋卑則云ㅣㅣ頂趾）

愆之（上仝）

停解（休官○停其俸解其任）

代怖（人有迫於刑禍者己不知怖而旁人爲之怖也）

色裁（正色以示惡之之意○作色貌）

防邏（巡邏而防賊）

質作（質其家人而役之）

反役（길갓다가도라오다）

尢諱（尢大也謂君喪也）

懸論（외오셔의논ᄒᆞ다）

抵蹋（발명ᄒᆞ여나몰내라ᄒᆞ다○抵諱也蹋左傳宣公十二年註斥候蹋伏謂蹤跡隱伏也）

隱拒（上仝）

連咽（舟車相連而塡塞也○咽卽咽喉之路）

肉薄（以身亟戰）

自事（己事）

展至（展寬也如期限初定于正月更寬至二月或三月）

欛柄（欛亦柄也）

訂出（賦稅時商定出令○猶云立訂之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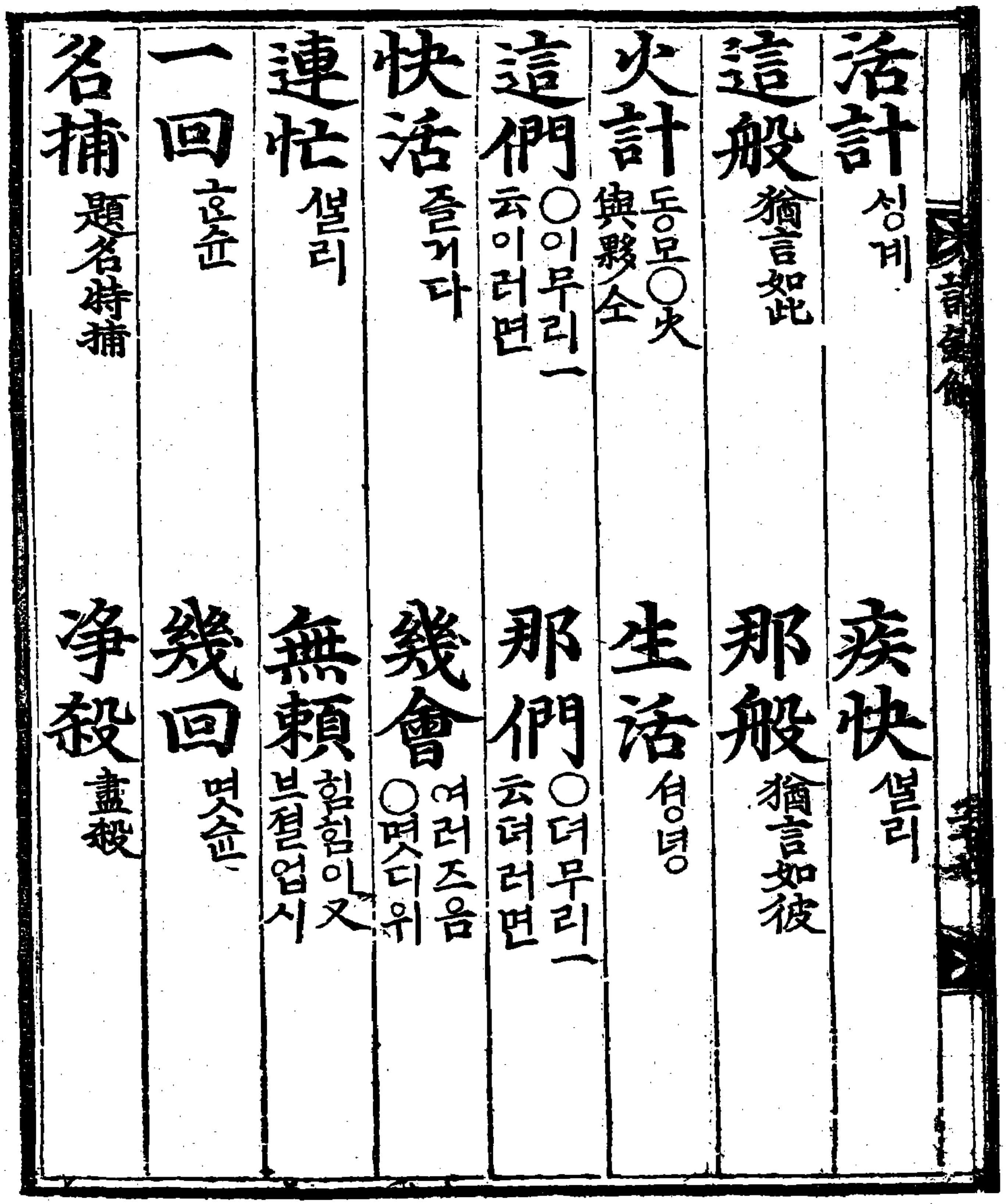
吐款（罪人承服）

答移（答送移文）

旱路（陸路）

死問（訃也）

自送（드려가다）



活計 ᄉᆡᆼ계

這般 猶言如此

火計（동모○火與夥仝）

這們（○이무리一云이러면）

快活 즐거다

連忙 ᄉᆡᆯ리

一回 ᄒᆞᆫ슌

名捕 題名特捕

爽快 ᄉᆡᆯ리

那般 猶言如彼

生活 ᄉᆡᆼ녕

那們（○뎌무리一云뎌러면）

幾會（여러즈음○몃디위）

無賴（힘힘이又브절업시）

幾回 몃슌

淨殺 盡殺

(27장 B)

知會（알외다）

知他（모로리로다）

說知（닐러알외다）

照依（마초와그례로ᄒᆞ다）

分付（맛디다又당부ᄒᆞ다）

不會（못ᄒᆞ다〇젼의못ᄒᆞ다）

剋落（上仝）

丁囑（당부ᄒᆞ다〇丁卽丁寧之意）

省會（上仝）

知得（아다）

自由（제ᄆᆞᄋᆞᆷ으로ᄒᆞ다以自家之心爲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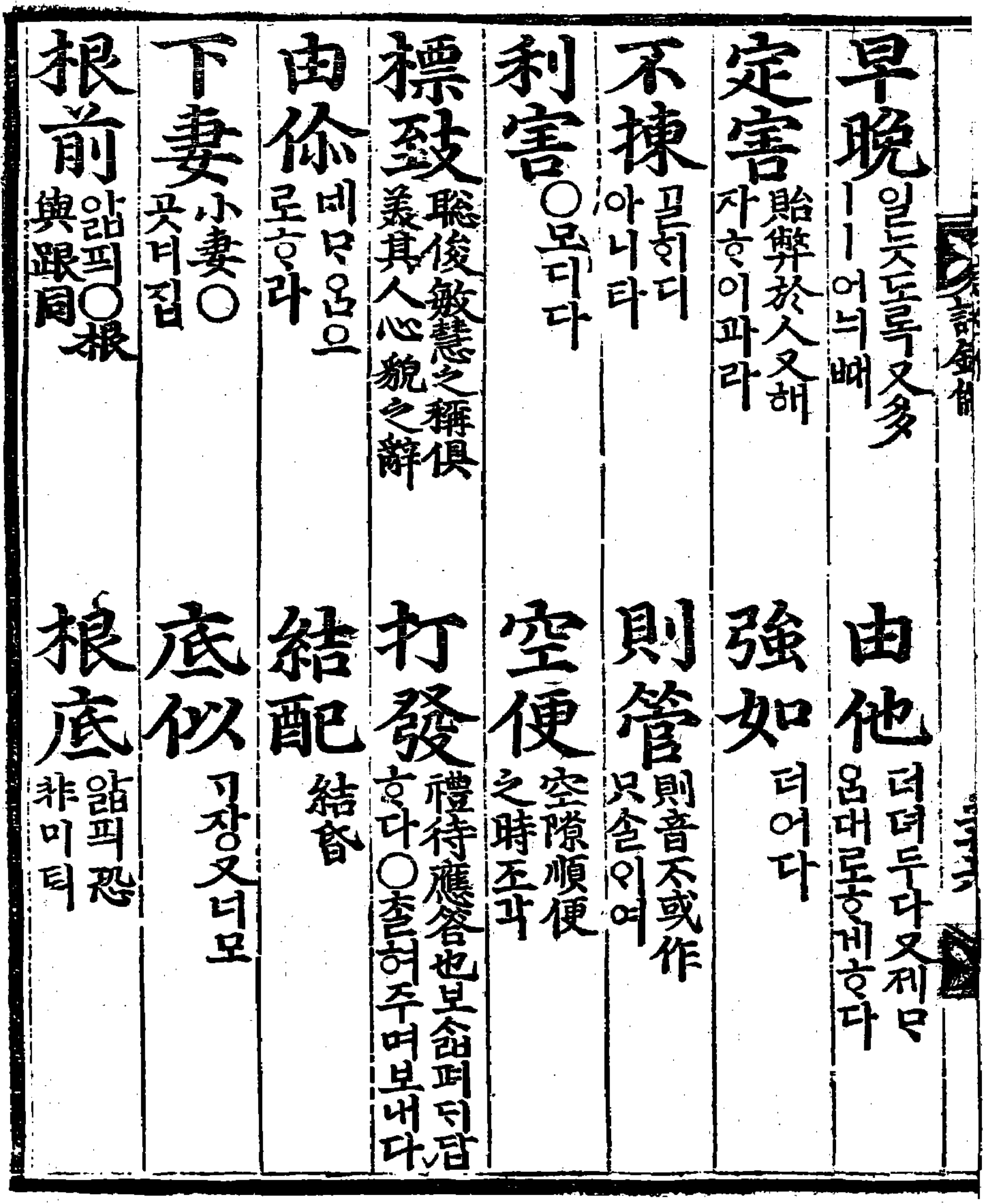
自在（ᄆᆞᄋᆞᆷ편안히잇다）

幾會（어늬제）

剋減（剋亦減也）

減落（減除）

囑咐（당부ᄒᆞ다）



早晩（일ᄂᆞᆺ도록又多ㅣㅣ어늬ᄢᅢ）

定害（貽弊於人又해ᄌᆞᄒᆞ이과라）

不揀（골ᄒᆡ디아니타）

利害（○모디다）

標致（聰俊敏慧之稱俱美其人心貌之辭）

由倷（네ᄆᆞᄋᆞᆷ으로ᄒᆞ라）

下妻（小妻○곳텨집）

根前（앏픠○根與跟同）

由他（더뎌두다又졔ᄆᆞᄋᆞᆷ대로ᄒᆞ게ᄒᆞ다）

強如（더어다）

則管（則音不或作只솔ᄋᆡ여）

空便（空隙順便之時조곽）

打發（禮待應答也보ᄉᆞᆲ피ᄃᆡ답ᄒᆞ다○ᄎᆞᆯ혀주며보내다）

結配（結昏）

底似（ᄀᆞ장又너모）

根底（앏픠恐非미티）

(26장 B)

只消（猶言只須）
云爾（이리니ᄅᆞᆫ다又語辭）
委實（委亦實也）
（意又ᄒᆞᆷ이되게닥다）
斬新（仝）
一面（ᄒᆞᆫ자又ᄒᆞᆫ녁ᄒᆞᆯ로又ᄒᆞᆫ번）
罷罷（두워라두워라亦曰也罷）
一發（仝上）

不消（猶言不須也不必也）
委的（委保也信也的語助辭）
一剗（○音찬平也削也鏟治之義也亦曰剗地忽然之）
剗新（새로이）
生受（艱苦也又貧乏也○ᄂᆞᆷ의게貽弊ᄒᆞ다）
收拾（간슈ᄒᆞ다又설엇다又거두다）
一就（ᄒᆞᆷᄭᅴ）
一宿（ᄒᆞᆫ숨又ᄒᆞᄅᆞᆺ밤）

親灸（薰灸○灸音젹 블의 ᄡᅥ다又音쟈膾灸也）

畢竟（猶言要其終而言之）

元料（猶本計）

延蔓（뒤너츠다）

亹亹（音尾自強不息○不厭之意）

章皇（猶蒼皇）

也須（그럴ᄯᅵ라도 모로미그리ᄒᆞ라○猶言好在也）

裏許（許猶所也）

必竟（猶畢竟）

醲差（猶言大差○醲大也）

甚底（音ᄉᆞᆷ뎌어ᄃᆡ○므슴）

一等（ᄒᆞᆫᄎᆞᆼ又ᄒᆞᆫ가지）

勸諫（人有所爲不是而我救正之也）

安置（以物寘於其所也又流放罪人於某所者亦曰一一）

姜芽（姜之初出土而萌芽方長者姜薑通用）

商量（立心然後其上頭可以ㅣㅣ ㅣ젼즈려보다又혜아려）　爐鞴（鞴音備고븐블무 애블븟ᄂᆞᆫ거시라）

旬呈（諵居之人有ㅣㅣ之事 如今每旬手本之事）　摶量（ᄒᆞ되모도와量ᄒᆞ다如斗 量之時必摶而量之也）

火迫（急遽）　端的（猶定奇 ○正히）

剌破（○좀요로온 되틀헷티다）　逐項（逐事）

作到（纔到）　髡剃（剃音톄ㅣㅣ 削髮之謂）

犯手（下手同 손디다）　目今（猶見今卽 當今也）

耐煩（煩거키롤 븐디다）　當體（當身）

齰舌（혀므단말）　宿留（宿音介止也有 所希望而留之）

着力（盡力也猶有助長之意）

張皇（포댱ᄒᆞ다）

將息（安坐自在養神保氣曰ㅣㅣ）

照會（校正也○察解也）

卒急（과ᄀᆞᆯ리）

裝點（ᄭᅮ미다）

歸宿（如言安定）

出塲（猶言畢其事）

將上（將ᄒᆞ야上ᄒᆞ다）

着緊（긴히着ᄒᆞ단말이라긴히之히 含着意）

襯貼（音츤뎝襯브티다貼비뎝ᄒᆞ다如以他物貼此物也）

申發（申보장ᄒᆞ단말이니ㅣㅣ은보장ᄒᆞ여내여보내다）

說殺（殺音쇄니說ᄒᆞ여못다）

上供（如今貢物）

無量（不以幾器爲限惟適於氣世儒以飮之无限看者非）

落草（기ᄋᆞᆫ디落ᄒᆞ다○도적의무리예드다）

冷着（우이티긴다猶冷笑）

扶策（븟들며채티다警人怠惰如馬之不行擧策輒行）

領會（領略同）

取會（取其所會計也）

不托（或作餢飥나화之類）

攙斷（攙士咸切貫剌之也言以己意貫入文義而斷之也）

狼當（狼藉仝○狼字似是浪字小兒戲頑甚者謂之浪當）

省事（省音성일을더다）

鶻圇（團圓爲一不分析之狀○與三字鶻圇棗之義相近）

不着（不合）

不透（心欲解而不通透卽憤悱之意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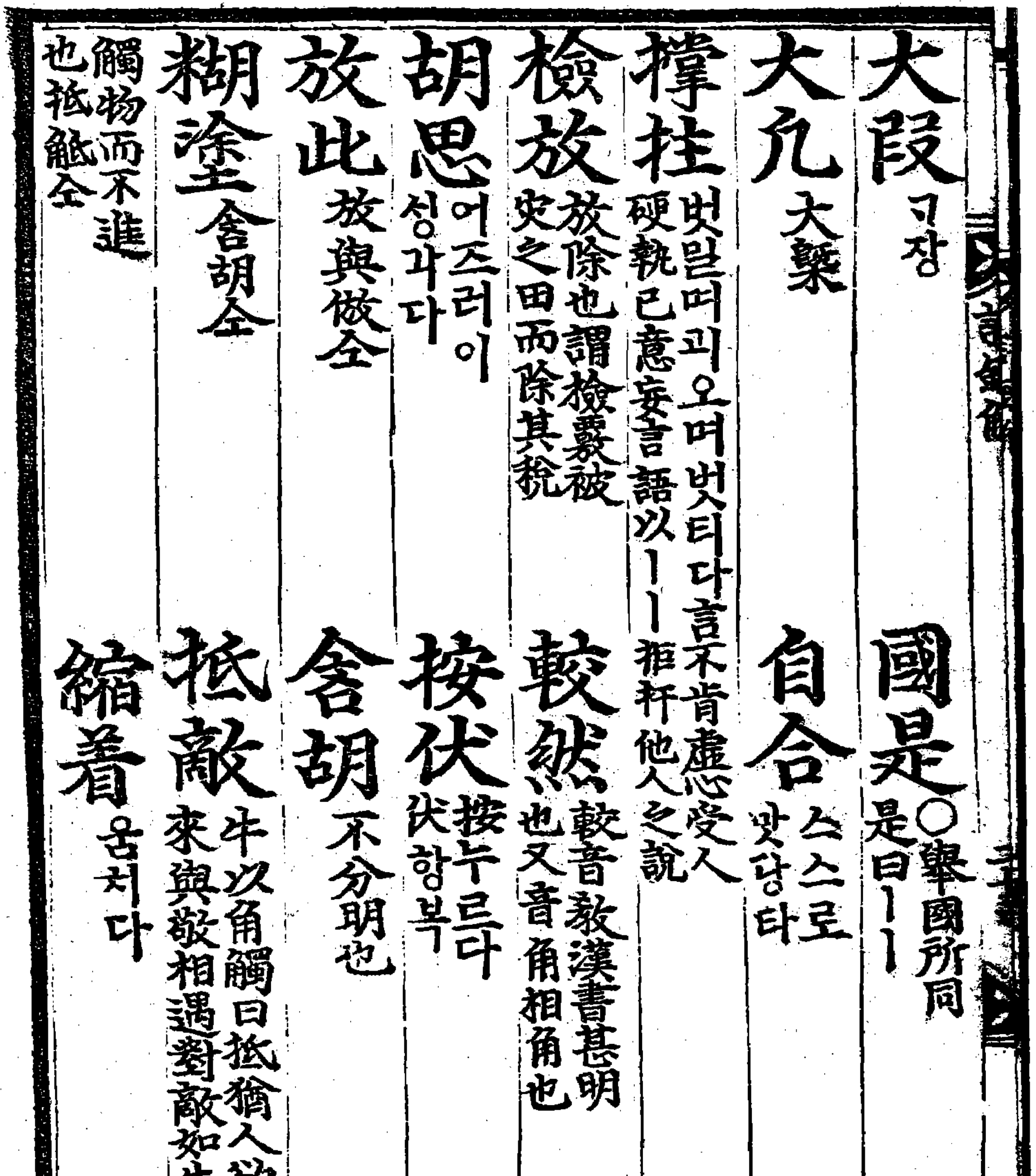
保任（밋브다○보두다）

揣摸（揣度也摸믄치다）

已過（已過之事）

委曲（委亦曲字之意고븨고븨○猶言曲盡也）

看見（非有心而見也○偶然看過也）



大段 ᄀᆞ장

大凡 大槩

撑拄 （벋딛며괴오며벗티다言不肯虛心受人硬執己意妄言語以ㅣㅣ拒扞他人之說）

檢放 （放除也謂檢覈被灾之田而除其稅）

胡思 （어즈러이싱각다）

放此 放與做仝

糊塗 含胡仝

（觸物而不進也抵觝仝）

國是 ○（擧國所同是曰ㅣㅣ）

自合 （스스로맛당타）

較然 （較音教漢書甚明也又音角相角也）

按伏 （按누ᄅᆞ다伏항복）

含胡 不分明也

抵敵 （牛以角觸曰抵猶人欲來與敵相遇對敵如牛之）

縮着 움치다

(23장 B)

笆籬（○사립딱이라ㅣㅣ竹籬也所見泛外不精切者謂之ㅣㅣ邊物）

匡綱（如頭當也物之自外四圍曰匡繩之總會處曰綱）

一意（ᄒᆞᆫ골ᄀᆞ티）

一味（猶一切ᄒᆞᆫ골ᄀᆞ티）

一剪（ᄒᆞᆫᄀᆞ애여ᄆᆞᄅᆞ다）

分定（得失之ㅣㅣ○分義見上分外註）

下度（짐쟉다與卜度同○音濁）

（今漢人文書亦然）

所有（○吏文니믜여猶言如右）

局生（판이서다局格生疎也○猶手生）

一角（猶一件○猶云一隅也信物封裹亦云一角）

卓然（두러디）

一餉（一飯之頃）

謹空（寫公文已畢末有餘紙則書ㅣㅣ言後面之皆空也）

都是（오로이）

勾斷（에우티다）

過計（너모ᄒᆞᆫ計較라）

納界（印札）

隱約（依俙之意）

放過（不照管舍置而過）

規規（莊子註蹇淺貌）

拜違（猶拜辭）

退産（中原人買賣財産必告官質文故若欲退其産亦呈于官而受其批然後退之故曰批退也）

坐却（却語辭丨丨坐在也）

切脉（猶診脉）

遮蓋（마가덥다言杜撰道理ㅗ掩遮自己之所爲也）

騰倒（紛綸升降錯揉往來之謂）

勘過（磨勘ᄒᆞ여디내다）

符到（관ᄌᆞ오다）

等候（等猶待也）

喚醒（블러씨오다）

註脚（註之小字也凡大字如人之有身小字如人之有脚）

交他（他로ᄒᆞ여곰交與敎仝）

討喫（討求也討ᄒᆞ야喫ᄒᆞ다）

星子（저울눈）

杠夯（杠드다夯負荷也○杠音江夯音向）

火煆（火애노기다）

給降（自國降惠）

音旨（論辨意趣也）

經行（以經術取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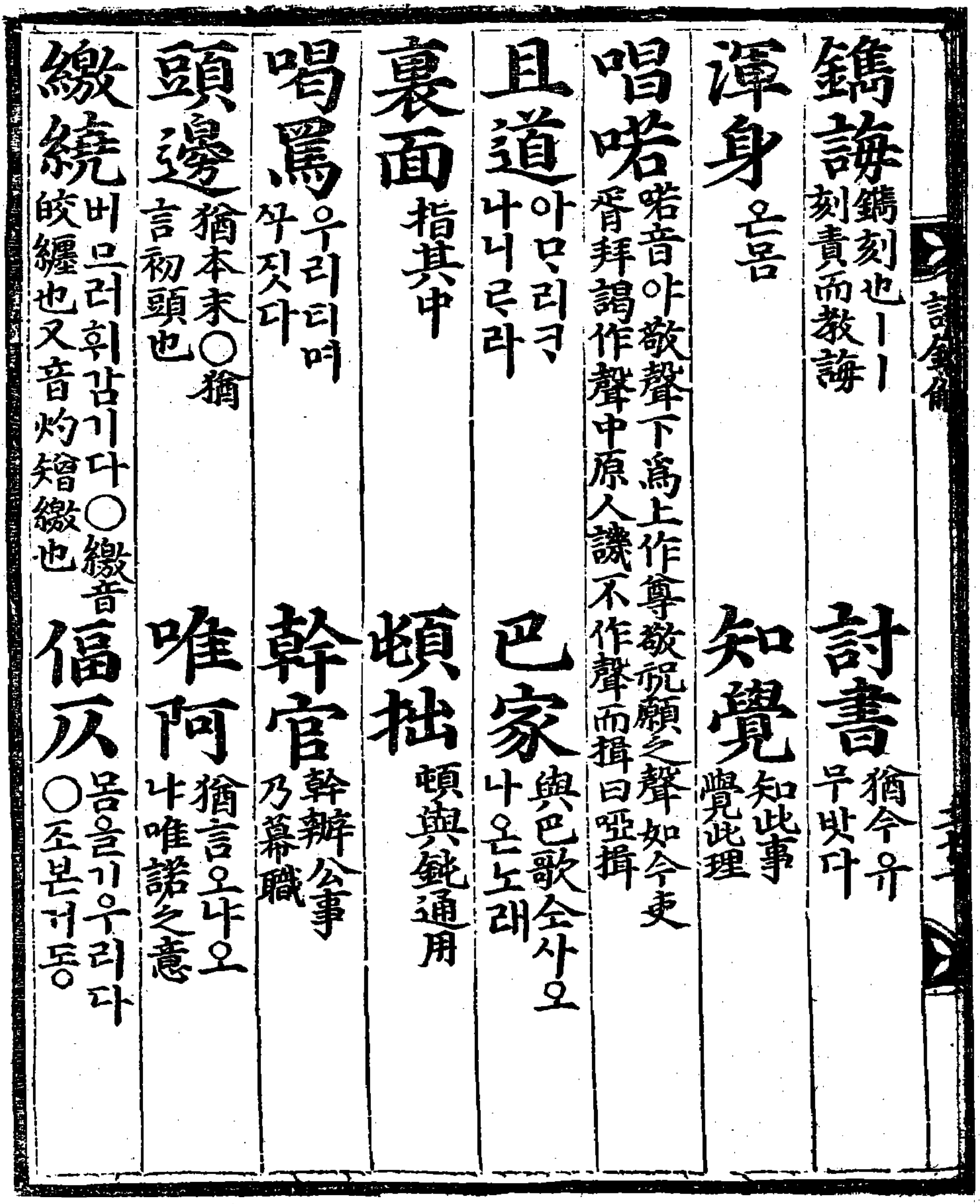
當當（言處之皆得其當）

亭亭（猶當當）

經題（如今科場疑義之題）

縱臾（本作慫慂已不欲喜慫而從傍人強爲之又如助桀爲虐之義）

節節（ᄆᆞ듸ᄆᆞ듸）



鐫誨（鐫刻也ㅣㅣ刻責而教誨）

討書（猶今유무밧다）

渾身（온몸）

知覺（知此事覺此理）

唱喏（喏音야敬聲下爲上作尊敬祝願之聲如今吏胥拜謁作聲中原人謂不作聲而揖曰啞揖）

且道（아ᄆᆞ리ᄏᆞ나니ᄅᆞ라）

巴家（與巴歌仝사오나온노래）

裏面（指其中）

頓拙（頓與鈍通用）

唱駡（우리티며ᄭᅮ짓다）

幹官（幹辦公事乃幕職）

頭邊（猶本末○猶言初頭也）

唯阿（猶言오나오나唯諾之意）

繳繞（비므러휘감기다○繳音皎纏也又音灼矰繳也）

偪仄（몸을기우리다○조븐커동）

鹵莽（無用貌）

般取（般移仝）

滲淡（音삼담半染色淺之意）

參取（向此句中語參究而識取也）

若曰（이리디뎌니ᄅᆞ다又이리곳니ᄅᆞ면）

漫漶（不分明ᄒᆞᆫ되니기다）

涵養（養心以敬如物之涵淹於水而養也）

沫血（沫頮靧仝洒面也○又噴血也）

般移（般亦移也ㅣㅣ猶셰간옴기다）

穿鑿（穿墻鑿壁出大極賦）

薄冗（迫於雜事）

淘汰（淘與陶通乃淘金也淘ᄒᆞ며汰ᄒᆞ야）

波吒（波波吒吒忍寒聲）

草本（○言초ᄒᆞ다）

閑漢（한가ᄒᆞᆫ놈）

激昂（숫구리ᄒᆞ여닙다奮發自高之意）

衮纒（周圍纒繞）

圖榜（圖精舍圖也榜如今勸資、也作精舍勸人出物以助）

有箇（如云一物）

磨勘（如今吏曹計仕滿）

對班（自唐後經筵之官對朝班而奏事故講筵謂之｜｜）

築底（漢語築底窮極之意底猶本根言窮極本根更無去處）

尋覓（猶思索有助長之病○猶言搜出）

底止（底止也底於止）

稱停（稱稱錘○맛ᄀᆞᆺ다）

包籠（作事不果斷）

豪分（豪毫同十毫爲釐十釐爲分）

築磕（以石相築言爲小人所攻○磕音合石相築聲）

齷齪（急促局陿貌）

本領（猶大體）

衘戢（戢藏也感意｜｜于中又感戢同）

界至（自其地界至其地界）

配去 流配去絶之

要束 約束同義

合做（맛당이做ᄒᆞ염즉ᄒᆞ다）

窘束（家計窮也○急迫也）

調停（調和均停元祐末呂大防首爲丨丨之說和解新舊）

體認（體驗也認卞識也失物而得其物分卞而識之曰此吾失物也此認字之義）

別出 글희디내여

書會（如云文會聚會讀書之處）

勸阻（人有所欲爲而我去勸止之也）

供申（다딤謂之供보장謂之申）

剴切（비티反懇切之意）

且須（且아직○모로미）

擧似（似向也唐詩臘月開花似北人之似也○又皆似也）

闗聽 闗디내다

圖賴（是屈己輸與人而聲言爲其所害也○未詳）

依倚（ㅣㅣ於權勢之家）

坯子（ㅣ音杯瓦未燒者）

只除（다만○다만더다）

具析（ㅣ具猶兩造具備之具析分也）

靠裏（裏에의지ᄒᆞ다○밋다）

脊梁（등ᄆᆞᄅᆞ凡人之擔負重任者必硬着ㅣㅣ乃能出力而勝重任猶등힘ᄡᅳ다）

大家（猶言大段○大槩）

時學（時文）

體大（猶大事）

眼下（猶言當時）

閱理（古有閱天下義理之語ㅣㅣ謂更歷而知）

夫人（猶言凡人○猶言其人也）

亂去（간대로ᄒᆞ여가다）

硬把（벅벅이ᄒᆞ다）

虛間（間閒仝ㅣㅣ不急促○힘힘타）

(19장 B)

（捻也捻音聶拈也○猶言攙取）

無方（無方所）

無所（猶無處）

零星（餘殘之數）

（삭락이라當作賠）

擘畫（猶經營規畫也）

叅拜（叅謁也）

査礦（쇠붑릴제즛ᅀᅵ니猶쇠똥이라）

斷遣（뎌보내다猶斷罪而遣也）

行遣（竄逐也）

作怪（恣爲怪也○猶言作用）

枉陪（陪重也謂重疊添加之陪疑倍之誤○ᄋᆡ미ᄒᆞ무리）

豈亦（豈乃豈不之意）

相須（須字多有待意）

屬饜（厭足喜에다타）

懸知（懸遠也猶遙度）

玩愒（○猶優游荏苒之意）

支撥（撥猶發也發其畜積支給）

更攢（攢與趲儹仝促之也）

時下官有過上官黜罰轉
作辱任以懲之謂之丨丨

僻不同俗又南人聡
明性悟者亦謂乖

番得（番飜仝）

捍闔（捍音파與擺仝兩手擊之猶闔闢之義也）

方便（多般計較得其好處謂之丨丨）

批判（公事結尾）

剖判（卞別）

對移（禮記王制不受師教者右移左左移右謂之丨丨宋）

打乖（打爲也丨丨爲恠異又破乖戾與物和仝也又爲乖）

曲拍（猶曲調節拍○解見三字類大拍頭）

方得（뵈야ᄒᆞ로得ᄒᆞ다）

決遣（決尾）

扭捏（音뉴녈扭手轉貌뷔트다又按也捏與揑仝年結切）

行間（衆人行列之間）

引路（길잡이）

錯了（그ᄅᆞ다）

催儹（儹音찬亦催字之意）

引却（引身却退）

貼律（貼入規律○구름의합당타）

作壞（爲所壞也）

他說（謂舍所言之言而又發一端之說）

便儇（便捷儇利也ᄂᆞᆯ나다）

偶便（偶囙歸便也）

引他（引接○他뎌又뎌ᄅᆞᆯ혀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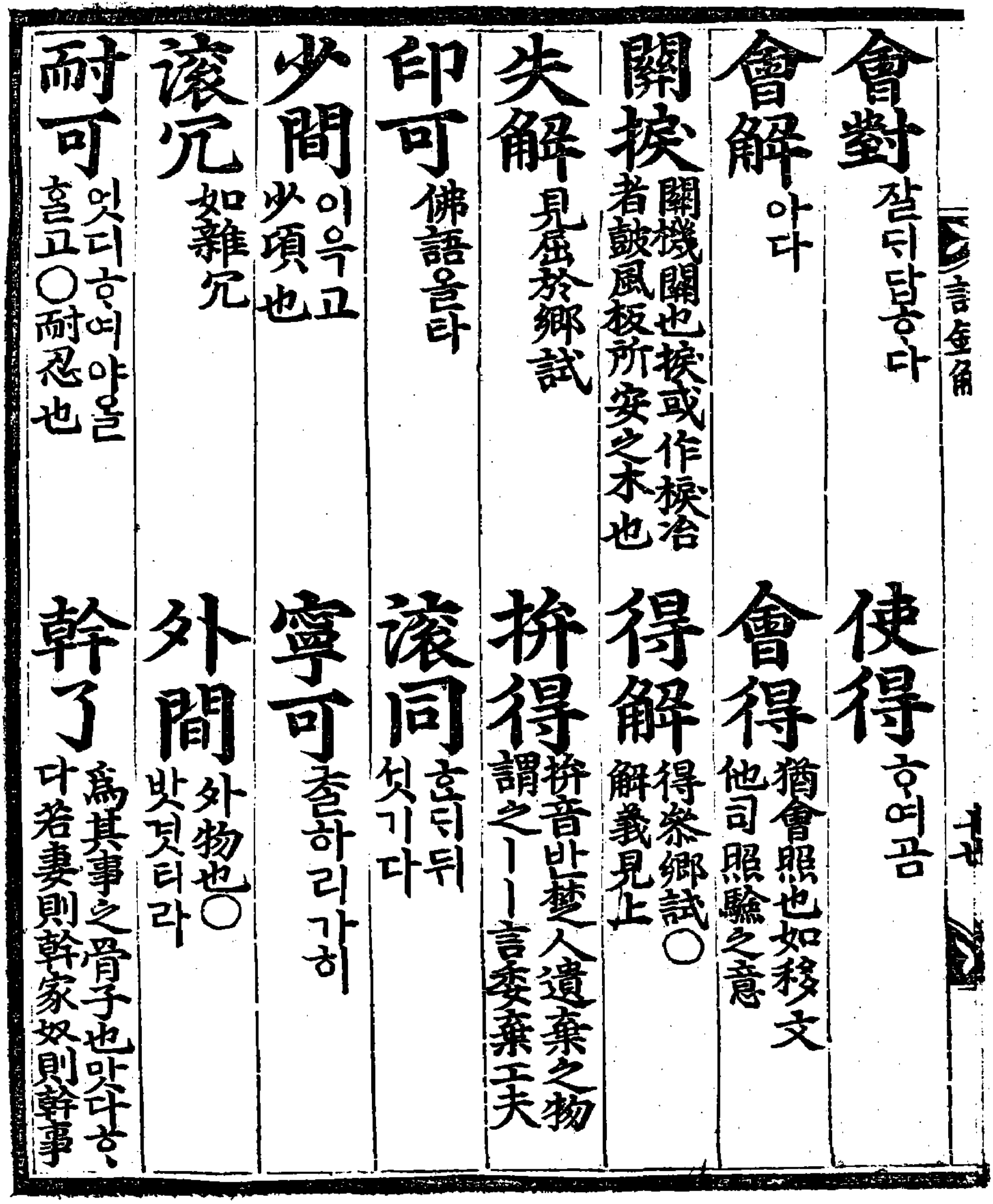
貼裏（猶向裏）

儹那（儹取也那移也）

偏却（偏僻○却語辭）

檢押（猶檢束也○見揚子法言押作柙）

遏捺（捺音列그쳐누ᄅᆞ다）



會對 잘ᄃᆡ답ᄒᆞ다
會解 아다
關捩（關機關也捩或作棙冶者鼓風板所安之木也）
失解 見屈於鄕試
印可 佛語올타
少間（이윽고少項也）
滾冗 如雜冗
耐可（엇디ᄒᆞ여야올ᄒᆞᆯ고○耐忍也）

使得 ᄒᆞ여곰
會得（猶會照也如移文他司照驗之意）
得解（得叅鄕試○解義見上）
拚得（拚音반楚人遺棄之物謂之｜｜言委棄工夫）
滾同（ᄒᆞᆫᄃᆡ뒤섯기다）
寧可 ᄎᆞᆯ하리가히
外間（外物也○밧겻타라）
幹了（爲其事之骨子也맛다ᄒᆞ다若妻則幹家奴則幹事）

譸當（譸審）

撈攘（撈苦也攘奪也言人之作事費氣力者則曰ㅣㅣ衆人喧爭亦曰ㅣㅣ盖不安穩不利順之謂）

抵當（猶擔當又對敵ᄒᆞ다）

體當（如云體驗體得堪當）

攬聒（攬搖動也聒어수선타又요란타）

話頭（詞頭之類言題目也）

挨前（挨音애推也○헤티고나아가다）

會去（아다○去語辭）

滾得（섯버므리○얼타）

招認（招如今다딤認引以爲証）

會問（잘믓다）

要得（이리콰댜又ᄒᆞ고져之意）

點抹（批點打抹以表識所得之意旨猶行間而長引筆曰抹非塗抹之抹）

騂然（面發赤色也騂音셩慚靦貌）

何曾（어듸톄又엇디일즉）

一團（ᄒᆞᆫ무적與一段全而但分爲各段合爲一段）

一格（猶一例）

廝匝（出易註）

打酒（○猶言拿酒也）

攙掇（攙音참掇音텰理持也○崔駰達旨辭攙纓整襟）

打坐（안좀안ᄯᅡ○漢語打是爲字之義）

押錄（猶今書史）

廝崖（廝相也崖或作捱疑相抗之意或作啀音애犬欲噬也相持相拒不聽順之意也）

打話（說破也○打爲也）

撈摸（音노막撈水中以手取物也摸又音모手捉也有東西ㅣㅣ之文言不得其物東西求取也如言두로미며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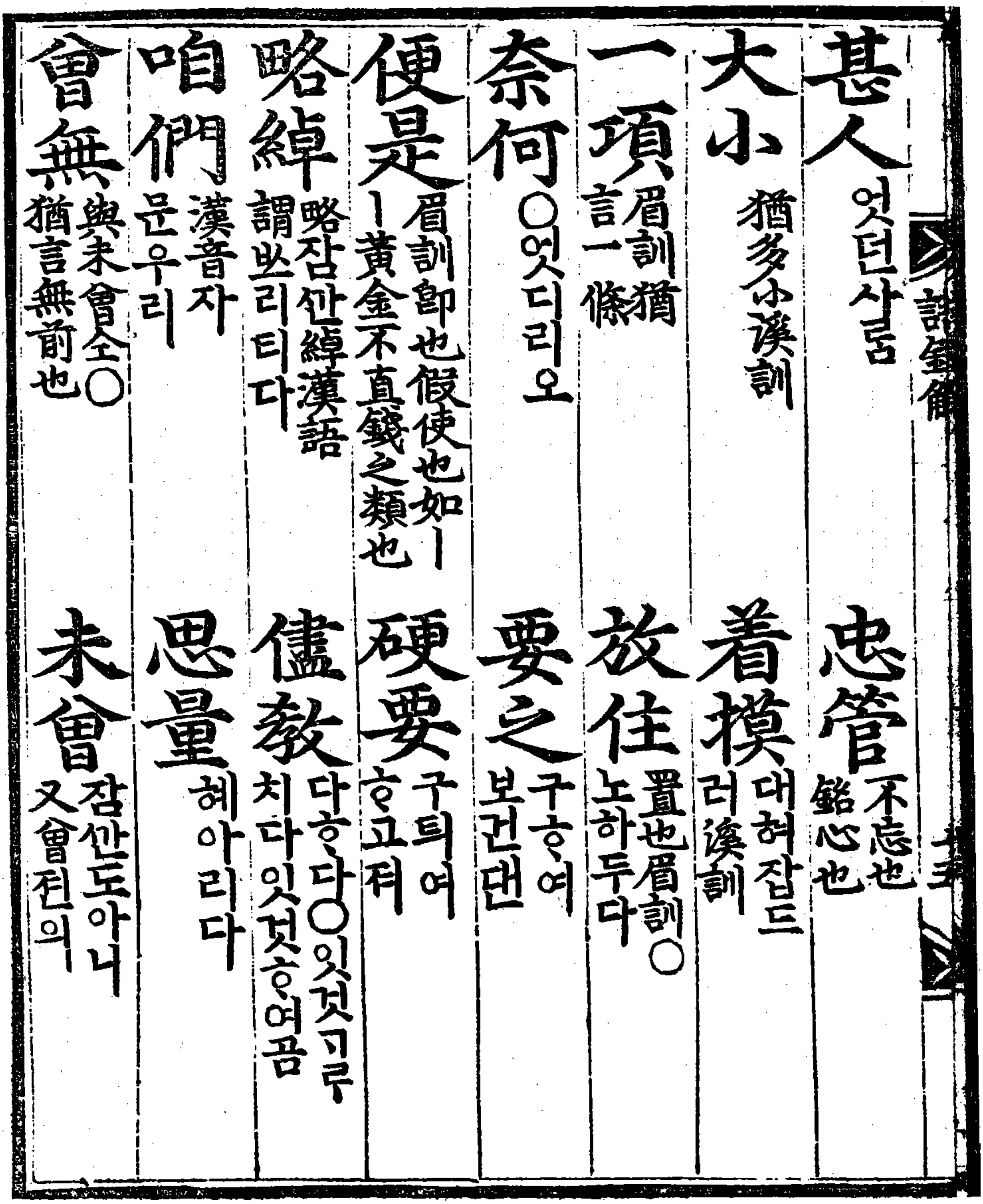
打圍（○畋獵也）

賭當（疑是商量見得之意○아모거스로나기ᄒᆞ다）

閧然（○웃두어리다猶云鬪也）

挨去（疑捱去仝○猶言挨次而去之）
喚成（喚作仝）
公門（○猶他們之意又衙門也）
頭影（端緒）
喫緊（다긴타）
容易（쉽사리）
拚號（보람ᄯᅵ히다又榜내다）
一件（ᄒᆞᆫ불猶言第一件）

喚作（喚做仝）
超詣（工夫深造）
他門（指其人而稱曰他門○與公們仝）
徒然（ᄒᆞᆫ갓그러타）
照領（ᄀᆞ옴아다○猶云照數次知也）
許多（만타）
一冬（一方仝）
等閑（쇽졀업시又힘드렁이）



甚人 엇던사ᄅᆞᆷ

大小 猶多小漢訓

一項 （眉訓猶言一條）

奈何 ○엇디리오

便是 （眉訓卽也假使也如ㅣㅣ黃金不直錢之類也）

略綽 （略잠ᄭᅡᆫ綽漢語謂ᄡᅳ리티다）

咱們 （漢音자문우리）

會無 （與未會仝○猶言無前也）

忠管 （不忘也銘心也）

着摸 （대혀잡드러漢訓）

放住 （置也眉訓○노하두다）

要之 （구ᄒᆞ여보건댄）

硬要 （구틔여ᄒᆞ고져）

儘教 （다ᄒᆞ다○잇것기루치다잇것ᄒᆞ여곰）

思量 혜아리다

未會 （잠ᄭᅡᆫ도아니又會젼의）

（15장 B）

分外（분밧기라蓋所可爲者分內而分外則所不可爲者○又十者數之終十分爲數之極而甚言其太過則曰分外）

斷置（眉訓決斷處置恐誤猶棄也）

且如（아므리커나○猶云만일）

了悟（頓悟）

實的（고디시기○진실로）

厮睚（睚보다恐亦相見之義）

直截（方正바ᄅᆞᆫ베틴ᄃᆞᆺ）

弄得（ᄒᆞᆫᄃᆞ닷ᄡᅳ미라擺弄同）

擔閣（벗틔워不行貌又一說머므다眉訓揮棄○ᄇᆞ리다）

霎時（霎然意ᄉᆞ아니ᄒᆞᆫᄉᆞ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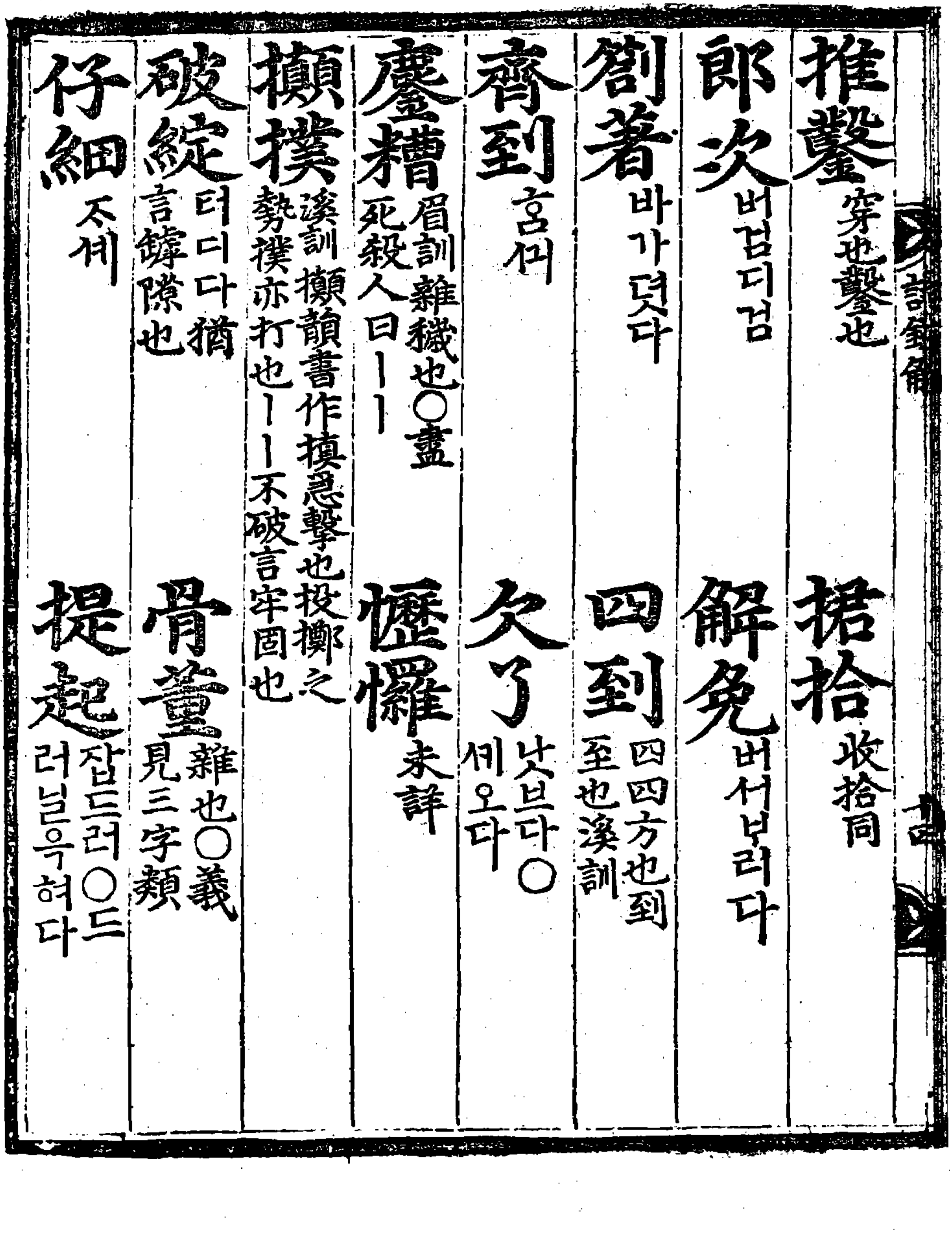
這樣（잇가지）

勾當（ᄀᆞᄋᆞᆷ아라ᄎᆞᆯ히다一說猶主管）

混論（뫼화○ᄉᆞᆺ거）

了當（다당타○ᄆᆞᄌᆞ마ᄐᆞᆼ당ᄒᆞ다）

官會（猶令楮貨漢訓）



語錄解

推鑿 穿也鑿也

郎次 버검디검

劄著 바가뎟다

齊到 홈ᄭᅴ

鏖糟（眉訓雜穢也○盡死殺人曰丨丨）

攧撲（溪訓攧韻書作搷急擊也投擲之勢撲亦打也丨丨不破言牢固也）

破綻 터디다（猶言罅隙也）

仔細 ᄌᆞ셰

捃拾 收拾同

解免 버서ᄇᆞ리다

四到（四四方也到至也溪訓）

欠了 낫브다○셰오다

㦟㦬 未詳

骨董（雜也○義見三字類）

提起 잡드러○드러닐우혀다

當下고대

安着（편안히븟티다）

下手손디타

早早（어셔又볼셔○ᄀᆞ장일ᄌᆞᆨ）

莫是아니이

劄住（○劄刺着也凡物刺着則不移動故曰劄住）

莫當아니

叅詳ᄌᆞ셰궁구

彊輔直諒友朋也

一會ᄒᆞᆫ디위

那箇（어늬것○뎌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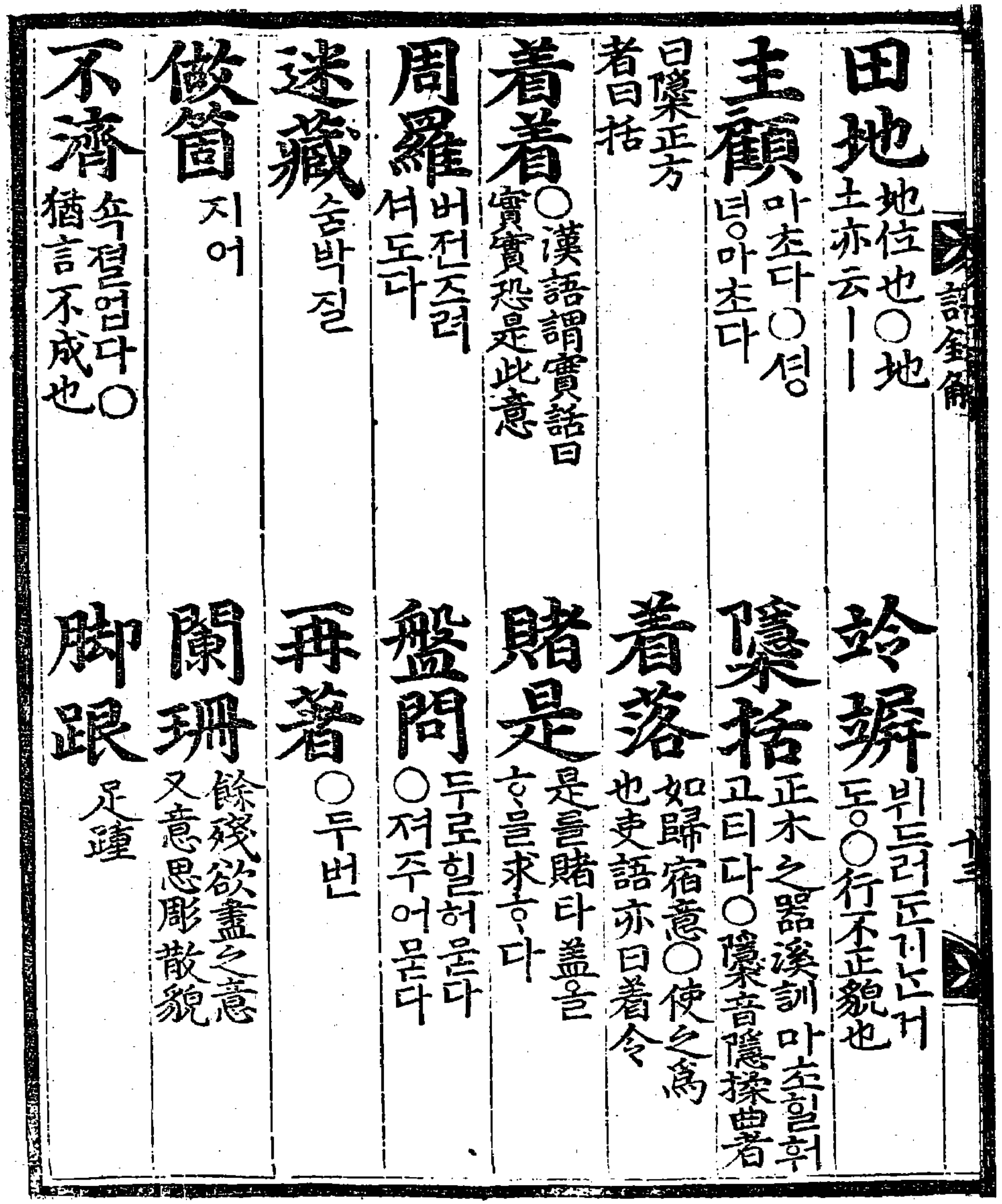
消詳（仔細○猶云須用詳細漢語消與須同義）

管着（울어다○ᄀᆞ옴알리이다）

合埋ᄠᅳᆺ다

走作（ᄃᆞ라나다○ᄃᆞᆺ다）

一衮ᄒᆞᆷ셔모도다



語錄解 十三

田地（地位也○地土亦云ㅣㅣ）

跉跰（뷔드러ᄃᆞᆫ니ᄂᆞᆫ거동○行不正貌也）

主顧（마초다○셩뎡마초다）

隱栝（正木之器溪訓마초힐휘고티다○隱栝音隱揉曲者

曰隱栝正方者曰括）

着落（如歸宿意○使之爲也吏語亦曰着令）

着着○（漢語謂實話曰實實恐是此意）

賭是（是를賭타盖올ᄒᆞ믈求ᄒᆞ다）

周羅（버전즈려셔도다）

盤問（두로힐허묻다○져주어묻다）

逯藏（숨박질）

「再着○두번」

儌箇（지어）

闌珊（餘殘欲盡之意又意思彫散貌）

不濟（쇽졀업다○猶言不成也）

脚跟（足踵）

截斷 ᄭᅳᆺ다

倀倀（失路貌無見貌○丨音長又見敬韻）

解額（○秋闈鄉試之額數也）

親事 혼事

譙責（譙亦作誚以辭相責曰丨丨）

挂搭 걸리다

肚裏 빗속

蹉過（드듸뎌디나다）

分踈（猶發明也溪訓）

腔子 軀殼

末疾（○四肢謂之末末疾謂手足不仁也）

硬寨 眉訓堅植意

打破（텨ᄒᆞ여ᄇᆞ리다溪訓）

地步（頭也又地也○猶言里數也）

鶻突（간대로不分明也）

角頭（ᄒᆞᆫ긋티라溪訓○모롱지）

一樣ᄒᆞᆫ가짓

分曉（曉字只是明字意분명히아다又ᄀᆞᆯ히여아다）

話美（○不拙約不拘束之意）

直下（바ᄅᆞᄂᆞ려오다）

較遲（較比也比之於他覺其遲也）

儱侗（猶含糊又溪訓不分明也）

一向ᄒᆞᆫᄀᆞᆯᄀᆞ티

惺惺씻씻다

鍊成（ᄀᆞ다ᄃᆞ마일오다）

多般여러가지

獃獃（어리고미옥다）

胡寫亂書也

卓午（낫日中也○猶言晌午也）

津遣（道路資送之意）

郞當（舞態也反覆不正之貌猶俗言헤젓ᄂᆞ다猶狼藉也）

鄕上（鄕向也上形而上之上謂天理也言向道理）

喚做（블러일훔짓다眉訓稱其爲此也猶指其事以目之也○지어브르다）

伎倆（좀지죄라）摸揉（어르믄지다）

廝鬪（싸혼다恐此亦只是相鬪之義）上頭（웃머리○더우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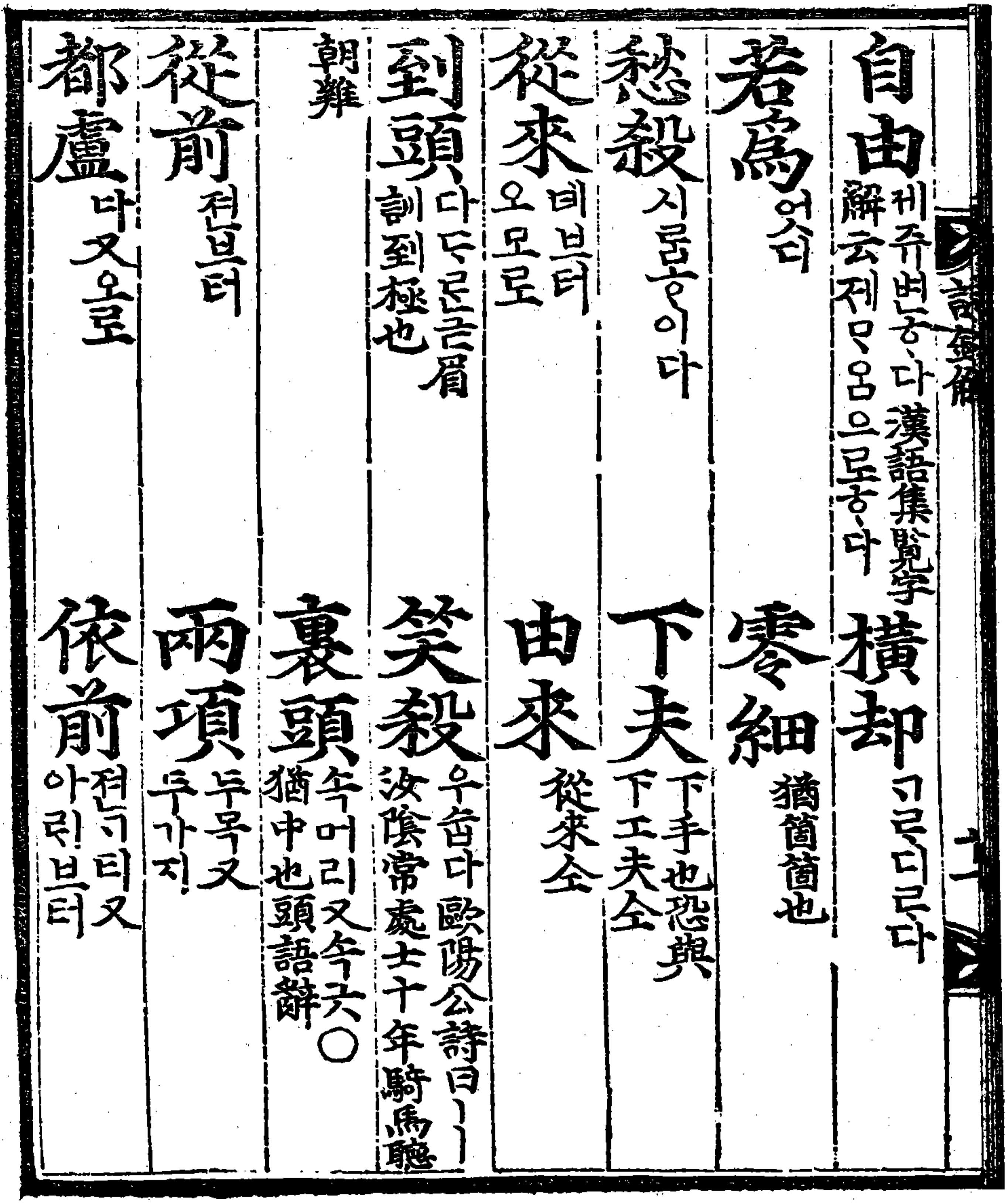
遮莫（遮音折猶言儘敎也진실로그러케ᄒᆞ다遮一作折）精彩（긧긧다）

地頭（ᄯᅡ곳○猶言本地也）撲落（떠버리디다撲一作摸）

轉頭（머리도로혀）落落（○灑落淨潔之意灑灑亦同此意又닉도타놉다）

胡亂（어즈럽다溪訓又간대로）恁麽（그러타又이러타又그리又이리）

這裏（이예○여긔）撈到（다와다가다）



語錄解 十一

自由（제쥬변ᄒᆞ다漢語集覽字解云제ᄆᆞ옴으로ᄒᆞ다）

若爲어ᄯᅵ

愁殺시름ᄒᆞ이다

從來（녜브터 오모로）

到頭（다ᄃᆞᄅᆞᆫ곧眉 訓到極也）

朝難

從前젼브터

都盧다又오로

橫却ᄀᆞᄅᆞ디ᄅᆞ다

零細 猶箇箇也

下夫（下手也恐與 下工夫仝）

由來 從來仝

笑殺（우ᅀᅮᆷ다歐陽公詩曰丨丨 汝陰常處士十年騎馬聽）

裏頭（속머리又속긋○ 猶中也頭語辭）

兩項（두목又 두가지）

依前（젼ᄀᆞ티又 아릐브터）

任敎（○與任他之意相近敎有敎使之意而爲語助下同）

直饒（비록○假使之意也）

一串（ᄒᆞᆫ곶○ᄒᆞᆫᄢᅦ옴）

免敎（그러케ᄒᆞ믈버서나다又벗기다○此敎字疑或語辭）

一㮈（ᄒᆞᆫ가지○音奈ᄒᆞᆫ번ᄇᆞᄅᆞ다）

忽地 믄득

解敎（버서ᄇᆞ리다○敎字恐或語辭）

一遭 ᄒᆞᆫ번

打空（속절업다○猶言헛거ᄉᆞ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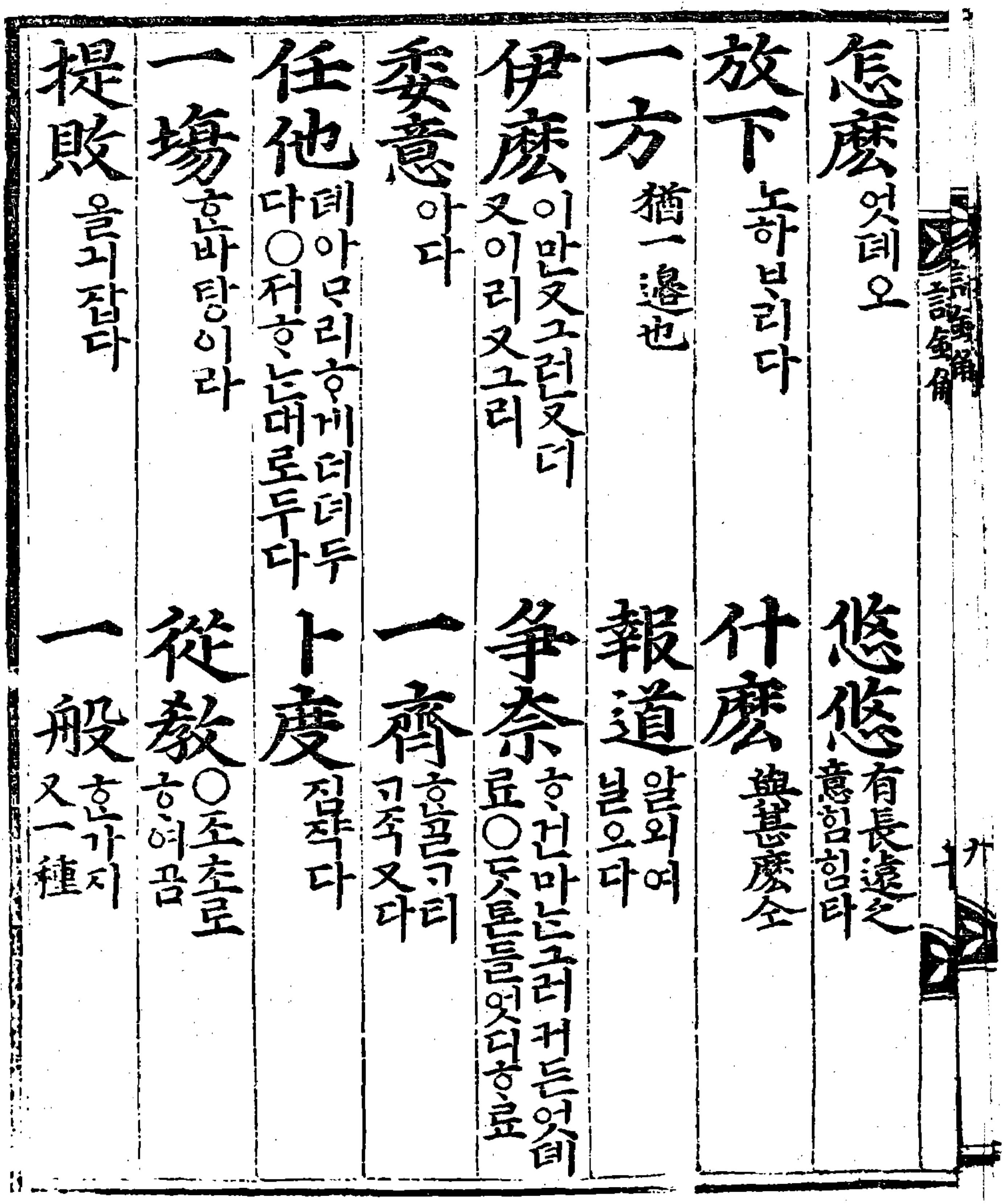
嗑着（맛ᄌᆞᆺ다○易序卦嗑者合也卽是맛ᄌᆞᆺ之義又嗑當作磕有撞合之義磕頭謂之머리좃다）

除去（말고○더러ᄇᆞ리다）

自是 제이리

一遍 ᄒᆞᆫ번

除外 除ᄒᆞᆫ外예



語錄解 十

怎麽（엇뎨오）

放下（노하ᄇᆞ리다）

一方（猶一邊也）

伊麽（이만又그런又더又이리又그리）

委意（아다）

任他（뎌아ᄆᆞ리ᄒᆞ게뎌뎌두다○뎌ᄒᆞᄂᆞᆫ대로두다）

一場（ᄒᆞᆫ바탕이라）

提敗（올긔잡다）

悠悠（有長遠之意힘힘타）

什麽（與甚麽仝）

報道（알외여닐오다）

爭奈（ᄒᆞ건마ᄂᆞᆫ그러커든엇뎨료○ᄃᆞᆺ톤들엇디ᄒᆞ료）

一齊（ᄒᆞᆫ곰긔티ᄀᆞ족又다）

卜度（짐쟉다）

從敎（○조초료ᄒᆞ여곰）

一般（ᄒᆞᆫ가지又一種）

(10장 B)

（之意）

怎生（漢語怎何也生語辭어ᄂᆡ엇뎨眉訓何也）

了然（ᄉᆞᄆᆞᆺ○分明之意也）

撰來（ᄆᆡᆼ그라오다）

脫空（헛것○猶言섭섭）

爲甚（甚音ᄉᆞᆷ므스거ᄉᆞᆯ위ᄒᆞ야）

平人（므던ᄒᆞᆫ사ᄅᆞᆷ이라）

捱去（미리가다○견듸여가다）

一重（ᄒᆞᆫ골피라）

甚生（怎生同）

接湊（뫼호다）

了了（與了然仝○完了）

點檢（ᄉᆞᆯ피다又샹고ᄒᆞ야ᄎᆞᆯ호다）

累墜（걸리며드리디다）

甚麽（므ᄉᆞᆷ眉訓何等）

提撥（잡드러溪訓眉訓撥亦提也）

指背（등미다○指猶撫摩之意）

恁地（이리猶言如此○여긔又거긔）

捏合（지버뫼호다○捏音涅捻取也）

家事（呂伯恭打破ㅣㅣ俗指器皿爲갸ᄉ此是漢語溪訓）

過着（已爲也着字有過意又與消全猶言ᄒᆞ야디내다）

頭當（다힐딘疑다ᄃᆞᄅᆞᆫ딘溪訓）

特地（各別也又ᄀᆞ장漢語부러又득별이）

差排（猶安排也）

領略（아다猶言ᄆᆞ옴애담다溪訓○猶言領了大槩也）

都來（本來○猶言皆也）

收殺（거두어ᄆᆞᆺ다畢終也）

廝殺（醫書云廝炒漢語廝訓作相此只是相殺之意）

不同（與自別仝○不如也）

巴臭（다힐딘잡을딘語類沒巴沒臭未詳○漢語禽獸之尾謂之尾巴此謂巴卽尾也臭卽頭也似是無頭無尾之義又一說大蛇謂之巴曾見漢人遇大蛇用小箠一打其臭便死所謂巴臭恐是要切處）

安排（사ᄅᆞᆷ이힘드려구티여버립ᄌᆞ다）

除是（일란말고除是人間別有天是ᄅᆞᆯ除ᄒᆞ고人間애各別히天이잇도다又이리아다○猶言須是也又俗稱有除是非之語）

除非（與除是同又그러티아니커든말라又只是之義）

樣子（본ᄒᆞ다）

索性（ᄀ장漢訓○猶言白直又猶言直截又ᄀᆡ므ᄋᆞᆷ으로）

杜撰（杜前人說話撰出新語○石中立在中書盛度撰張知白神道碑石問曰是誰撰度卒對曰度撰滿堂大笑蓋度與杜音同故也）

公案（귀글월溪訓）

下梢（내죵溪訓）

末梢（與下梢仝）

骨子（猶言웃듬이라指當物也如言目利비）

頓放（두다）

決定（一定也）

照管 ᄉᆞᆯ피다

自別（自然히又各別ᄒᆞ다此自字非刊也如自當自然之意）

上面（웃녁外面裏面前面後面皆以此義推之）

抖擻（猶言振之也○ᄠᅥᆯ티다精神ᄀᆞ다ᄃᆞᆷ다）

打疊（티다ᄃᆡᄇᆞ리다疊字與大典疊鍾之義恐相似也溪訓眉訓克已也○猶言疊疊）

寠然 잠ᄡᅡᆫ

下落（다ᄒᆡᆯᄃᆡ猶歸宿也）

（學不欺章連小人閒居章看也）

提撕（잡드다眉訓提而振之也）

鋪攤（펴다○攤音灘又音爛手布也按也開也）

零碎（ᄒᆞᆨᄇᆞᄉᆞᄉᆞᄒᆞ다）

多少 언메나

賺連（○賺音湛以輕物買重物曰賺心經所謂賺謂以大）

安頓 노타

物事（事語辭如今數物必曰一事二事）

照顧 ᄉᆞᆯ피다

一間 ᄒᆞᆫ동안

的當（合當之意猶言번득다）

箇中 이듕에

放着 두다

逐旋（ᄠᆞᆯ와又ᄀᆞᆺ곰又조초）

活法（言不拘一隅猶活水活畫不拘一隅也）

向來 아릐

合當 맛당

關子（丨丨公文書也子語辭如扇子亭子之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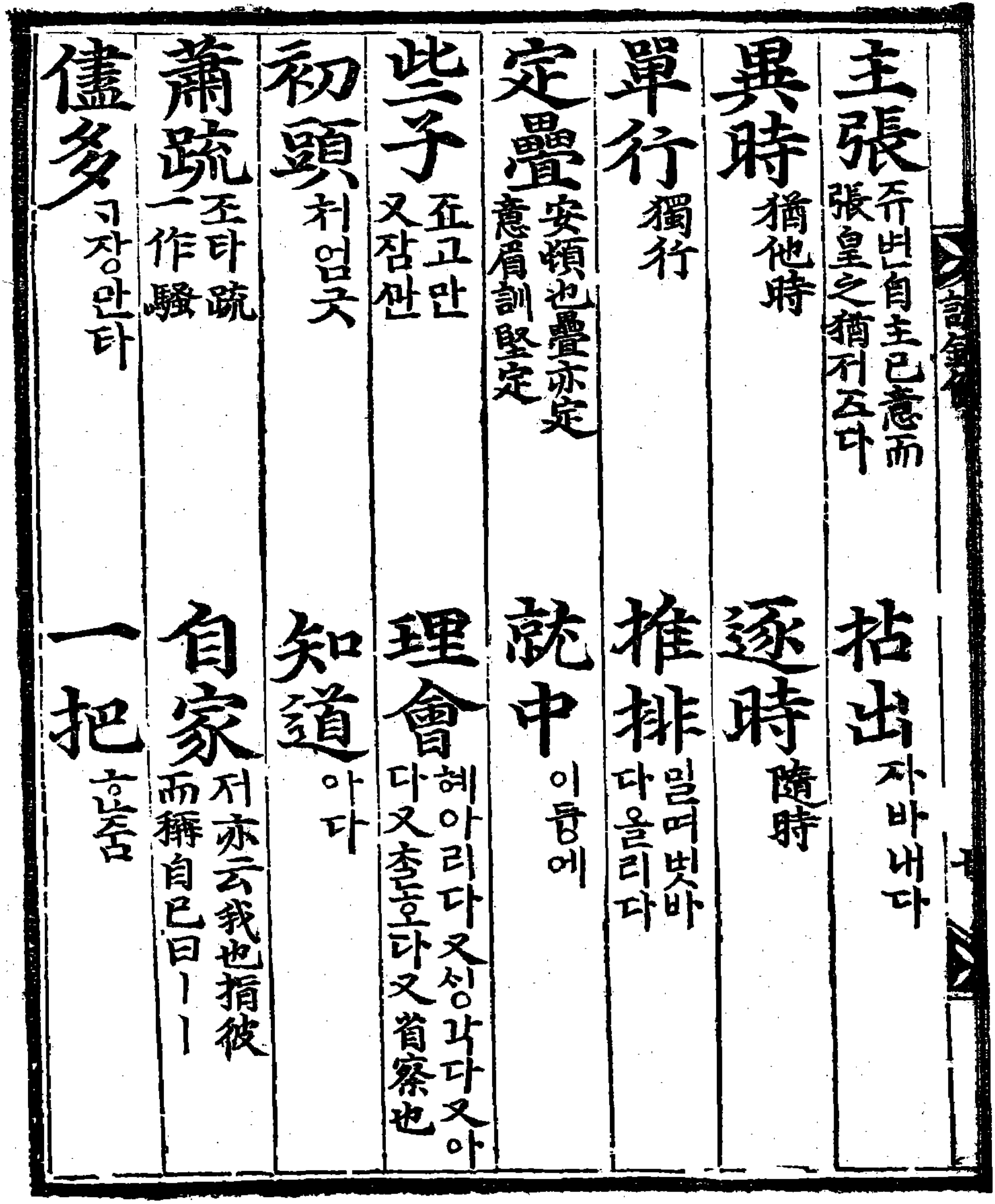
衰颯 쇼됴ᄒᆞᆫ거동

撞着（다디ᄅᆞ다又맛ᄉᆞᄃᆞᆫ다眉訓衝着也）

一段（ᄒᆞᆫ편猶言一片也）

硬來 구틔여와

揭出 드러내다



主張（쥬변自主己意而張皇之猶지조다）

異時（猶他時）

單行（獨行）

定疊（安頓也疊亦定意眉訓堅定）

此子（죠고만又잠싼）

初頭（처엄긋）

蕭疏（조타疏一作騷）

儘多（ᄀᆞ장만타）

拈出（자바내다）

逐時（隨時）

推排（밀며밋바다올리다）

就中（이듕에）

理會（혜아리다又ᄉᆡᆼ각다又아다又촐호다又省察也）

知道（아다）

自家（저亦云我也指彼而稱自己曰ㅣㅣ）

一把（ᄒᆞᆫ줌）

二字類

合下（猶言當初본듸又本來退溪李滉訓也誠微九云溪 倣此 眉訓初也）

查滓 즈ᅴ

捧合（뫼호다又븓다捧當作湊○猶言輻輳也）

這箇 이又이거시

伶俐（ᄉᆞᆷ갑다眉訓分明也）

不成（指下文而言不得爲如此也○謂丨丨得也）

那裏（뎌긔又어ᄂᆡ眉訓一彼處一何處）

跌撲（跌박ᄎᆞ다撲두드리다）

一截（眉訓截其平而爲一截ᄒᆞ동）

單提（ᄠᆞ로드다眉訓獨擧也）

十分 ᄀᆞ장

只管（다함又ᄉᆞᆷᄋᆡ여○다만ᄀᆞᄋᆞᆷ아다）

太極 太ᄀᆞ장

楞（棱同○四方木）

秤（與稱同權衡揔名）

將（가져眉訓持也）

泥（音니걸리다○杜詩致遠恐泥之泥也）

莽（勇敢也）

焫（與爇音義同）

賺（音담欺也又直段切重買也又市物失實也）

以（由也）

格（○格物之格窮底意多物格之格至底意多）

體（骨子也猶木之有榦易貞固足以榦事）

略잠간

下（音하下字言아ᄅᆞ字ᄅᆞᆯ노타下手손디타下工夫亦同）

實（音至置也俗音디）

夫ㅗ語辭

屄音至致也

覷（音쳐여어보다）

呷（音甲ᄒᆞ여吕吸ㅣ）

叵（音파不可之意）

刱（與創仝造也初也）

穾（韻會音要室東南隅也本作窔或作穾隱暗處也又深也○室東北隅爲宧養也東北陽氣始起育養萬物也西北隅爲屋漏日光自戶穿漏也西南隅爲奧隱奧人事故名爲奧主人之所安息也）

窒막디ᄅᆞ다

饜音厭足也

秖（音之適也오직）

賛（明也）

矜（丨嚴丨莊言過嚴莊也○自負貌又自持貌）

強（有剩餘之意）

憖（音은心不欲爲而強作之謂）

諉（託辭）

揨（音뎡○丨柱之意制舟也又音掌）

少（無也○잠깐）

礙（거티다○害也）

寔（音식진실로）

怎（音즘어니又엇디與甚仝）

辜（與孤通져ᄇᆞ리다）

離（兩人相對也記云離坐離立）

輸（爲也致也博者負而償物亦云）

肚（音杜腹也）

叅（如丨三之丨爲三才之類）

剩（餘也宂長也通作賸）

妙（朱門人問丨字答曰丨字有運用之意以運用字有病故說丨字）

抹（ᄒᆞ여ᄇᆞ리다○에우티다）

担（音擔排也○當也）

齾（音遏獸食之餘曰丨）

押（如今押領人以去○着署亦曰花丨）

越（더욱愈也）

遂（ᄭᅮ미다又일오다）

摭（音拓拾取也）

化（無所勉強而自中節也）

揣（音剬度也○撫摩也）

走（牛馬走如云僕自謙之辭）

鑿（ᄭᅳᆯ也情之丨去其性猶ᄭᅳᆯ之丨物也）

撏（徂含切取也지버ᄠᅳᆺ다○줏다）

趂（미처）

遹（音律導也又音郁循也○音유回避也）

提 잡다

夯 音向擔也

（去聲ᄎᆞ다）

挨（音挨推也○按次謂之ㅣ次）

儘（任也○잇것又ᄀᆞ장）

錯 그ᄅᆞᆺ又외다

交 ㅣ付也

霎（音삽少頃也小雨也）

硬 굿다

踢（音唐平聲跌ㅣ也頓伏貌行失正貌又飛動貌又搶也○又見）

輥（音混車轂齊等貌）

欸 音挨癡也

捏（쥐다又모도다又지버뫼호다音녈）

直（바ᄅᆞ又ᄒᆞᆫ갓○物價ᄊᆞ다）

閣 어그럽다

趲 ᄇᆡ로다眉訓

討（ᄎᆞᆺ다求也○得也論也）

消（爲也又모로매又ᄒᆞᆼ여다내다眉訓須也）

摺（音랍뎌피다又ᄭᅥᆨ다眉訓뎝단말이라）

研（窮也궁구○磨也）

劈（ᄭᅢ티다）

椎（몽동이○又椎擊）

俵（分給也）

初（잠ᄭᅡᆫ）

會（아다○ᄒᆞᆫᄃᆡ위두다위謂之一丨二丨）

漫（힘힘타）

串（곳又ᄢᅦ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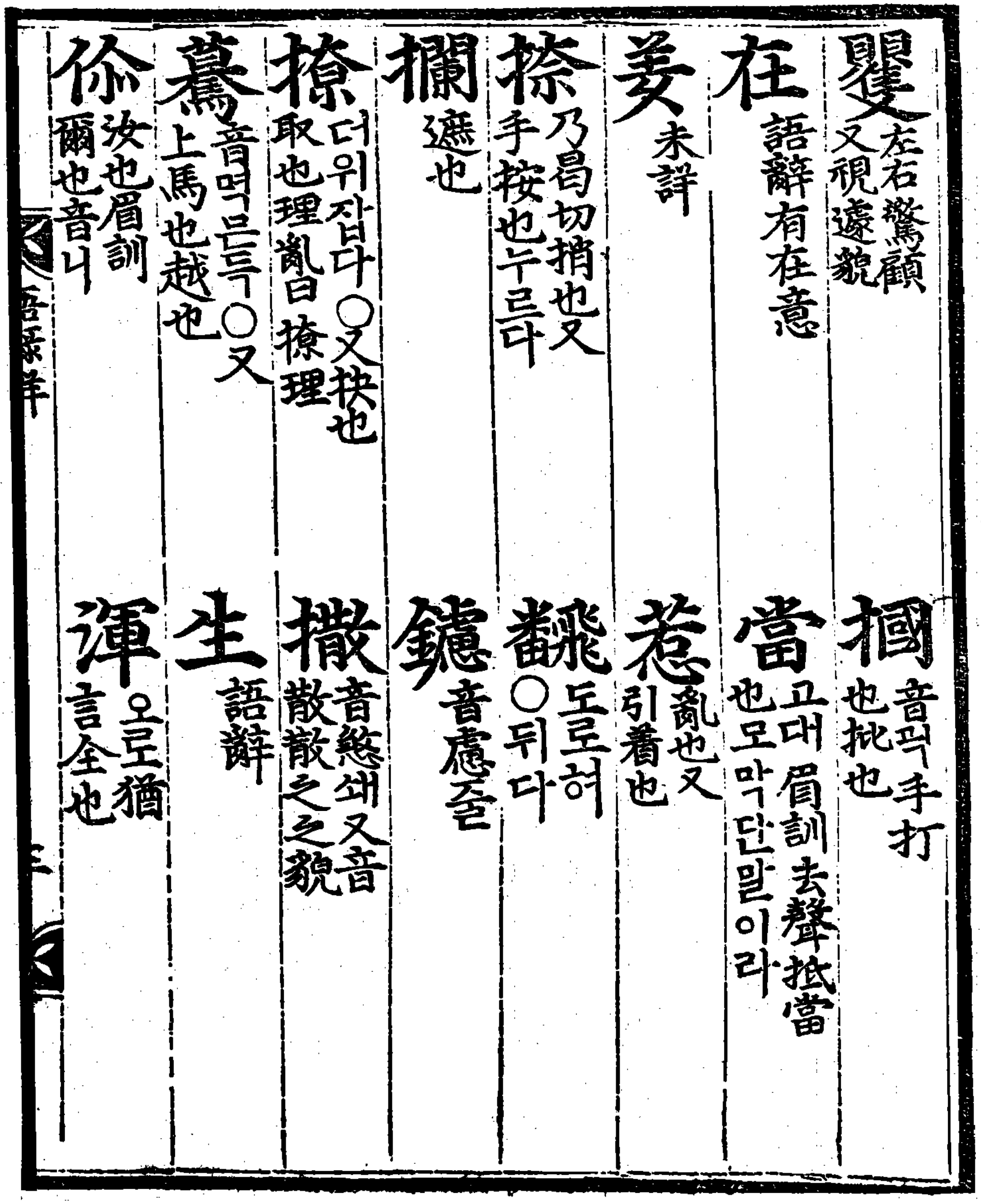
漢（놈有病丨醉丨罔兩丨等語）

剔（ᄢᅢ여○猶剪也言희뎌）

儞（音니汝也你仝）

等（丨待眉訓也○平也稱子亦云丨子）

跟（音根足踵也○又追隨也）



矍（左右驚顧又視遽貌）

在（語辭有在意）

羑（未詳）

捺（乃昌切捎也又手按也누르다）

攔（遮也）

撩（더위잡다○又抉也取也理亂曰撩理）

驀（音멱므득○又上馬也越也）

伱（汝也眉訓爾也音니）

摑（音괵手打也批也）

當（고대眉訓去聲抵當也모막단말이라）

惹（亂也又引着也）

飜（도로혀○뒤다）

鑢（音慮줄）

撒（音総쇄又音散散之之貌）

生（語辭）

渾（오로猶言全也）

趕 ᄯᅩᆺ다

頭 ᄀᆞᆺ○語辭也語端皆云頭

旱 ᄲᆞᆯ리疑早字之誤○陸地也亦謂之旱地旱路

頓 오로○온뎐이千零不如一頓又ᄒᆞᆫ번

差 채기與較仝又差出之意

合 맛당又본디

似 向也眉訓亦於也古詩去國一身輕似葉

訣 絶也又별也又辭也

鎭 댱샹

作 爲也亦語辭

管 主之也ᄀᆞ옴아다眉訓摠攝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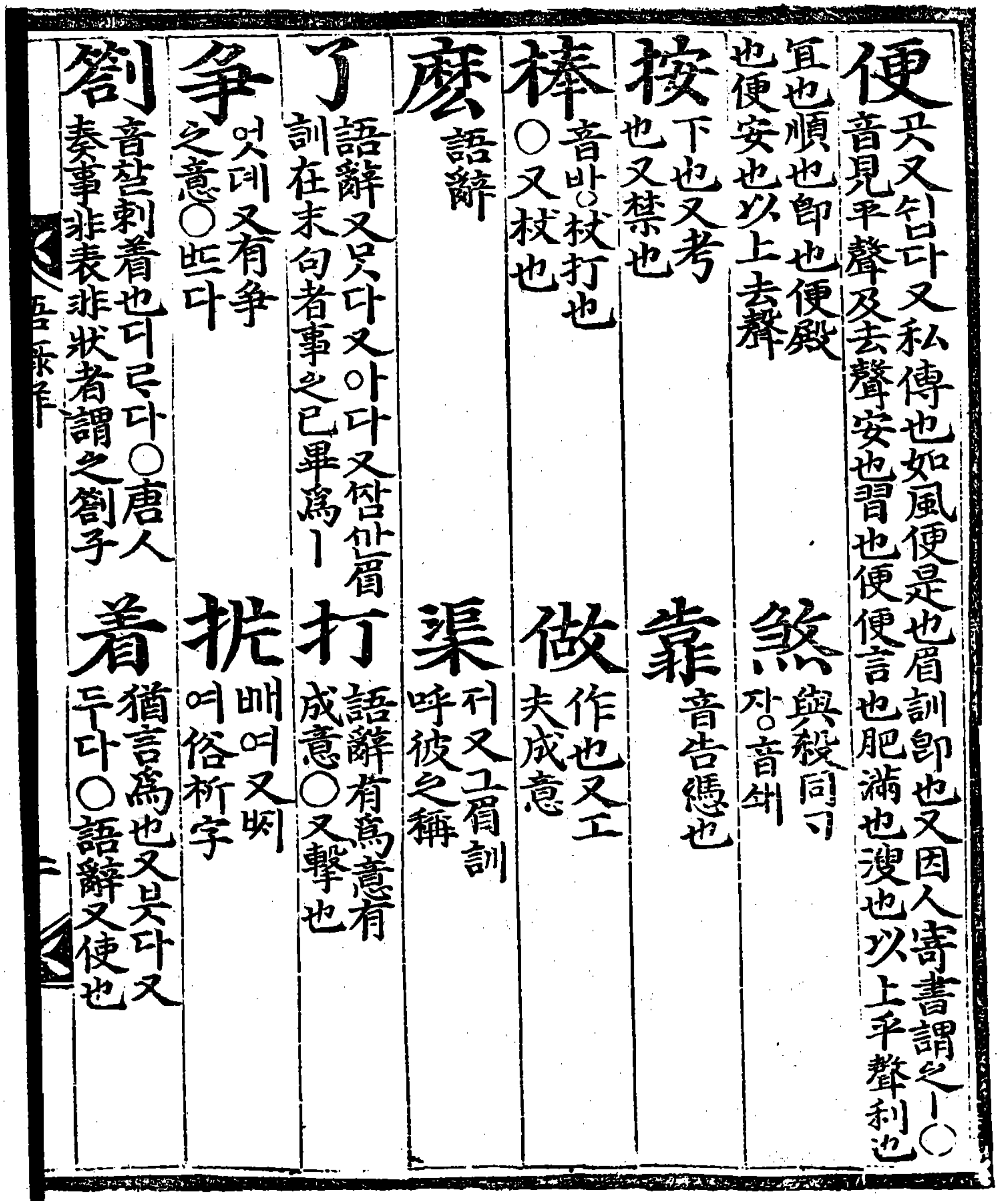
來 語辭有來意

遞 公傳也附遞傳書謂之ㅣ○納也

零 ᄌᆞ친零細也箇箇也○ᄠᅳᆫ것

般 오로疑誤옴기다又가지가지○一ㅣ二ㅣ之ㅣ也

悢 音兩悲也又脊脊貌又音朗不得意



便（곳又쉽다又私傳也如風便是也眉訓卽也又因人寄書謂之ㅣ〇音見平聲及去聲安也習也便便言也肥滿也溲也以上平聲利也宜也順也卽也便殿也便安也以上去聲）

按（下也又考也又禁也）

棒（音방杖打也〇又杖也）

麽（語辭）

了（語辭又ᄆᆞᆺ다又아다又ᄭᅡᆷᄭᅡᆫ眉訓在末句者事之已畢爲ㅣ）

爭（엇뎨又有爭之意〇ᄠᅳ다）

劄（音잘刺着也디ᄅᆞ다〇唐人奏事非表非狀者謂之劄子）

煞（與殺同가장音쇄）

靠（音告憑也）

做（作也又工夫成意）

渠（제又그眉訓呼彼之稱）

打（語辭有爲意有成意〇又擊也）

扥（빼여又ᄡᅧ여俗析字）

着（猶言爲也又븟다又두다〇語辭又使也）

語錄解

二

要（求也又브티又ᄒᆞ고져○音見平聲及去聲要約也勒也固要也察也以上平聲久要也樞要也要會也欲也以上去聲）

去（語辭有去意眉訓合此事爲彼事之意）

那（뎌又엇디眉訓彼也○又어디）

教（ᄒᆞ여곰）

恰（마치眉訓適當之辭）

貼（브티다俗所謂褙丨亦此意○貼將來흥졍갑슬거스려 오다）

慢（철타）

得（語辭又올타有得意）

如（다혀猶今鄕人有所歷擧則必曰다혀也○만일又가다）

較（마초아直也不等也相角也對兩而計其長短又ᄀᆞ장）

解（아다○解粮解銀押解皆輸到卸下之意也）

還（語辭又도로혀○당시롱又갑다又다함）

和（猶言조차以別物合此物曰丨아모것조차）

是（此也卽也近語辭○然也）

撥（音찰다와다가다○ᄲᅥᆨ다）

語錄解

一字類

箇（語辭有一丨二丨之意丨也又與地同又語辭）

也（語辭又伍眉訓亦也猶也）

閑（노다又쇽졀업다又힘힘타）

自（제凡言丨者多有제意○我也）

沒（眉訓無也）

底（當處也或作的又그런디시眉巖柳希春訓也後凡云眉訓倣此○根）

才（與纔同又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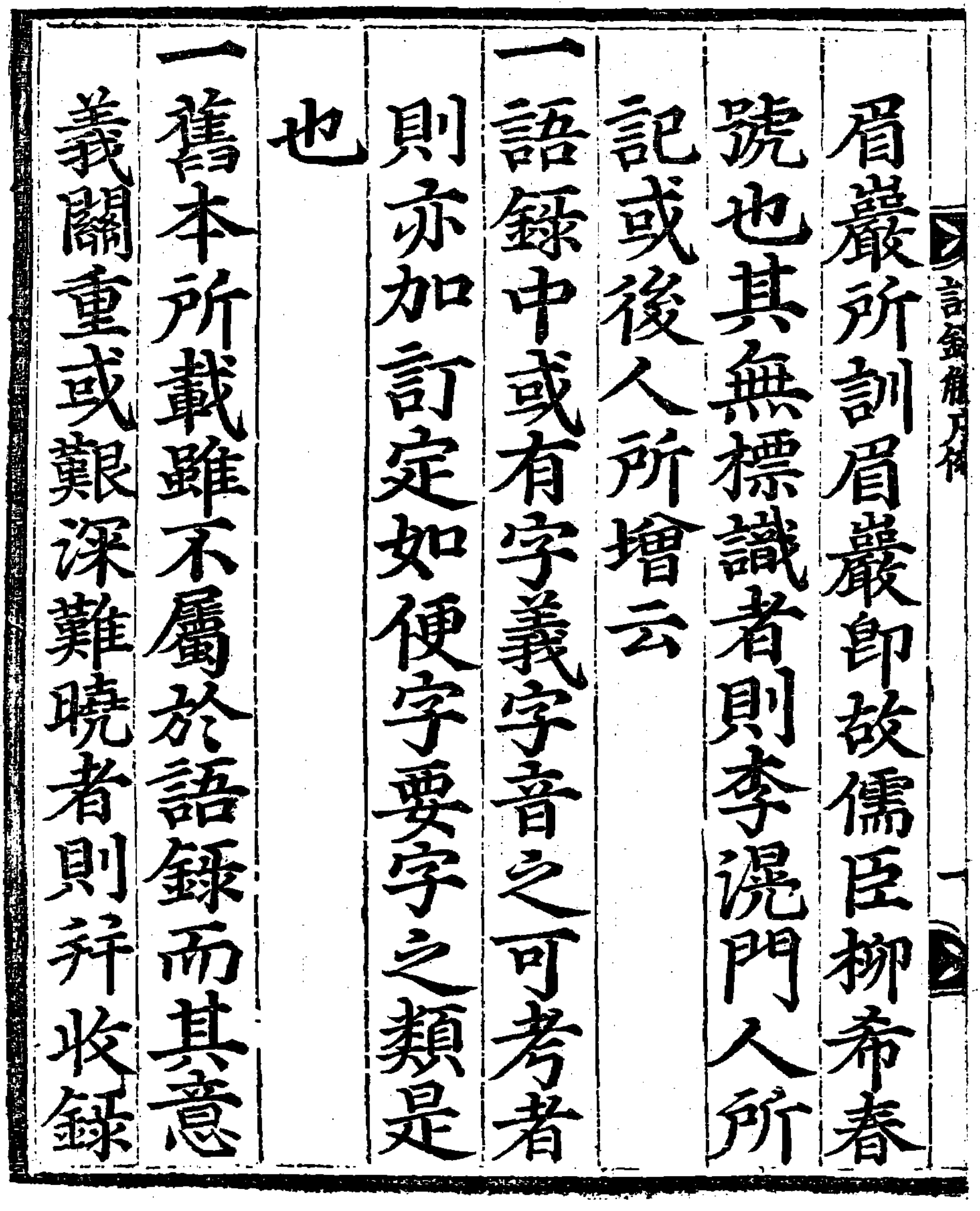
他（뎌又ᄂᆞᄆᆡ眉訓彼也又某人也）

却（語辭又도로혀又伍眉訓還也其在末句者語辭）

這（이眉訓此也）

須（모로매又強也又有待意又必也）

而注解之如形而上形而下及色
裁目整之類是也



眉巖所訓眉巖卽故儒臣柳希春號也其無標識者則李滉門人所記或後人所增云

一語錄中或有字義字音之可考者則亦加訂定如便字要字之類是也

一舊本所載雖不屬於語錄而其意義關重或艱深難曉者則幷收錄

語錄解凡例

一語錄字數多寡不同故舊本從其字數分編之自一字二字至五六字而止以便考閱今從之

一舊釋或有未備且未分曉處則未免僭附新注而加圈以別之

一注下所謂溪訓者卽退溪所訓退溪卽先正臣李滉號也眉訓者卽

語錄解 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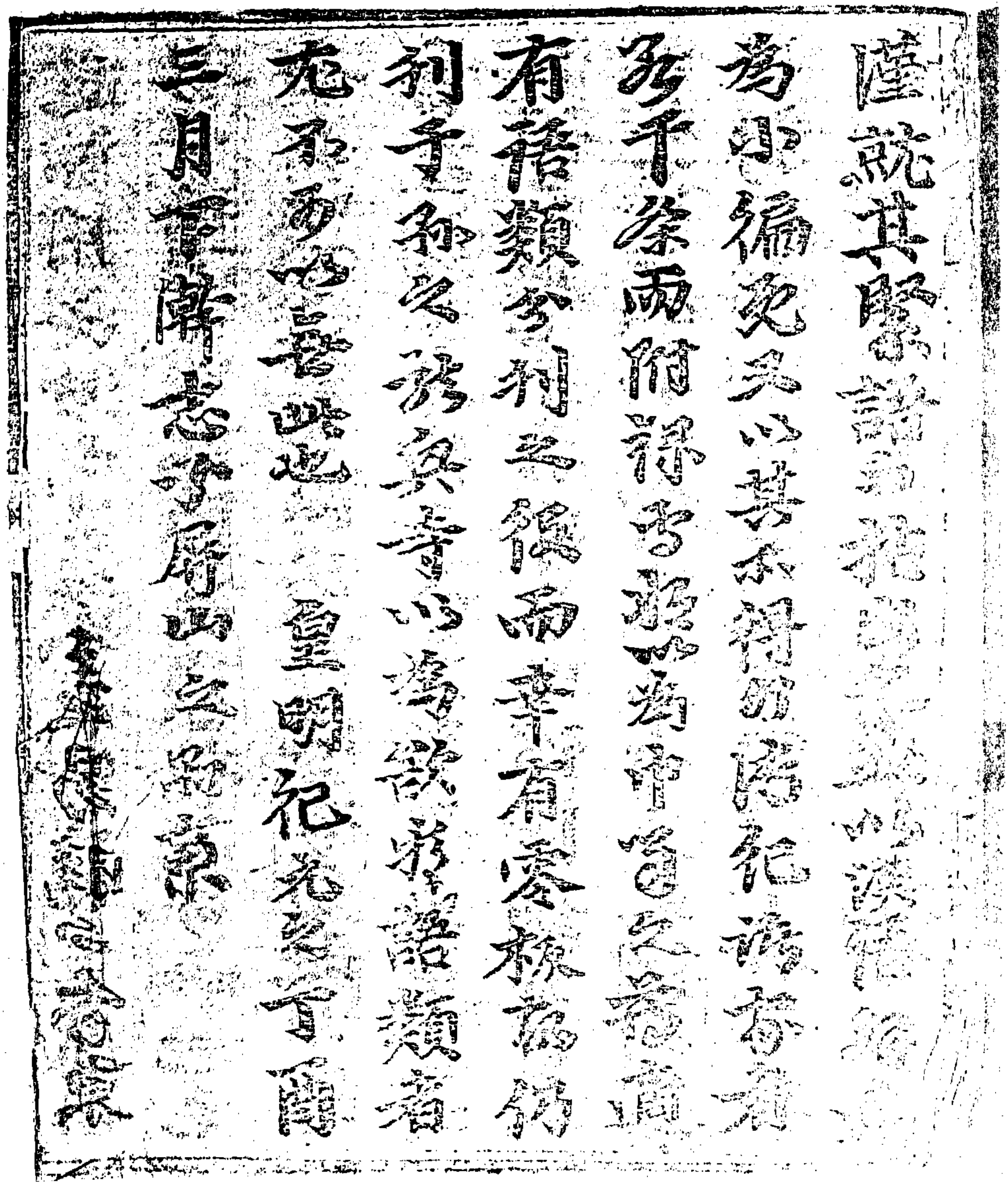
奎複
3912
16

奎章閣圖書
部別
分類記號
圖書番號 1539
一部冊數 1

(표지)

(※ 참고 :『語錄解』原刊本 跋文부분에 오손이 있어서 영인으로는 판독하기 힘드므로 다음에 活印한다。)

右語錄解者本出退溪李先生門　先生嘗曰　古無語錄　至程朱始有之　是蓋當時訓誨門人之俗語而至於書尺亦(28장B)遑々用此　則本欲人之易曉　而我東顧以語音之不同反成難曉　可慨也已　幸而今有此解　復使難曉者易曉　而郢書燕說之患終可以免焉　則先生之功可謂大矣　第其中有所謂溪訓之目　以別衆說　而又參以栁眉巖希春之訓　則知此解不盡出於先生　而又諸本各出異同相半苟非具眼者殆難卞識矣　今(29장A)謹就其緊語而拈出之　竝以漢語解聯爲小編　既又以其所得於傳紀諸家者若干條而附錄焉　將以爲巾笥之藏　適有語類分刊之役　而幸有零板　故仍刊于縣之龍興寺　以爲欲看語類者尤不可以無此也　皇明紀元之丁酉三月下澣　志于屛山之縣齋(29장B)



隨就其隙請鄭補[illegible]以漢語[illegible]

爲此編說矣以其不得所語記爲香者

多千條而附錄于[illegible]爲[illegible]管之[illegible][illegible]

有語類今刊之役而幸有參校[illegible]鈔

刊手知之務異奇以續欲將語類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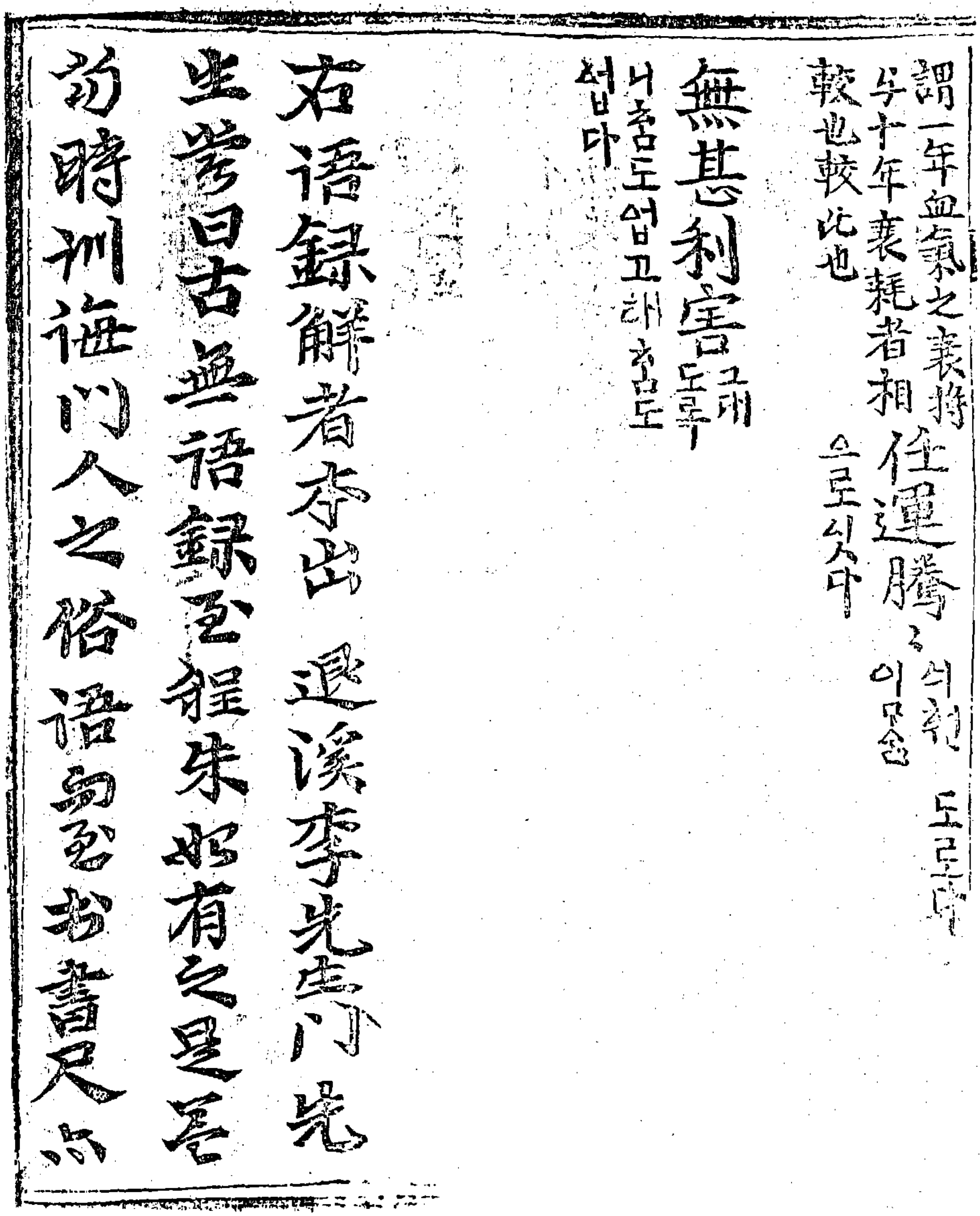
无知而以書此也　皇明紀元後[illegible]丁閏

三月上澣志于府西之[illegible][illegible]

[illegible]

(29장 B)

遷々用於平常文字人之易曉而我東
然以語書之不同及未難曉乎眼也已
幸而可見此錄收其難曉者易曉矣耶
書諸說之眞詮而以見當時先生之功
而得大要著其中之隨語隨訓之因以
分類說而爲釋以析看崑希春之訓則知
此錄君者出而先生而又證其參互要
固賴乎有此具眼者證著未發之



（謂一年血氣之衰將与十年衰耗者相較也較比也）

任運騰々（싀취 도로다 이ᄆᆞᄋᆞᆷ으로시ᄉᆞ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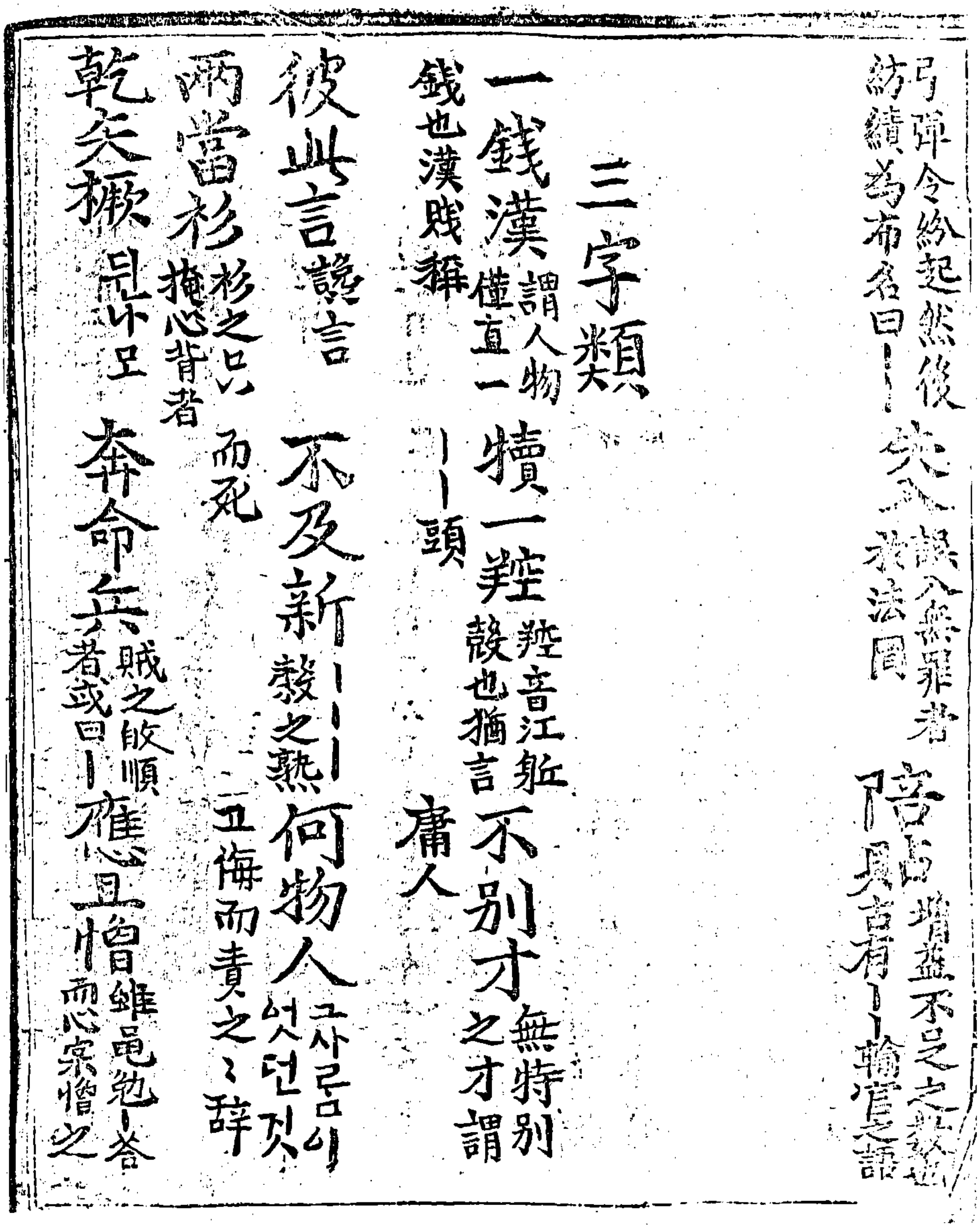
無甚利害（그ᄅᆡ도후 니ᄒᆞᆷ도 업고 ᄒᆡᄒᆞᆷ도 섭다）

右語録解者本出 退溪李先生門 先生嘗曰古無語録至程朱始有之是當前時訓誨門人之俗語易曉者書尺六

看一看（ㅣᄒᆞ디온 ᄒᆞᆫ번看）致命痕（為人所殺 者其傷）
ᄒᆞ며操一操審一 處謂之ㅣㅣㅣ
審全一句法

四字類

事在恩後（謂 犯）職輕任碎（謂雜 職）責惡於人（双惡殺 人而自）
罪在赦後不可殺 家奴許良（놈의 죵시）脫
也
進熟圖身（進軟 熟之）냥인시로라하다 受其斟酌（猶言 被進）
言而圖貴其身 首尾周皇（ㅣㅣ은退操縱 두루ᄃᆞ）
多爭十年（爭〻 較也）려猶言畏首畏尾 賦食行水（밥ᄂᆞᆫ하 주고믈）



（弓彈令紛起然後紡績爲布名曰｜｜）失入（誤入無罪者於法罔）陪貼（增益不足之之數古有｜｜輸償之語）

三字類

一錢漢（謂人物僅直一錢也漢賤稱）犢一羫（羫音江䑡殼也猶言｜｜頭）不別才（無特別之才謂庸人）

彼此言（譺言）不及新（｜｜穀之熟）何物人（그사름이엇던것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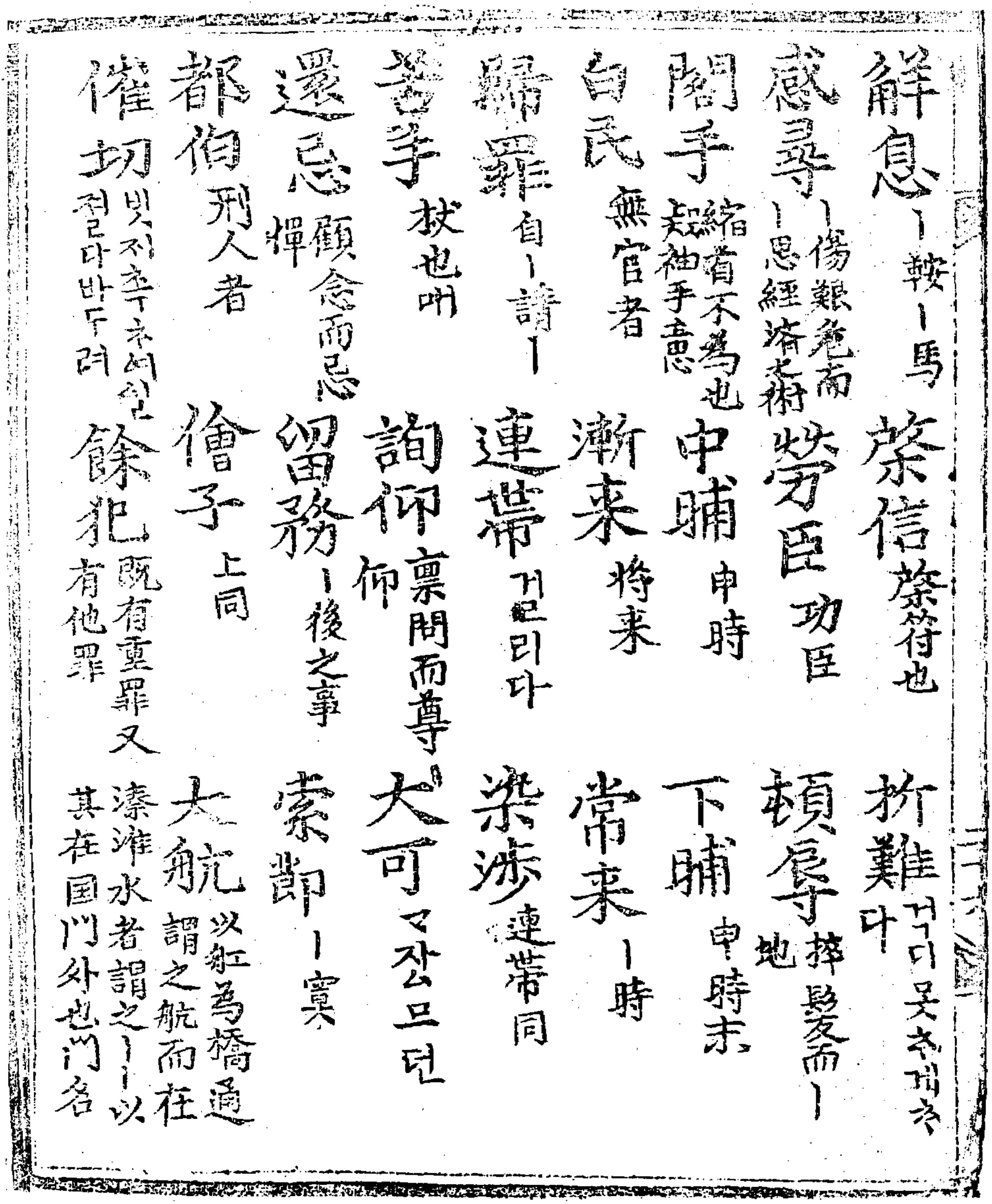
兩當衫（衫之只掩心背者）而死 且悔而責之〻辭

乾矢橛（믈나모）奔命兵（賊之敗順者或曰｜｜）應且憎（雖邑勉｜咎而心宲憎之）

裁給 개슈ᄡᅳ다
赤章 祝天之文
驗內 다 효험나본명
己日 己過一日也
下髮 削髮
吉還 好做
吉貝 閩廣多種木綿結宗
如大菱色青秋深
即開露白綿茸然
摘取去殼以鉄杖
捍盡黑子徐以小

忍虐 殘ㅣ暴ㅣ之意
倚下 如今下番
餐銭 俸銭
王租 나라구실
鬆 江左人以酒和糆則糆起ㅣ
ㅣ如今사ᅀ차
疾足 밧비가ᄂᆞᆫ사ᄅᆞᆷ急足同
觀說 見而言之

朱雀故一名朱雀航
尚書舜典篇題所云
蓋指此也
下熟 稍豊也中熟上熟以此推之
花押 如今슈례
二敬 稱臣於彼此
得盧 摴蒱有黑犢有雉有
盧得盧者勝
折閱 손져ᅀ애치ᅀᆞ되ᄉᆞᆫ가ᄒᆞᅀᅧ고
고ᄃᆡ주ᄂᆞᆫ개ᄉᆞᆯ名曰



觧息 丨鞍丨馬
感尋（丨傷艱危而 丨思經濟術）
閤手（縮首不為也 叉袖手意）
白民 無官者
歸羅 自丨請丨
笞手 杖也매
還忌（顧念而忌 憚）
都伯 刑人者
催切（빗지주ᄒᆞ여신 쳘다바ᄃᆞ려）

棨信 棨符也
勞臣 功臣
中晡 申時
漸來 將來
連帶 걸리다
詢仰（稟問而尊 仰）
留務 丨後之事
儈子 上同
餘犯（既有重罪又 有他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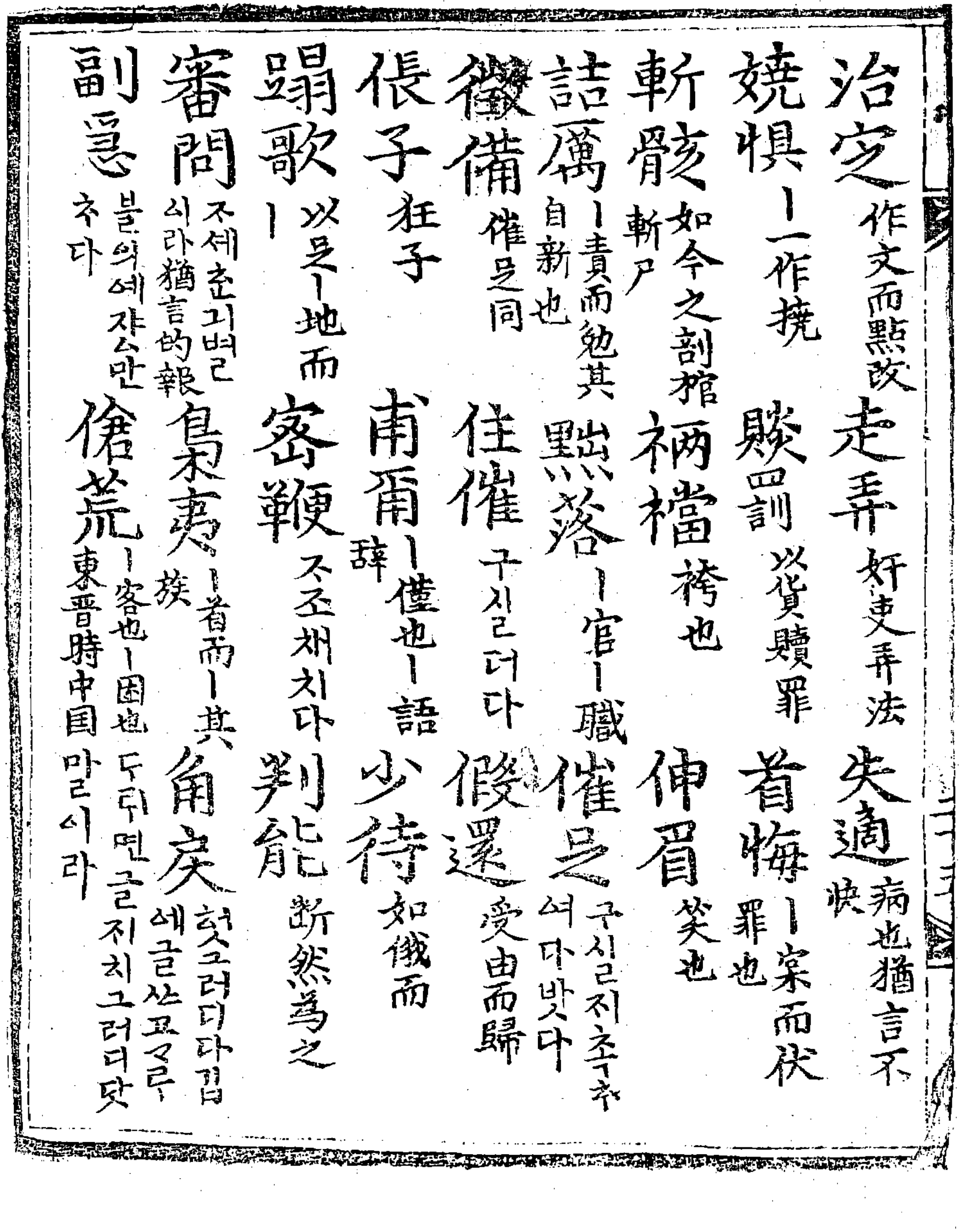
折難（거디못ᄒᆞ게ᄒᆞ 다）
頓辱（捽髮而丨 地）
下晡 申時末
常來 丨時
洪涉 連帶同
大可 ᄀᆞ잠으던
蒙卹 丨寘
大航（以舡為橋通 謂之航而在 漆淮水者謂之丨丨以 其在国門外也门名）

(26장 B)

犂耳（보십農器）
戲責（以雜技賭勝負而責物於人也）
任子（以父蔭官其子孫）
歓愠（喜怒）
彈劾（以重罪彈人）
物上（貢稅）
賭跳（跳躑以高爲勝）
在事（有司）
刀勅（執ㅣ而傳ㅣㅣ）

（人避亂渡江吳人稱謂ㅣㅣ蓋賤之也）
露田（不種樹也言耕田而不播種）
人門（ㅣ物ㅣ地）
瘃墮（瘡腫也ㅣ音瑑）
金屓（謂鵠也盜鵠於器則不能耐毒而破故必盜以金ㅣ而因名鵠爲ㅣㅣ）
評直（論價）
綜司（出納王命之官）
剛濟（ㅣㅣ斷成事）

撅豎（倔起也자ᄉᆞ신싀블싀예흡피되다）
得儁（戰勝）
勸分（ㅣ富賑人）
閑罵（從容談話）
膳奴（炊飯之奴）
射堋（射垜）
作適（適意作戲）
傳可（뎐ᄒᆞ오로그리ᄒᆞ라ᄒᆞ다）
擲塗（塗泥丸也ㅣㅣ以泥丸相ㅣ爲戲）



治定 作文而點改 走弄 奸吏弄法 失適 （病也猶言不快）

嬈惧 丨一作撓 賧罰 以貨贖罪 首悔 （丨案而伏罪也）

斬骸 （如今之剖棺斬尸） 裲襠 袴也 伸眉 笑也

詰厲 （丨責而勉其自新也） 黜落 丨官丨職 催是 （구실지촉ᄒᆞ셔다밧다）

徵備 催是同 住催 구실더다 假還 受由而歸

倀子 狂子 甫甬 （丨僅也丨語辭） 少待 如俄而

蹋歌 （以足丨地而丨） 客鞭 ᄌᆞ조채치다 判能 斷然爲之

審問 （ᄌᆞ세ᄒᆞᆫ긔별시라猶言的報） 梟夷 （丨首而丨其族） 角戾 （혓그러디다겹애글산포ᄀᆞᄅᆞ）

副急 （블의예쟝만추다） 傖荒 （丨客也丨困也두뒤면글지치그러디닷東晋時中国말이라）

(25장 B)

愆懸（粮食不繼）

篆口（口戒口口）

代怖（人有迫於刑禍ㅣ者已不知怖而旁人為之怖也）

蠅拂（파리채）

裨販（賣賤買貴）

妄階（窃階仝）

折券（빗ᄉ세수다如馮驩燒券之意）

生受（不發而困苦之）

愆忍（上同）

停解（休官）

枉酷（애매히죄닙다）

色栽（正色以示惡之〻意）

防邏（巡邏而防賊）

貿作（ㅣ其家人而役之）

冒勳（ㅣ錄ㅣ籍）

撿詰（ㅣ核其事而下問之）

禁司（司憲府）

是指屋卑則云ㅣㅣ頂趾

跳行（바독못두다부러디는거슨曰故為ㅣㅣ）

自整（微怒ㅣ容以ㅣ他人之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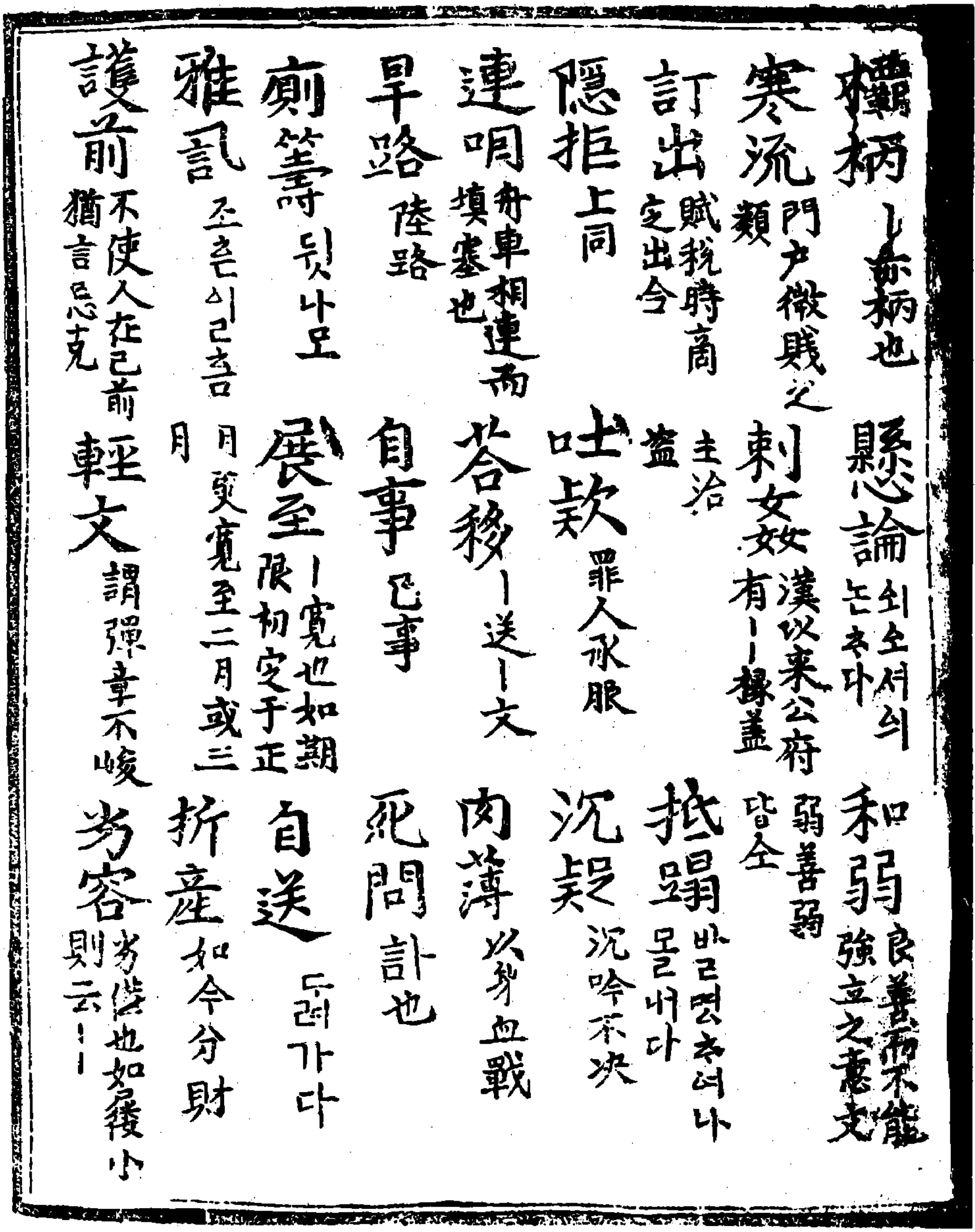
阿戒（役夢）

窃階（曰猶俗言賊職）

反役（길가다가도라오다）

起部（工部）

收錄（捕捉罪人）



欛柄（丨亦柄也）

寒流（門户微賤之類）

訂出（賦稅時商定出令）

隱拒（上同）

連明（舟車相連而填塞也）

旱路（陸路）

剆等（뒷나모）

雅訖（조흔일흠）

謢前（不使人在己前猶言忌克）

懸論（외오서의논ᄒᆞ다）

刺姦（漢以來公府有丨丨掾蓋主治盜）

吐款（罪人承服）

荅移（丨送丨文）

自事（己事）

展至（丨寬也如期限初定于正月更寬至二月或三月）

輕文（謂彈章不峻）

和弱（良善而不能強立之意支弱善弱답全）

抵蹋（발명ᄒᆞ여나몰내다）

沉踶（沉吟不決）

肉薄（以身血戰）

死問（訃也）

自送（드려가다）

折産（如今分財）

劣容（劣僅也如穫小則云丨丨）

這般 （猶言如此）

那般 （猶言如彼）

幾會 （셔러즈ᅀᅳᆷ）

連忙 （ᄲᆞᆯ리）

一回 （ᄒᆞᆫ슌）

吉徵 （褒義見召）

附録

減落 （減除）

火計 （동모）

這們 （猶言如此）

分外 （寸者数之終十分為數之極而甚言其太過則曰丨丨上分外參考）

幾回 （몃슌）

淨殺 （盡殺）

生活 （ᄉᆡᆼ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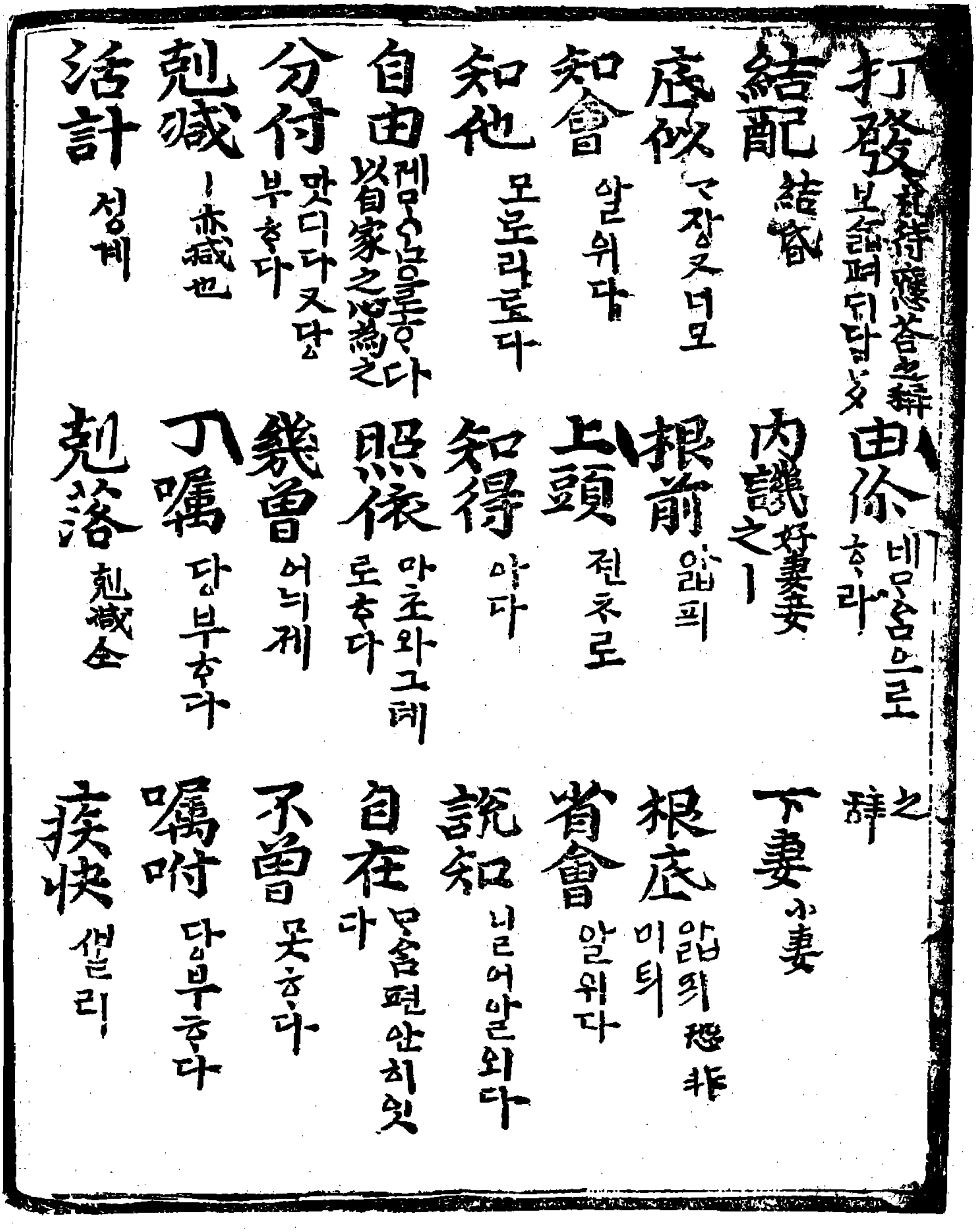
快活 （즐기다）

那們 （猶言如彼）

無賴 （힘ᄡᅵ미즈부질업시）

名捕 （題名特捕）

尤諱 （尤大也謂君長）



打發（乾待應答之辭 보ᄉᆞᆲ펴ᄃᆡ답ᄒᆞ오）
結配（結婚）
底似（ᄀᆞ장ᄌᆞ니모）
知會（알위다）
知他（모로라로다）
自由（제ᄆᆞᄋᆞᆷ로ᄒᆞ다 以自家之心爲之）
分付（맛디다又당부ᄒᆞ다）
剋藏（ㅣ亦藏也）
活計（ᄉᆡᆼ계）

由你（네ᄆᆞᄋᆞᆷ으로ᄒᆞ라 之辭）
內識（好妻妾之ㅣ）
根前（앏피）
上頭（젼ᄎᆞ로）
知得（아다）
照依（마초와그례로ᄒᆞ다）
幾曾（어늬제）
丁囑（당부ᄒᆞ다）
剋落（剋藏仝）

下妻（小妻）
根底（앏ᄒᆡ恐非 미틔）
省會（알위다）
說知（니르어알외다）
自在（ᄆᆞᄋᆞᆷ편안히잇다）
不曾（못ᄒᆞ다）
囑付（당부ᄒᆞ다）
疾快（ᄲᆞᆯ리）

漢語集覽字解

着落 使之爲也吏語亦曰著令

一刻 ᄆᆡᄎᆞ로시亦曰剋地忽然之意

坐受 艱苦也又負之也

罷〻 두워〻〻亦曰世罷

一宿 ᄒᆞᆫᄌᆞᆷ又ᄒᆞᄅᆞ밤

定害 貽累於人又해자ᄒᆞ이과라

不揀 아ᄆᆞ라나마나俗語丨丨甚麼

將就 猶容忍扶護之意혈ᄭᅱ

委的 委保也信也的語助辭

剗新 새로이

一面 호온자又ᄒᆞᆫ녀고로又ᄒᆞᆫ번

一就 이미셔又ᄒᆞᆷᄭᅴ

早晚 這早晚이ᄅᆞᆫ도록又問向時曰多

ᄂᆞᆫ[illegible]丨丨어

則管 ᄉᆞᆫ이여則音子或作只

空便 空隙順便之時조각

委寔 丨亦寔也

斬新 仝上

收拾 간슈ᄒᆞ다又설엇다又거두다

一發 仝上又ᄎᆡ여

由他 뎌뎌두다又제ᄆᆞᄋᆞᆷ대로ᄒᆞ게ᄒᆞ다

強如 더ᅀᅳ다

利害 모ᅀᅵ얍다

標致 聰俊敏慧之稱言俱美其㑹[illegible]

一捧一条痕（全書杖打則隨杖而有一条杖痕）

六字類

一節易如一節（이一節두곤쉽다）

一摑一掌血（당우로티마ᄒᆞᆫ손바당피라手打則隨手而有一掌血漬謂其言之痛著知矣）

一節會去分別取舍（去ᄒᆞ야分別取舍ᄅᆞᆯ會ᄒᆞ다）

五字類

着做甚麽事（므슨일을ᄒᆞ뇨교블디라）

癡獃罔兩漢（皆愚騃어린놈罔兩俗言망녕된之意）

精切似二程（二程두뎐精切ᄒᆞ다）

更說甚講學（ᄯᅩ므슴講學을ᄒᆞᄂᆞᆫ고）

叉手如何法（用二手大指相交則右大指在上左大指在下右四指在內左四指在外盖取陰陽交合之義）

更著甚工夫（ᅵ音ᄀᆡ다시므슴工夫을著ᄒᆞ리오）

元是說甚底（元是說ᄒᆞ논거시므서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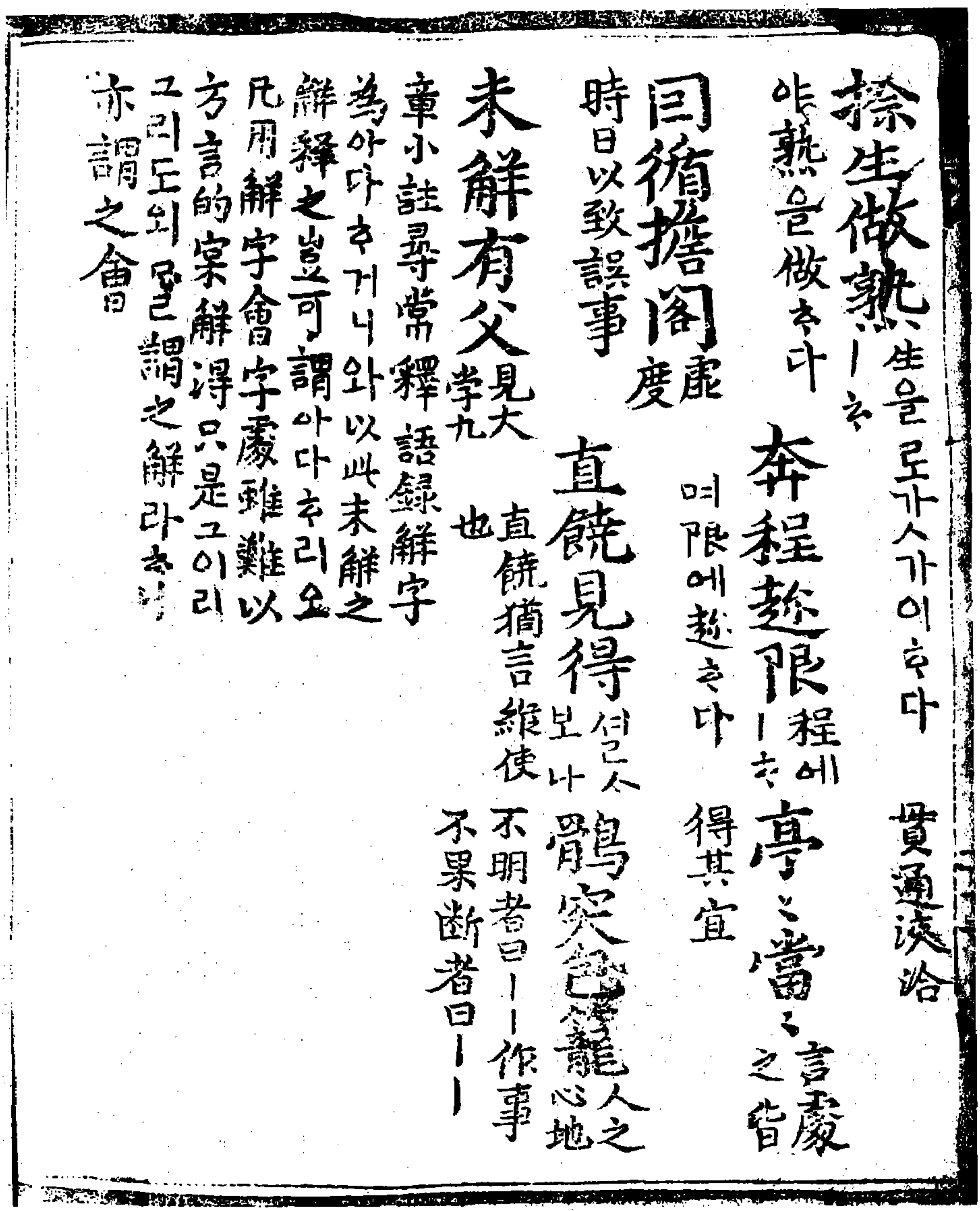
一摑一掌血（摑音괵ᄒᆞᆫ바）

真箇會底意（會理會之會兼知行意진실로니회ᄒᆞᆯᄠᅳ디라）

一場大脫空（ᄒᆞᆫ밧탕ᄒᆞ게소탈ᄒᆞ고허타）

大學中肉菜（此是批評言大學道理日用可切如肉菜之切用）

似已無可得（임의가히시러곰說ᄒᆞ얌즉ᄒᆞᆯ이업ᄉᆞ니와）



捺生做熟、（生을로가ㅅ가이ᄒ다 丨ᄒ）作熟을做ᄒ다

貫通浹洽

奔程趂限（程에 丨ᄒ）며限에趂ᄒ다

亭〻當〻（言處 之皆）得其宜

冋循擔閣（鹿 度）時日以致誤事

直饒見得（섣ㄴㅅ 보나）直饒猶言縱使

鶻突[illegible]籠（人之 心地）不明者曰丨丨作事不果斷者曰丨丨

未解有父（見大 学九）也

章小註尋常釋語録解字為아다ᄒ거니와以此未解之解釋之豈可謂아다ᄒ리오凡用解字會字處雖難以方言的寔解得只是그이리그리도외믈謂之解라ᄒ시亦謂之會

(21장B)

未知所稅（稅止也未知所居）

不求其素（그긴의그룬실란）求티아니ᄒᆞ고

須放教閑（모로미放也ᄒᆡ）여곰閑케ᄒᆞ다有助長之意

自住不得（言漸進也）

著甚來由（므슴来由ㄹㅣ也）

擘畫分踈（ㅣᄒᆞ며ㅣ）ᄒᆞ며ㅣᄒᆞ며ㅣᄒᆞ다

何處得來（世間無此人之矣ㅣ）ㅣ可ㅣ而ㅣ乎

宛轉說來（ㅣㅣ不直截而委）曲轉輾之意

排定說殺（ㅣ布ㅣ規因論）說其義以求其質也

打疊交空（텨ᄇᆞ리다交）如使也言ㅣㅣ而使空也

鞭辟近裡（채텨뵈야안흐로）

鉄籠罩却（罩者以籠自上）罩下以捕魚者謂以ㅣ作ㅣ自上籠下則其中籠入之物無緣脫出言無所見

那箇不是（是謂道也）어ᄂᆡ거시이아니리오

硬將拗橫（ㅣ堅固不通之）義拗戾違也言堅固將文義ㄱ也뷔틀며빗ㅅ겨사기다

打成一片（表裡精粗）

同磨沙合（以灰藏於沙合之後口上罩了又將鉄線縛住仍以壒泥封其口上不使㬎氣出走）

合省得者（益也이업ㅅ매合當다）

分俵均數（俵散給也言散給而均布之也）

事無足者（일이足치ᄒᆞ음이업다言正心則胷中去字得空無事之難為也）

押下諸司（如今押領人以去）

兩項地頭（두목ᄯᅡ옷티라猶言두가짓곳이라）

挨着粉碎（挨音이排也盪也排盪猶言擡著言諸說擡著於此說便成破碎也）

倣件事着（件事을ᄆᆡᆼᄀᆞ라ᄒᆞᄅ디니著字不必釋）

甚生氣質（葉氏註意言將來涵養則可成就非常氣質이니甚生非常也當云가커涵養ᄒᆞ면甚生ᄒᆞᆫ氣質을成ᄒᆞ리라見近思錄）

領畧將去（領會也畧取也領會並取並將ᄒᆞ야가）

開物成務（人所睹者開發之人所欲者成全之）

奈何不下（아무려티못ᄒᆞ다）

八字打開（八別也象分派相別）

正坐如此（正坐於如此之議論）

無事生事（無事之中生事之意言分明也）

四字類

幾多般樣（幾多般含）

禁忌指目（猶僞学禁木目）

對同勘合（如两人相對校書各執一本而合讀勘合也）

生面工夫（새암된工夫）

直下承當（바ᄅᆞ아다又바ᄅᆞ다。）

橫說竪說（以四方言曰橫說以古今言曰竪說又以物言曰橫以時言曰竪）ᄒᆞ이

撐眉努眼（指禪学人）

緊得些子（져기다ᄭᅡ）

袞來袞去（섯거오며섯거가다）

真箇會底

說得走作（說話不合道理又或論事言語不相和）

說得口破（言之曲盡而口破壞者言其甚也猶俗言입이ᄲᅧ여디개니ᄅᆞ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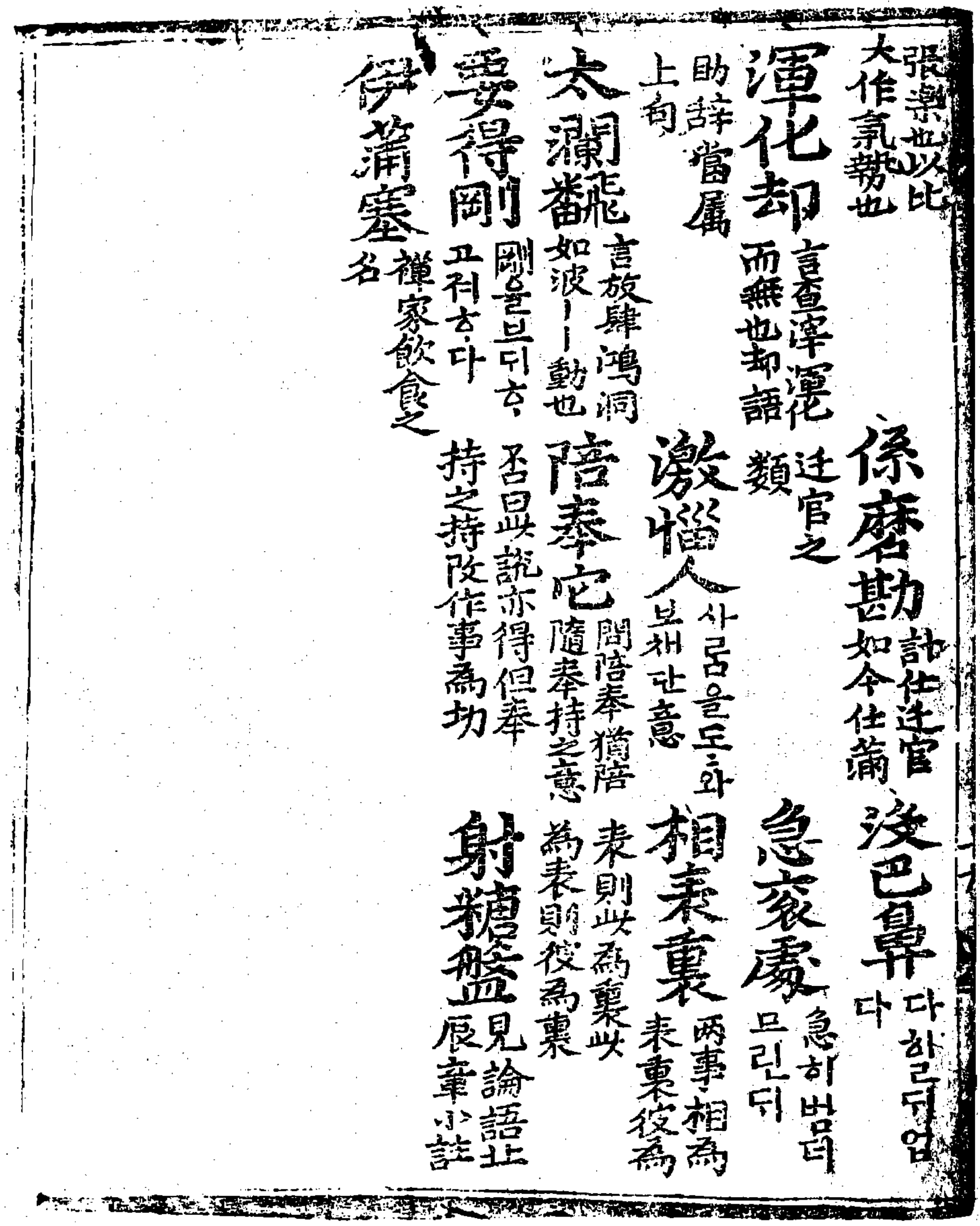
莽張百户（莽勇敢也）

冷淡生活（言其生理冷落也）

內房抄出（內房即今之內府文書房也太監掌之官其中寫出文書也）

趲進着說（一步說係於一步也猶俗言다참니ᄅᆞ다）

何處着落（어ᄃᆡ다ᄡᅡ디ᄂᆞ고）



張樂也以比大作氣勢也

渾化却（言査滓渾化而無也却語）助辞當屬上句

太瀾飜（言放肆鴻洞如波丨丨動也）

要得剛（剛을브틔ᄒᆞ고져ᄒᆞ다）

伊蒲塞（禪家飮食之名）

係磨勘（計仕遷官如今仕滿）遷官之類

激惱人（사ᄅᆞᆷ을도:와보채ᄂᆞᆫ意）

陪奉它（閑陪奉猶陪隨奉持之意）吾曰此說亦得但奉持之持改作事爲功

沒巴鼻（다ᄒᆞᆯ딕업다）

急袞處（急히ᄇᆞ믿므린딕）

相表裏（兩事相爲表裏彼爲）表則此爲裏此爲表則彼爲裏

射糖盤（見論語北辰章小註）

不奈何（아므라타못ᄒᆞ려니와）

動不動（ㅣ与不ㅣ之間如動輒之意）

作怎生（엇지ᄒᆞ고又므슴ᄆᆞ라）

甚工夫（ㅣ怎全又므ᄉᆞ거시라）

鶻崙棗（如云完全）

大拍頭（ㅣ흥ᄇᆞᆫ宋之西ᄆᆞᄅᆞ白拍頭言）其專主談論也拍頭拍之題頭也自負其才与人爭論必作氣勢高談大論無所忌憚之意○如今用拍板以節樂也頭如詞頭話頭歌頭之頭謂卷曲之一頭段ㅣㅣ大

白頭浪（水波湧起高出而白者曰ㅣㅣㅣ）

石尤風（逆風船不利行曰ㅣㅣㅣ도）래ᄇᆞ람唐詩無将故人酒不及ㅣㅣㅣ

大著肚（腹也）

上著牀（上於牀也牀坐卧ㅣ）

朴宲頭（人之老而忠信者曰ㅣㅣㅣ）

下梢頭（아래ᄀᆞᆺ）

一綽過（一目覽過）

明得盡（格物以盡其知）

形而上（形로上이未有形之前只有）理而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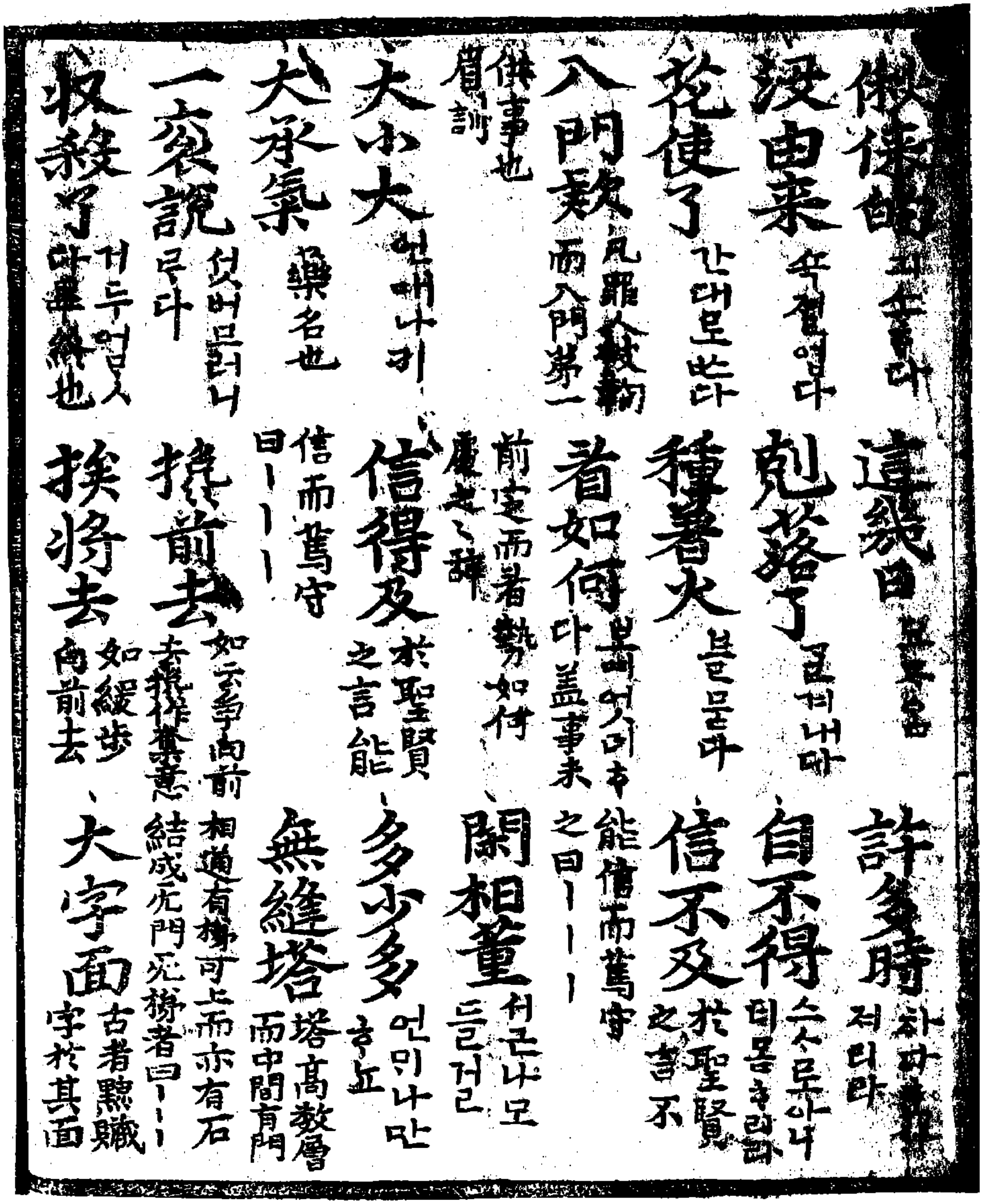
形而下（形인下애旣有形之後有）器之名

放門外（ㅣㅣ에두다）

却最是（他言雖非而此言ㅣㅣ故）下却字믄득ᄒᆞᆼ오ᄅᆞᆫ타

胡叫喚（한대로소리디ᄅᆞ단意）

捺生硬（셜고구도ᄀᆞ사믈[illegible]）



做什的 므슴ᄒᆞ다

沒由来 쇽졀업다

花使了 간대로ᄡᅳ다

入門款 凡罪人款勒而入門第一供事也 首訓

大小大 언매나키

大承氣 藥名也

一衮說 ᄒᆞᆫ버므러니ᄅᆞ다

收殺了 거두어ᄆᆞᆺ다畢終也

這幾日 요ᄉᆞ이

剋落了 ᄯᅥ텨내다

種著火 블븓다

着如何 보믜엇디ᄒᆞ다 蓋事未前定而着勢如何處之之辭

信得及 於聖賢之言能信而篤守曰丨丨丨

攙前去 如云争向前去攙作奮意

挨將去 如緩步向前去

許多時 차마[illegible] 저디라

自不得 스ᄉᆞ로아니 되몸ᄒᆞ리라

信不及 於聖賢之言不能信而篤守之曰丨丨丨

閑相董 쉬큰나모 드는거ᄅᆞ

多少多 언미나만ᄒᆞ뇨

無縫塔 塔高數層而中間有門相通有梯可上而亦有石結成无門无梯者曰丨丨丨

大字面 古者黥贓字於其面

(18장 B)

三字類

一等人（ᄒᆞᆫ가디사ᄅᆞᆷ猶言一種人）折轉来（옴겨와조뵈거옴겨와）作麼生（엇디ᄒᆞ고又므스거시라）

做將去（工夫ᄒᆞ여가다）知多少（모ᄅᆞ리로다언메나ᄒᆞ뇨）擔板漢（널멘놈이라謂見

閑說話（쓱졀업슨말ᄉᆞᆷᄒᆞ미라）錢多般（언에나ᄒᆞᆫ當業가지오見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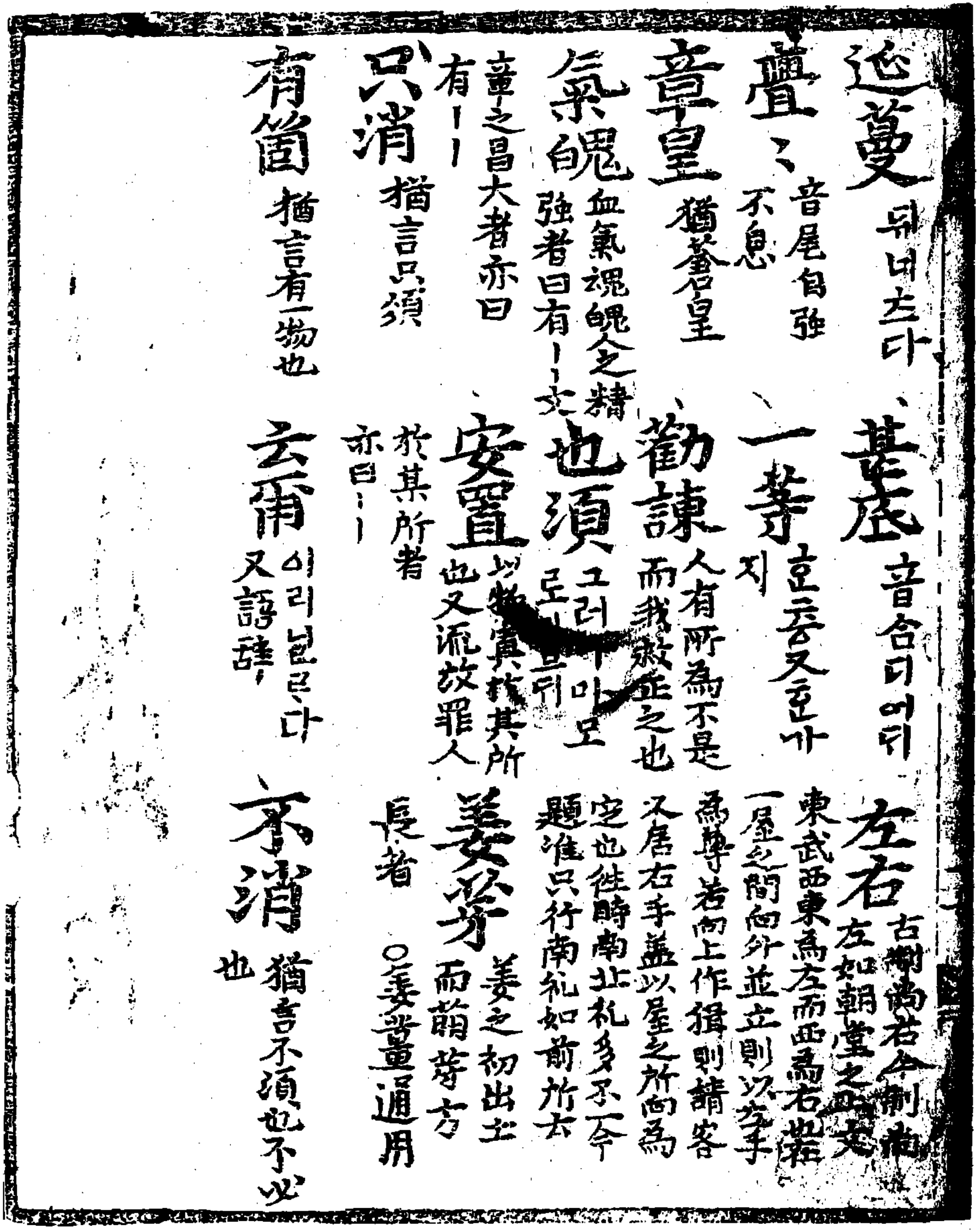
一副當（一件也漢訓）極好笑（ᄀᆞ장우읍다漢訓）閙汨董（힘ᄒᆞ고잡되오다）

多少般（幾多般也）從他說（뎌놀조차니ᄅᆞ다）較些子（져기벙으다）

將就的　花塔步（즈늑〻것다）就那裏（즉제게셔）

不多時（아니한ᄉᆞ이）都不得（아므려도몯）纖的縣（밧기멀며다）

不折本（믿디〻아니다）錯承當（외오아다）記認着（보람두다）



逌蔓 뮈니츠다
亹〻 （音尾自强不息）
章皇 猶蒼皇
氣魄 （血氣䰟魄之精强者曰有丨丨文）
（章之昌大者亦曰有丨丨）
只消 猶言只須
有箇 猶言有一物也

甚底 音合디어디
一替 （ᄒᆞᆫ곳又ᄒᆞᆫ가지）
勸諫 （人有所爲不是而我救正之也）
也須 （그러[illegible]마모로[illegible]므뒤）
安置 （以物寘於其所也又流放罪人）
（於其所者亦曰丨丨）
云爾 （이리닐ᄋᆞ다又語辭）

左右 （古制尙右今制尙左如朝堂之西文東武西東爲左而西爲右若一屋之間向外並立則以左手爲尊若向上作揖則請客不居右手蓋以屋之所向爲定也往時南北礼多不一今題准只行南礼如前所去）
姜芽 （姜之初出土而萌芽方長者）○姜薑通用
不消 （猶言不須也不必也）

(17장B)

商量（能立箇心然後其上頭可以ㅣㅣ저즈려보다又혜아려）

搏量（ᄒᆞᆫ디모도와ㆍ量ᄒᆞ다如手量之時必搏而量之也）

作到（纔到）

目今（猶見今即當今也）

齰舌（최ᄌᆞᆫ므단말）

可尚（可尊尚也）

元料（猶本計）

爐鞴（鞴音備꼬븐불무새블븐노거시라）

火迫（急遽）

剌破（猶改定）

髡剃（剃音톄ㅣㅣ削髮之謂）

耐煩（煩거기ᄅᆞᆫ견디다）

宿留（宿音秀有所希望而留之）

裏許（許猶所也）

醜差（猶言大差）

旬呈（謫居之人有ㅣㅣ之事如今旬日手本之事）

端的（猶定奇）

逐項（逐事）

把手（下手同손ᄃᆡ다）

當體（當身）

親炙（薰炙）

畢竟（猶言要其終而言也）

必竟（猶畢ㅣ）

狼當（狼藉仝）
省事（ㅣ音싱일을더다）
將上（將ᄒᆞ야上ᄒᆞ다）
將息（조셥勞碌安坐自在養神保氣曰ㅣㅣ）
申發（申보장ᄒᆞ단말이니ㅣㅣ보장ᄒᆞ여내여보내다）
塵刹（言三千大千世界ㅣ）
出場（猶言畢其事）

（入文義而斷之也）
着見（非有心而見也）
張皇（포당ᄒᆞ다）
襯貼（音츤뎝襯且티다貼비뎝이니如以他物貼此物也）
卒急（파글리）
裝點（ᄭᅮ미다）
歸宿（如言安定）
落草（기ᄉᆞᆫ듸落ᄒᆞ다）

委曲（委亦曲字之意고븨〻）
着力（盡力也猶有助長之意）
着緊（긴히着ᄒᆞᆫ단말이라긴히之說含着意）
照會（校正也）
說殺（ㅣ音刹說ᄒᆞ야못ᄉᆞ다）
上供（如今貢物）
無量（不以幾器爲限唯適於氣世儒以飲之无限看者非）

自合 ᄉᆞᄉᆞ로맛다

較然 漢書甚明又音각

胡思 어즈러이ᄉᆡᆼ각다

含胡 不分明之甚

糊塗 含胡仝

鶻圇 團圓爲一不分析之狀

領會 領畧仝

取會 取其所會計也

揣摸 ㅣ度也ㅣᄆᆞᆫ치다

撐拄 벋ᄆᆞᆫᄃᆡ괴오며받티다言不肯虛心受人硬執己意妄言語以ㅣㅣ拒捍他人之說

按伏 ㅣ누르다伏ᄒᆞᆫ보ᄀᆡ

抵敵 牛以角觸曰抵猶人敵之來与敵相遇對敵如牛之觸物而不進也抵觝仝

扶策 ᄐᆡ위잡으며警策ᄒᆞ다以警策起人之怠惰如馬之不行扎策輒行

保任 밋브다

挽斷 挽去咸切世見判之也言以己意貫

撿放 撿除也謂撿斂被災之田而除其稅

放與 ㅣ与做仝

縮著 움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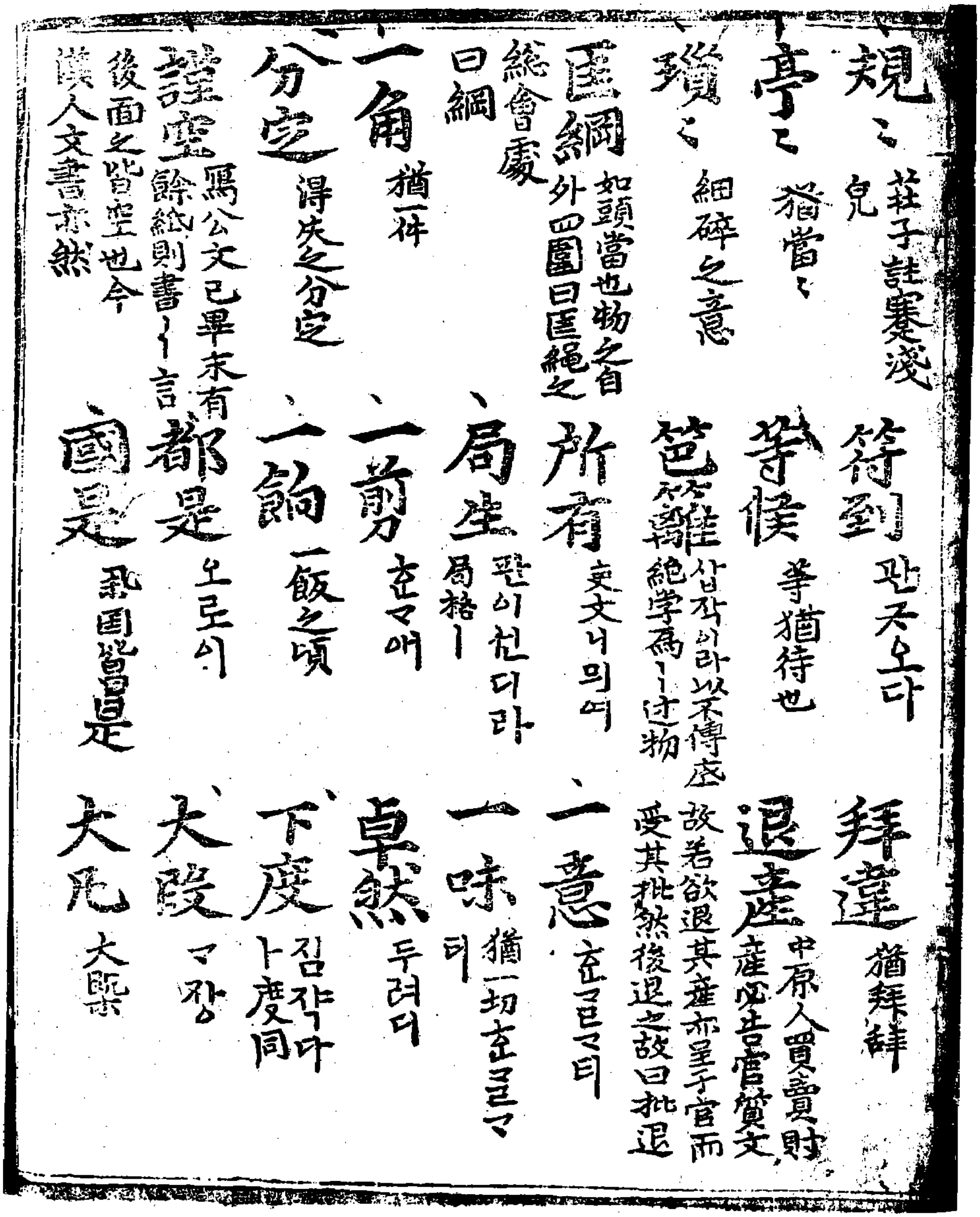
冷著 [illegible]우이디디보다猶冷笑

不著 不合

不透 心欲解而不通ㅣ如隔靴之意

不托 或作餺飥ᄒᆞᆫ之類

已事 已過之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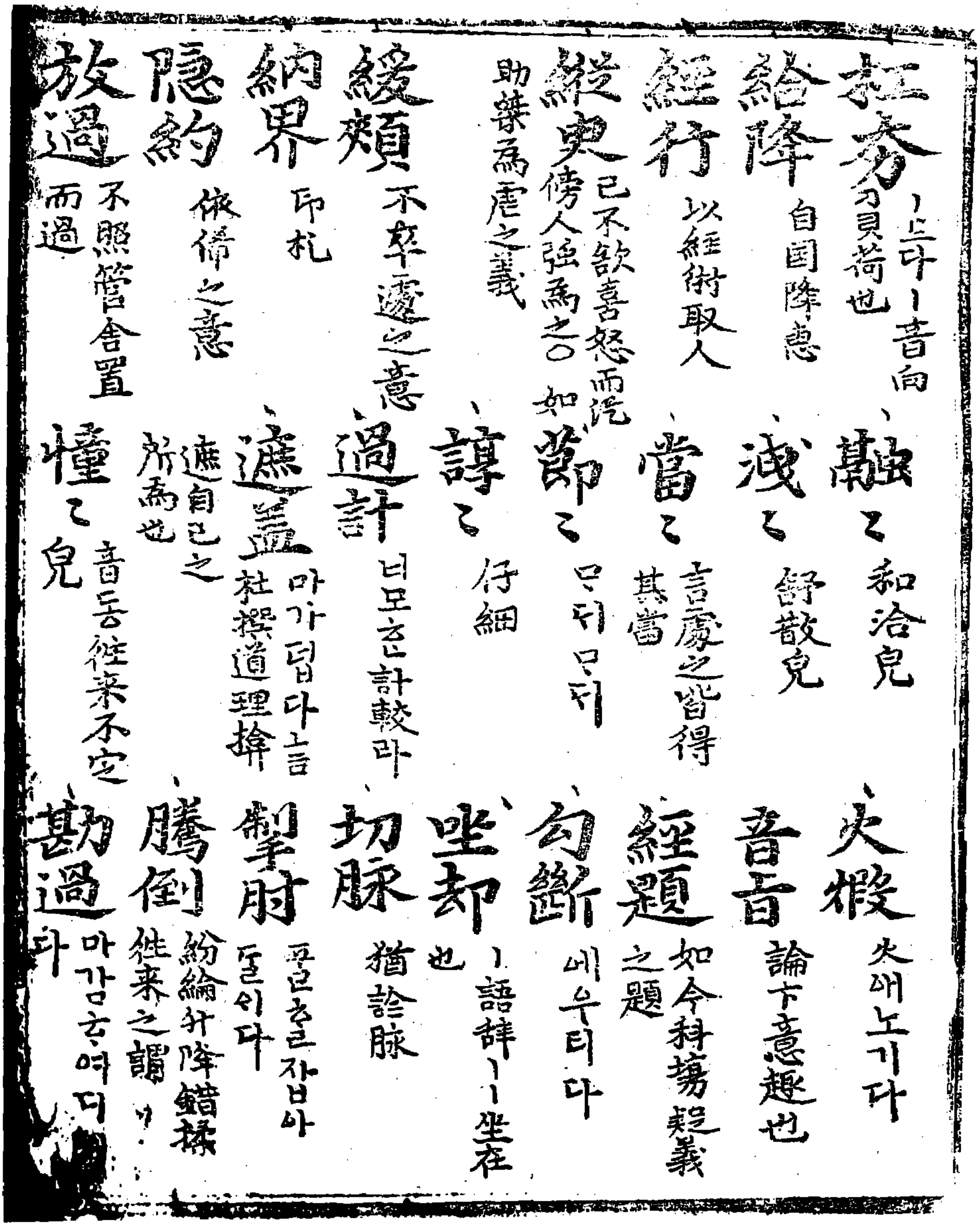


規〻 莊子註蹇淺皃
亭〻 猶當〻
瑣〻 細碎之意
匡綱 如頭當也物之自外四圍曰匡繩之總會處曰綱
一角 猶一件
分定 得失之分定
謄空 寫公文已畢末有餘紙則書〻〻言後面之皆空也今漢人文書亦然

符到 판드오다
等候 等猶待也
笆籬 삽작이라以不傳處絕字爲〻〻之物
所有 吏文니의여
局坐 판이칫다라 局梏〻
一剪 ᄒᆞᆫᄀᆞ애
一餉 一飯之頃
都是 오로이
國是 舉國皆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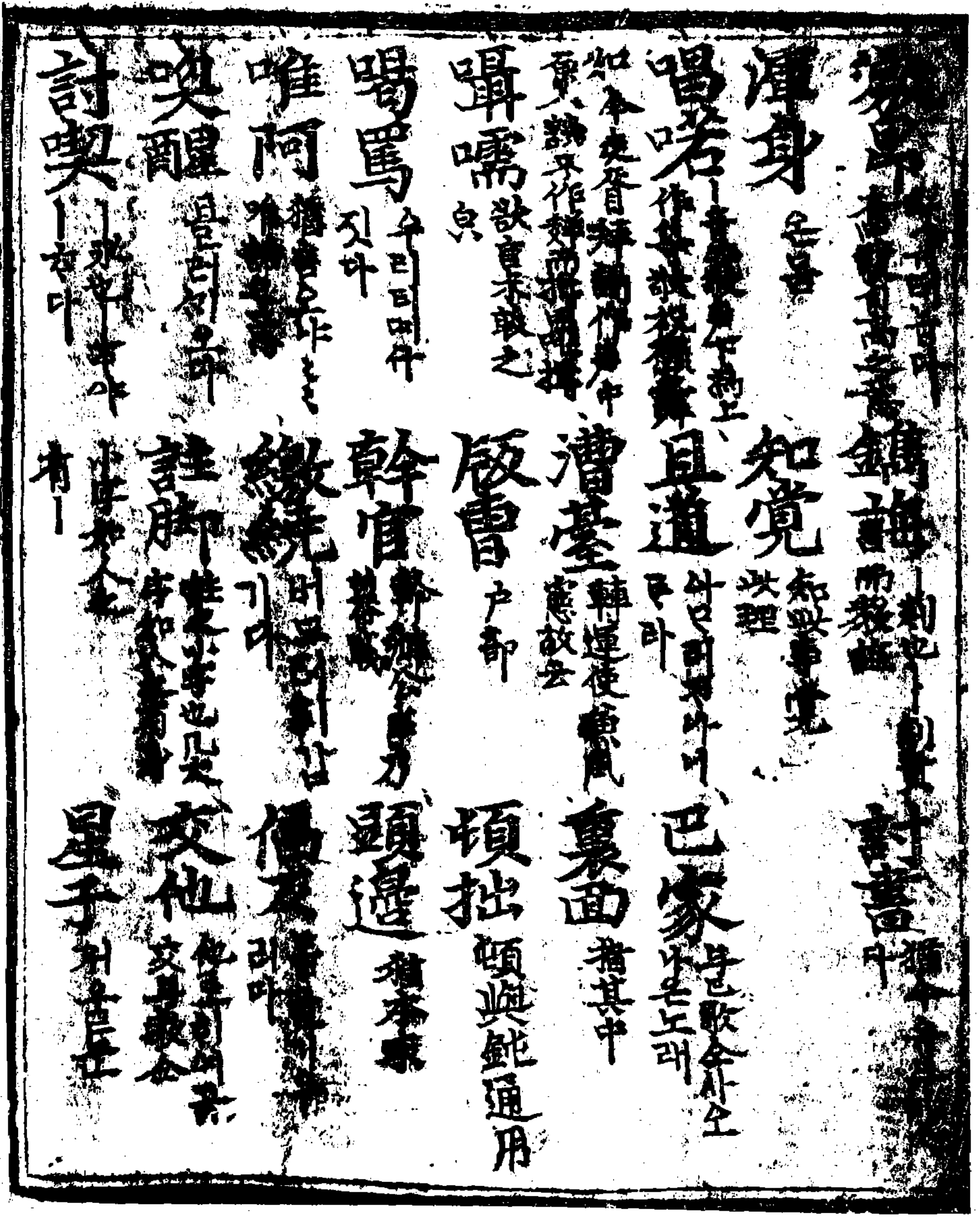
拜還 猶拜辭
退產 中原人買賣財產必告官質文故若欲退其產亦呈于官而受其批然後退之故曰批退
一意 ᄒᆞᆫᄀᆞᆯᄀᆞ티
一味 猶一切ᄒᆞᆫᄀᆞᆯᄀᆞ티
卓然 두려디
下度 짐작다 卜度同
大段 ᄀᆞ장
大凡 大槩

(15장 B)



扛夯	丨드다丨音向 又負荷也
給降	自国降恩
經行	以經術取人
縱臾	已不欲喜怒而汔傍人强爲之○如助桀爲虐之義
緩頰	不卒遽之意
納界	印札
隱約	依俙之意
放過	不照管舍置而過
融々	和洽皃
洩々	舒散皃
當々	言處之皆得其當
節々	ᄆᆞ디ᄆᆞ디
諄々	仔細
過計	너모ᄒᆞᆫ計較라
遮蓋	마가덥다上言杜撰道理揜 遮自己之所爲也
憧々皃	音동 徃来不定
火煅	火애노기다
音旨	論卞意趣也
經題	如今科塲題義之題
句斷	세우티다
坐却	丨語辭丨丨坐在也
切脉	猶診脉
掣肘	ᄑᆞᆯᄋᆞᆯ잡아ᄃᆞᆯ이다
騰倒	紛綸升降錯糅徃来之謂ㅣ
勘過	마감ᄒᆞ여디[illegible]라

(15장 A)



[illegible]畢（[illegible]）

渾身（온몸）

唱名丨（[illegible]）

如今吏胥[illegible]中[illegible]

[illegible]作[illegible]

囁嚅（欲言不敢之貌）

喝罵（[illegible]다 짓다）

唯阿（[illegible]）

喚醒（[illegible]）

討喫丨（[illegible]）

鎖論丨（[illegible]而[illegible]）

知覚（[illegible]）

且道（[illegible]다）

漕臺（轉運使[illegible]憲故云）

[illegible]曹（户部）

幹官（[illegible]力）

繳繞（[illegible]기다）

註脚（[illegible]）

[illegible]丨

討書（[illegible]다）

巴家（[illegible]歌[illegible]노래）

裹面（猶其中）

頓拙（頓與鈍通用）

頭邊（[illegible]）

[illegible]（[illegible]）

[illegible]（[illegible]）

星子（[illegible]）

搕磕（以石相擊聲爲小人所攻）

窠底（漢語丨窮極之意丨猶本根言）窮極盡本根更無去處之意

底止（丨止也底於止）

般移（丨亦移也丨丨猶예ᄀᆞ옴기다）

般取（般移拿）

參取（向與向中[illegible]究而撥取也）

波吒（波吒、辛哭拌一一）

涵養（[illegible]）

對班（自唐後經筵之王官對朝班而奏事故進講謂之對班）

尋覓（猶思索有助長之病）

界至（自某地界至某地界）

窮鑿（[illegible]木柱[illegible]大檔堰）

滲泼（曾子甘受杖也滲之意）

淘汰（淘去陶冶如淘金汰丨淘滌汰ᄒᆞ야）

漫漶（不分明ᄒᆞᆫ듸니긔라丨丨）

閑渡（半吉吾）

齷齪（蹙促局陋兒）

本領（猶大体）

衘戢（丨感也感意丨丨于中參戢含）

團欒（無角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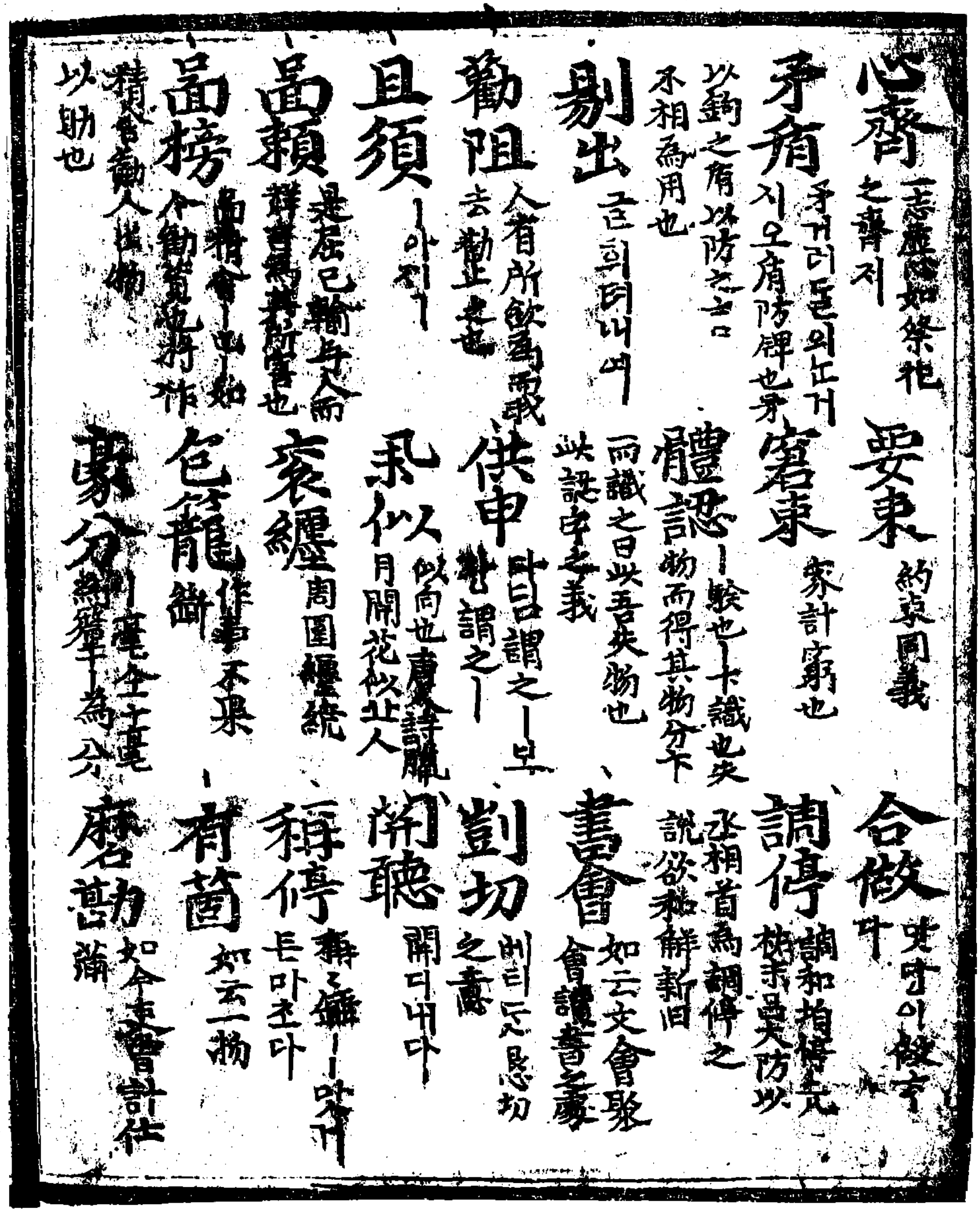
萬化（[illegible]謂之丨丨）

灌冗（迫於雜事）

若曰（이러ᄐᆞ시니ᄅᆞ다ᄎᆞ이ᄃᆡ곳니ᄅᆞ[illegible]）

草本（謂諸書不許細繹看了）

沫血（丨[illegible]）



心齋（一志虔心如祭祀之齋지）

矛盾（矛거리돋의ᄂ거지오盾防牌也矛以鉤之盾以防之ᄒᆞᆷ不相爲用也）

剔出（글희여내여）

勸阻（人有所欲爲而或去勸止者）

且須（ㅣ아직ㅣ）

啚賴（是居已輸與人而辭言爲我所害也）

啚撈（啚精會ㅣ也如令勸覓出將作精覓勸人出物以助也）

要束（約束同義）

窘束（家計窮也）

體認（ㅣ驗也ㅣ識也矣物而得其物分下而識之曰以吾矣物也以認字之義）

供中（바旨謂之ㅣ보供謂之ㅣ）

乳似人（以向也盧仝詩朧月開花似乳人）

衮纏（周圍纏繞）

包籠（作事不果 銜）

夥分（分ㅣ毫全十貫 無錢千ㅣ爲分）

合做（뫼ᄃ이做ᄒ다）

調停（調和拍停之枋是又防以 丞相首爲調停之說欲和解新旧）

書會（如云文會聚會讀書之處）

剴切（베티ᄃᆞᆫ懇切之意）

閒聽（開디내다）

稱停（稱之衡ㅣㅣ맛거튼마초다）

有箇（如云一物）

磨勘（如今吏曹計仕 講）

(13장 B)

枉陪（丨重也謂重疊添加之陪疑倍之誤）

相須（丨字多有待意）

查礦（쇠븐ᄅᆞᆫ리ᄅᆞᆫ利즛여니猶쇠ᄯᅩᆼ이라）

天機（天理自然發用之妙處）

具析（具猶兩造具備之丨析分也）

脊梁（등ᄆᆞᄅᆞ例人之擔負重任者必硬著丨丨乃能出力而勝重任猶등힘ᄡᅳ다）

閑理（古有閑天下義理之語丨謂更緊要）

硬把（벅ᄀᆞ미ᄌᆞ다）

豈亦（豈旁世界之意）

參拜（參謁也）

懸知（丨遠也猶遙度）

坯子（丨音抔瓦未燒者）

大率（大槩）

太家（猶言大段或云大故）

體大（猶大事）

夫人（猶言凡人）

虛閒（丨閑全丨不急促）

擘畫（猶經營規畫也）

屬饜（饜足ᄒᆞᆷ매다타）

依倚（丨丨於權勢之家）

只除（다묘）

靠裹（靠에의지ᄒᆞ다）

時學（時文이[illegible]）

眼下（猶言當時）

亂去（간대로ᄒᆞ여가다）

配去（[illegible]配去絶之）

遝捺（捺音列ㄹ치누 므다）

攴撥（丶猶發也發其 尙積攴給）

更攢（丶趲儹仝侵 之也）

曲拍（猶曲調節拍）

耆得（丶齕仝）

方得（뵈야흐로得 ᄒᆞ다）

方便（多般計較得 其好處謂之丶丶）

無方（無方所）

無所（猶無處）

玩愒（猶貪恋歲月之 意俗言人生과타、）

疣贅（ᄠᅵ순）

對移（礼記王制不变 師教者右移左、左移右謂之丶丶来時下官有過上官黜四面之轉作惡辱之任以懲之謂之丶丶）

捭闔（丶音파与擺仝兩 手擘之丶丶猶闔闢）

扭捏（音뉴녈丶手轉 皃又按也捏揑仝、年結切撚也撚音聶拍也）

作恠（恣為恠也）

批判（公事結尾）

剖判（卞別）

打乖（打為也丶丶為恠 異又破乖戾乎 物和全也○為乖僻不仝 俗又南人聰明怪悟者亦 謂 乖）

決遣（決尾）

斷遣（딘보내다猶斷 罪而遣也）

行遣（竄逐也）

零星（餘殘之數）

失解（見屈於鄕試）

滚同（ᄒᆞᆫ듸뒤섯기다）

滚冗（如雜冗）

幹了（爲其事之骨子也맛다ᄒᆞ다若妻）

則ㅣ家奴則ㅣ事

錯了（그ᄅᆞ되라）

貼裏（古語也猶向裏）

貼律（貼入規律）

檢押（猶檢束也）

物謂之ㅣㅣ

言委支矣工夫

少間（이윽고少頃也）

外間（外物也）

行間（衆人行列之間）

引路（길자비）

引他（引接）

引却（引身却退）

偏却（偏僻處）

日者（推命之人）

印可（佛語올타）

寧可（ᄎᆞᆯ하리可하야）

耐可（엇디ᄒᆞ여야올ᄒᆞᆯ고）

便儇（便捷儇利也ᄂᆞᆫ내다）

偶便（偶同歸便也）

催儹（ㅣㅣ亦催字之意）

儹那（ㅣ音社取也那移也）

作壞（爲所壞也）

他說（謂會所言之意而發一端之說）

諦當（諦審）

抵當（猶擔當又對敵ᄒᆞ다）

體當（如云体驗体得堪當）

話頭（詞頭之類言題目也）

會去（사다）

會問（잘믓다）

會對（잘ᄃᆡ답다）

會解（아다）

得解（得參鄕試）

騂然（面發赤色也騂音셩慚靦皃）

粹然（섯근것업다）

嗒然（解体皃）

戄然（与悚仝又音쮜ᄯᅥᄎᆞᆫ것이라）

滾得（섯버므러）

要得（이리과다ᄒᆞᄂᆞ요쳐之意）

使得（ᄒᆞ여곰）

會得（猶會照也知後文從司照驗之意）

拚得（丨音반棼之人遺棄之）

撈攘（撈苦也丨棄也言人之作事費氣力者曰丨丨众人喧爭亦曰丨丨盖不妥穩不利順之謂）

攪聒（攪搖動也聒싀오싀다又요란다）

挨前（挨音애推也）

招認（丨如今다딤丨引以為証）

點抹（批點打抹以表識所得之意旨）

（值行間而長引筆旦抹非塗抹之丨）

関捩（関機丨也捩或作捩冶者鼓風）

（極所要之本也）

許多 만타

追典 追贈封謚

他門（指其人而稱曰他門）

何曾（어듸ᄢᅵ又엇디일즉）

廝匝 出易註

廝養 役卒奴

廝崖（廝捱也崖或作捱啀字疑相抗之意）○音애犬欲噬也相持相指不聽順之意

賭當（賭是商量見得之意）

六察（如尙書六貟各有糾官）

一冬 一方全

一件（古甘己猶言事ㅣㅣ）

一團（호무뎌与一段爲但分爲各段合爲團）

打酒 飮酒

打坐 안좀안기라

打話 說破也

打圍 圍之也

閑然 눈두어리다

折蹄（赦之穪公出於易）

知言 五峯胡氏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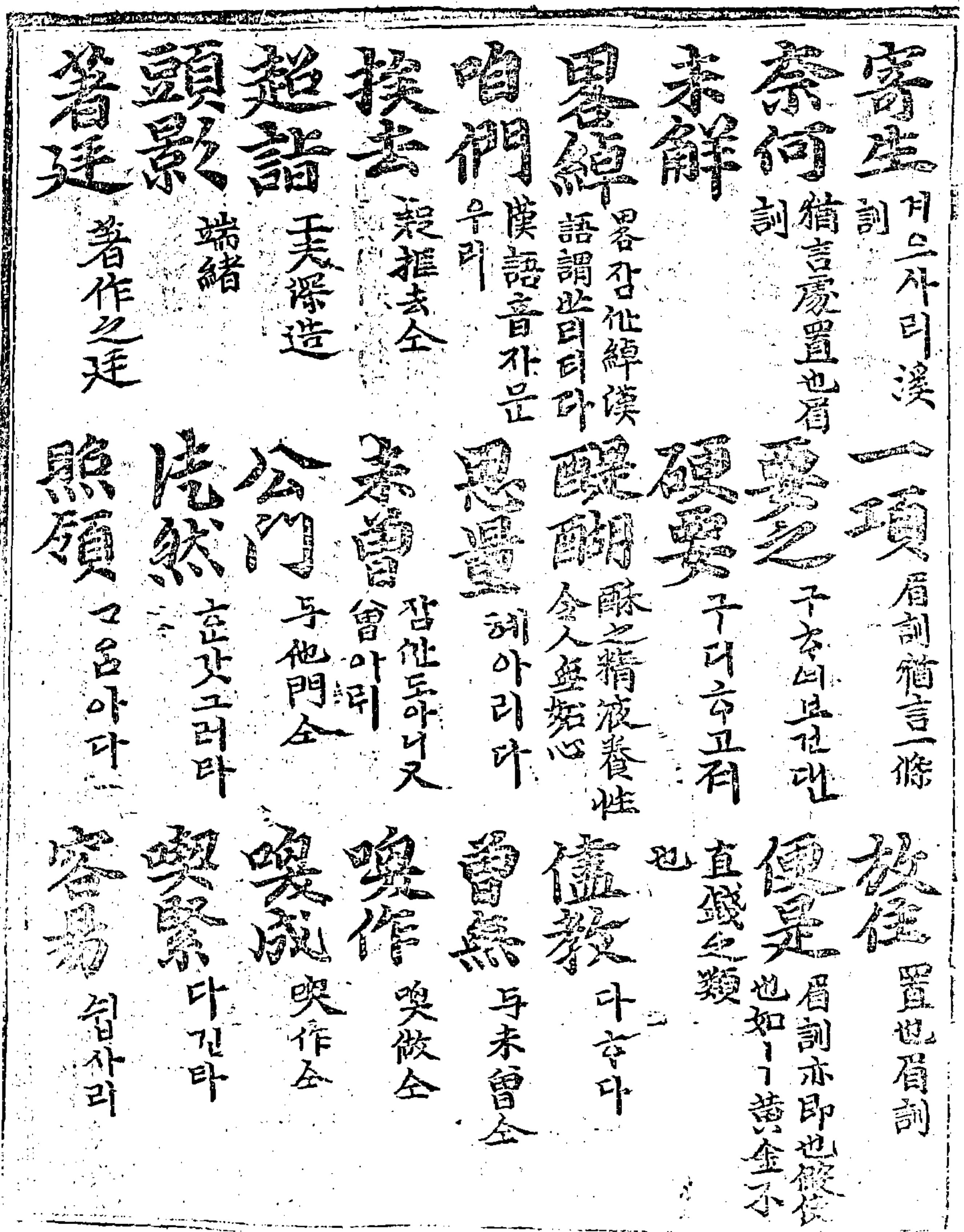
等閑（ᄌᆞᆷ간엽시又힘드러이）

一格 猶一例

攬綴（音람텰攬持又理持）

押錄 猶今書吏

撈摸（音노막撈水中以手取物也摸又音）모手捉也有東西ㅣㅣ之文言不得其物東西求取也知言두로미며엇다



寄生 거으사리漢訓

奈何 猶言處置也眉訓

未解

畧綽 畧잠佗綽漢語謂些目目다

咱們 漢語音자믄우리

撲去 毁摧去仝

超詣 尤深造

頭影 端緖

著廷 著作之廷

一項 眉訓猶言一條

要之 구ᄒᆞ여보건댄

硬要 구디ᄒᆞ고져

醍醐 酥之精液養性令人無妬心

思量 혜아리다

奏曾 잠佗도아니又曾아리

公門 与他門仝

怳然 흔갓그러타

照領 ᄀᆞ음아다

按住 置也眉訓

便是 眉訓亦即也假使也如丨丨黃金不直錢之類也

儘教 다ᄒᆞ다

曾無 与未曾仝

喚作 喚做仝

喚做 喚作仝

緊緊 다긴타

容易 쉽사리

(10장 B)

儢儸

骨董 雜也

提起 잡드러

擔閣 벗듸위不行皃又一說머므다眉訓擱弃

霎時 恐霎然意仝 아니ᄎᆞᆫᄉᆞ이

窠的 고디시기

混淪 뫼화

丟得 ᄒᆞ모려又흔다 단意攧丟仝

忽管 不忌也飭心也

頓撲 溪訓頓讀書作頓急擊如投擲之勢撲亦打也 丨丨不破言牢固也

分外 분밧기라 蓋所可爲者分內而分外則所不可爲者

了悟 頓悟

句當 ᄀᆞ옴아라ᄎᆞᆯ이다一說猶主管

直截 方正표기뻬 뎐뜻

官會 猶今楮貨溪訓

大小 猶多小溪訓

破綻 버디다○猶言罅隙也

仔細 ᄌᆞ셰

斷置 眉訓決斷處置也恐誤猶安也

且如 아ᄆᆞ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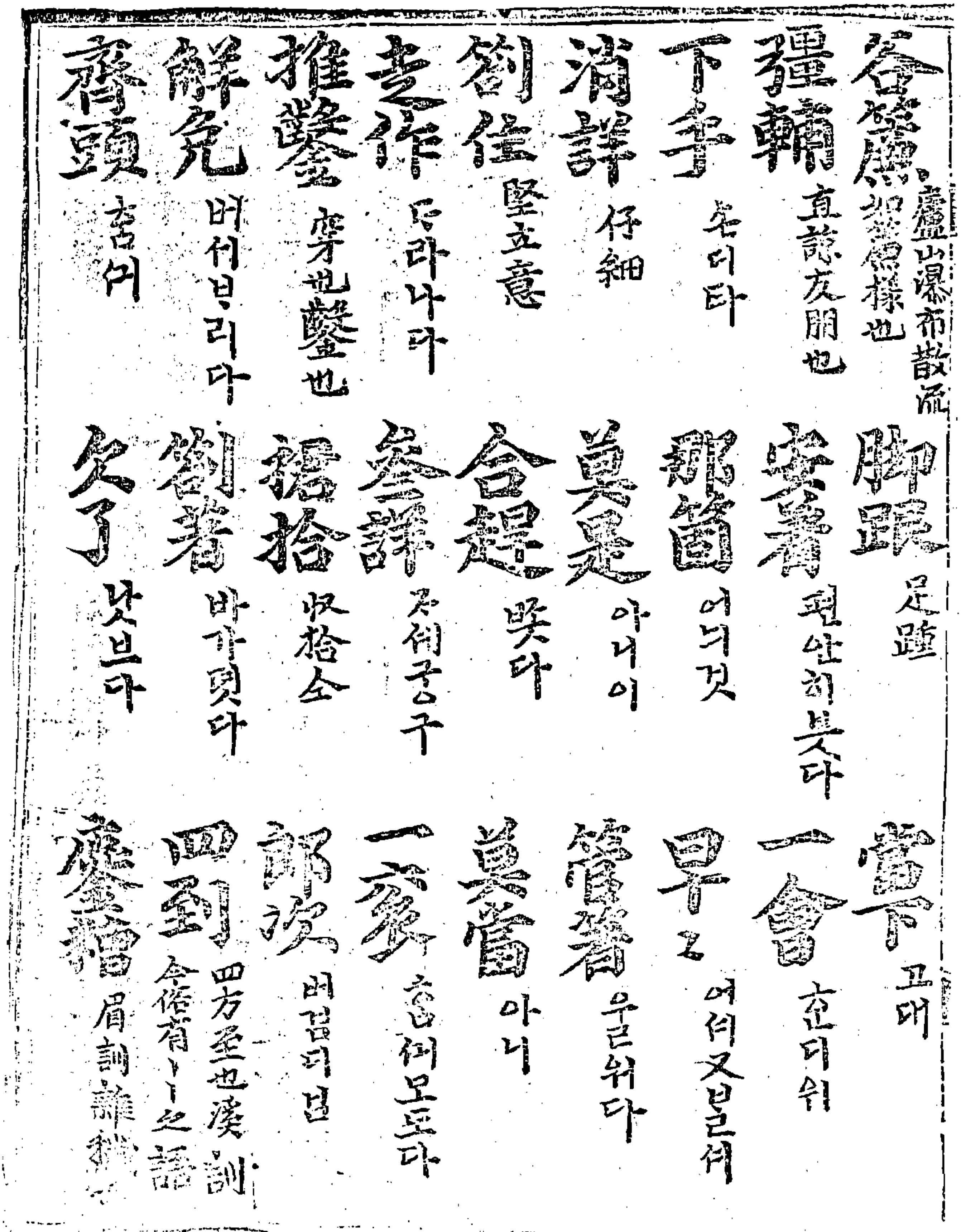
這樣 잇가지

廝瞧 瞧보다恐亦相見之義

了當 다당다

甚人 엇던사ᄅᆞᆷ

着摸 대혀잡드러溪訓



谷礐廘。（廬山瀑布散流沏濛個樣也）
彊韉 直說友朋也
下手 손디타
消詳 仔細
劄住 堅立意
孛倈 ᄃᆞ라나다
推鑿 穿也鑿也
解免 버서브리다
齊頭 춤어

脚踪 足蹤
安著 편안히놋다
那箇 어늬것
莫是 아니이
合趕 맛다
參詳 곳쳐궁구
掇拾 收拾仝
劄著 바가뭇다
欠了 낫브다

當下 고대
一會 ᄒᆞᆫ디위
早乙 여러又보러
儘著 우근워다
莫當 아니
一發 ᄒᆞᆫ쁴모로다
說設 버릇리업
四到 （四方至也漢訓令僧有卜卜之語）
瘦瞀 眉訓離釋

(9장B)

親事 昏事

打破 며초어브리다 溪訓

肚裏 비소속

五種 다ᄉᆞᆺ가지

跉跰 뷔드러돈니다

着落 박이엿다 又如歸宿意

敦遣 州郡勸送之意

迷藏 숨박질

僬僥 短小人

硬寨 眉訓堅植意

挂搭 걸리다

鶻突 간대로○不分明也

角頭 초긋티라 溪訓

主顧 마초다

着己 븓튼뒤아다 亦詳

周羅 번거러이도다

尋着 엇는번

闌珊 餘殘欲盡之意 又意思闌散皃

譙責 ㅣ亦作誚 以辭相責曰ㅣㅣ

地頭 頭邊又地也

蹉過 드듸듸디나다

田地 地位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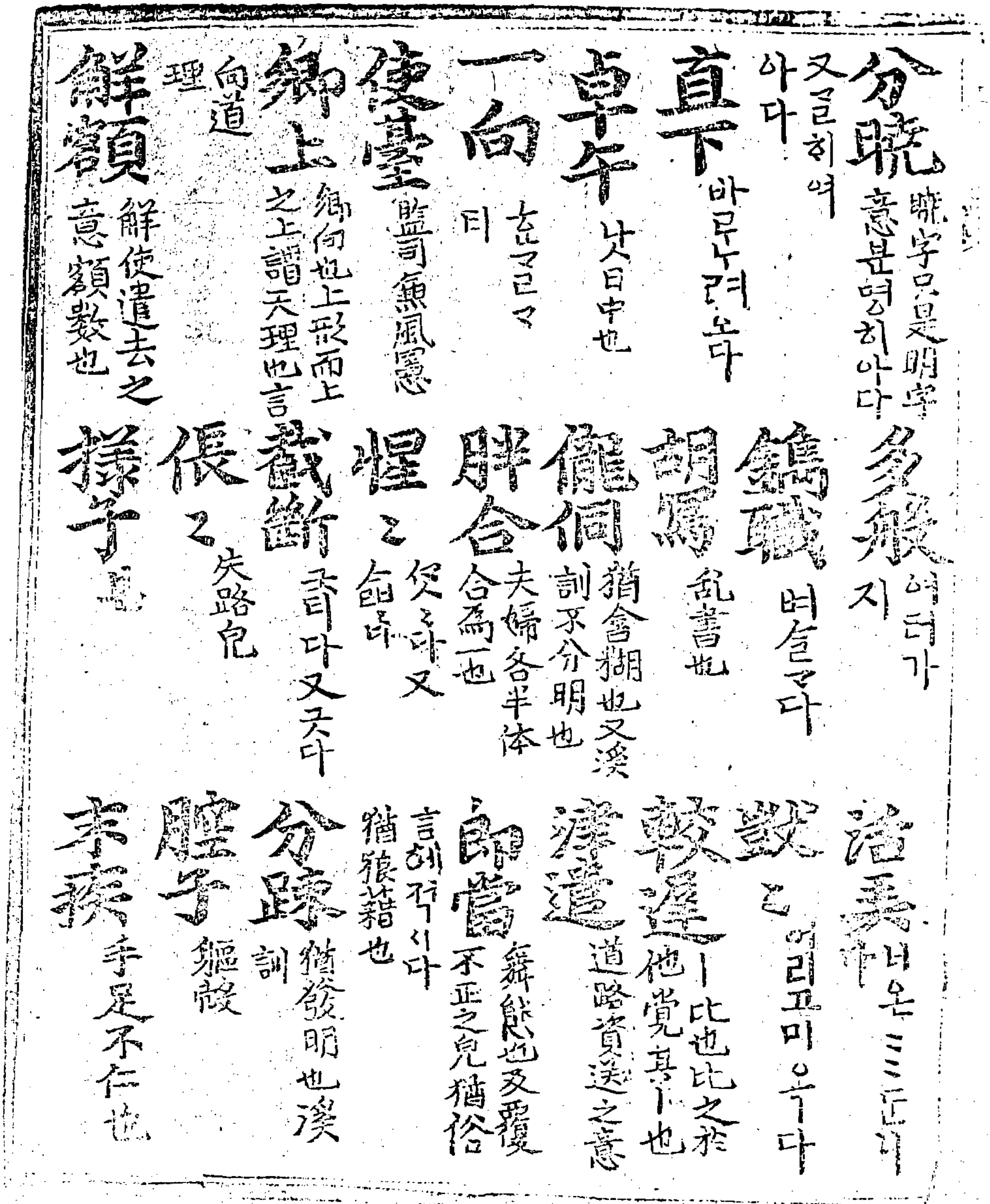
隱括 正木之器 溪訓 마초칠훠고티다

賭是 是乙賭타盍솔ᄒᆞ믈求ᄒᆞ다

盤問 두로힐훠묻다

健[illegible] 지어

不濟 속절업다



分曉 曉字只是明字 意분명히아다 又ᄆᆞᆯ키여아다
直下 바ᄅᆞᄂᆞ려오다
晌午 낫日中也
一向 ᄒᆞᆫᄀᆞᆯᄀᆞ티
使臺 監司兼風憲
鄉上 鄉向也上形而上之上謂天理也言向道理
解額 解使遣去之意額數也

多般 여러가지
鐫職 벼ᄉᆞᆯᄒᆞ다
胡寫 乱書也
儱侗 猶含糊也又溪訓不分明也
胖合 夫婦各半体合爲一也
惺〻 ᄭᆡ〻ᄒᆞ다又ᄭᆡ나
截斷 긋다又ᄌᆞ다
倀〻 失路皃
㨾子 [illegible]

諳熟 니은ᄃᆞᆫ니
數〻 여리고미우다
較遲 丨比也比之於他覚其丨也
津遣 道路資送之意
郎當 舞皃也又覆不正之皃猶俗言胡行ᄒᆞ다猶狼藉也
分疏 猶發明也溪訓
腔子 軀殼
手[illegible] 手足不仁也

十年騎馬聽朝鷄

都盧 다ᄌᆞ오〻로

傍兩 져조사ᅀᅩ납다

厮鬪 사혼다恐此亦只是相鬪之義

精彩 짓〻다

撲落 뎌ᄇᆡ러디다撲一作擈

雌黃 猶言是非

恁麽 그러타又이러타又그리시리

甚麽 怎生仝

從前 젼브터

依前 젼ᄀᆞ티又아리브터

摸揉 머무묘티다

上頭 운머리

地頭 仝上

轉頭 머리도로혀

胡亂 어즈럽다溪訓又간대로

這裏 이에

一樣 ᄒᆞᆫ가지

兩項 두목又두가지

喚做 아므라타ᄒᆞ샤블러니ᄅᆞ다又블러일홈저타眉訓稱其爲也〇猶指其事皆之也

遮莫 遮音折므더니너기다猶言儘敎也진실로그러케ᄒᆞ다遮一作折

落〻 조타

灑〻 落〻仝

撥到 다와다가다

鍊成 다ᄃᆞ마일오다

徑教 從教仝
免教 그러케ᄒᆞ믈버서나다又벗기다
解教 버서ᄇᆞ리다○恐誤
噎着 맛듯다
自是 제시리
自由 제쥐변漢語集覽字解云제ᄆᆞᄉᆞᆷ으로ᄒᆞ다
下夫 下手也恐与下工夫仝
笑殺 우이다歐陽公詩早淥陰常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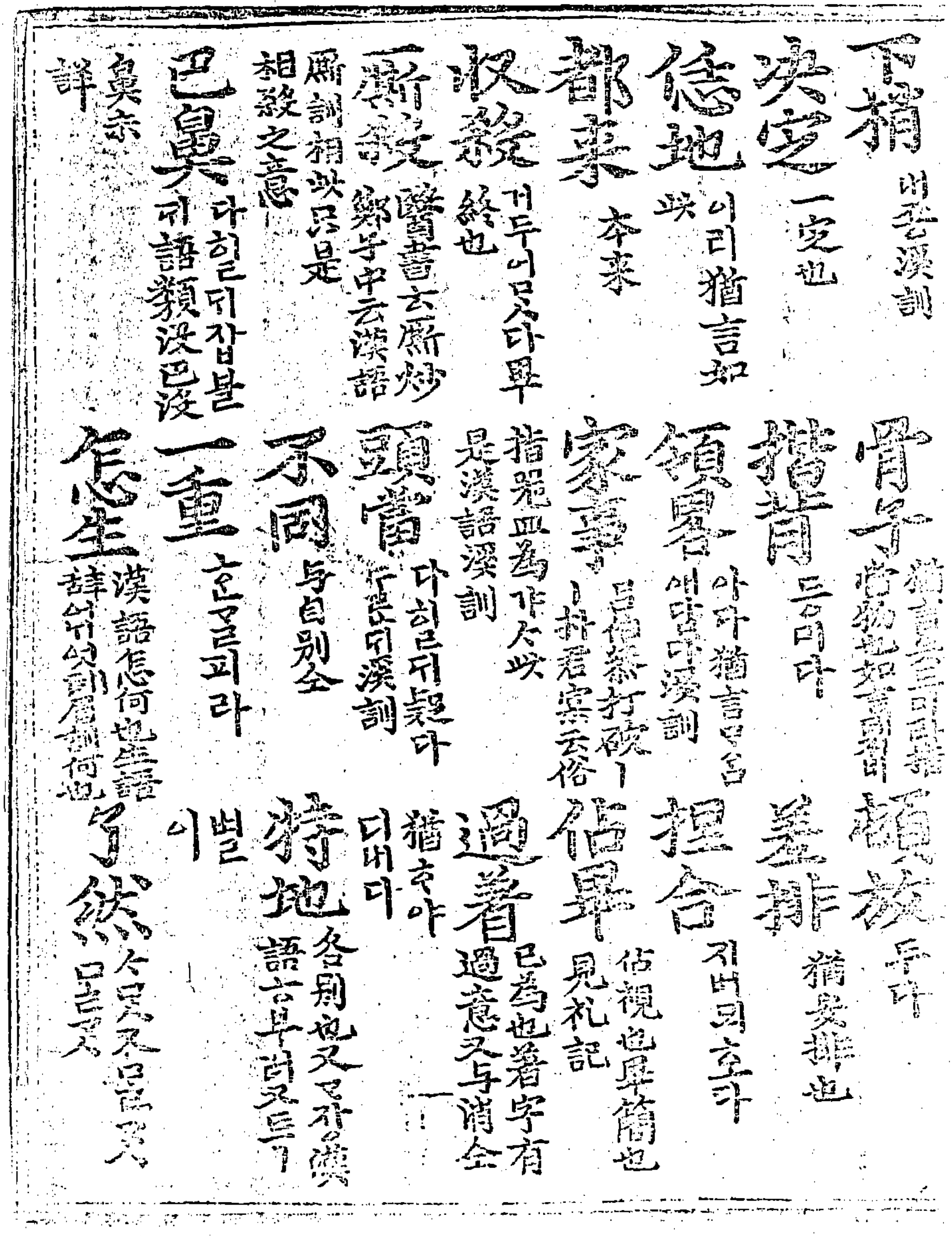
直饒 현마ᄌᆞ비묵又作佗又던조시
一搽 ᄒᆞᆫ가짓
一適 ᄒᆞᆫ디위
一个 一方仝ᄒᆞᆫ디위
一遍 ᄒᆞᆫ디위
横却 ᄀᆞᄅᆞ디ᄅᆞ다
零細 猶個三也
說来 녜브터으로
由来 說来仝

一早 ᄒᆞᆫ곳
忽地 믄득
打坐 수결섭다
除去 덜오
除外 除ᄒᆞᆫ外에
若為 엇디
態殺 시롬ᄌᆞ이다
到頭 다ᄃᆞᄅᆞᆫ곧眉訓到極也
裏頭 속머리又속곳

接湊 뫼호다
脫空 헛것
累墜 걸리며드리디다
捱去 미러가다
悠々 有長遠之意 힘ᄃᆞ다
一方 猝遑也
爭奈 本긴마논그러커ᄃᆞᆫ엇뎨료
任他 뎨가ᄆᆞ라ᄒᆞ를므더너뎌기다
從教 ᄒᆞ욘조ᄎᆞ로므더니뎌기다

換來 깃ᄆᆞ라오다
點檢 슬피다又상고ᄒᆞ여ᄎᆞᆫ오뎌
平人 므던ᄒᆞᆫ사ᄅᆞᆷ이라
提掇 잡드러溪訓眉訓掇亦提也
放下 노하ᄇᆞ리다
報道 알외여니ᄅᆞ다
委意 아다
下度 짐작다
提敗 오ᄅᆞ긔잡다

了之 与了然仝
爲甚 甚音슴므슥슬위ᄒᆞ야
甚麼 므슴眉訓何要
怎麼 엇뎨오
什麼 与甚麼仝
伊麼 이만又그런又뎌又이러又그리
一齊 ᄒᆞᆫ골ᄋᆞ티ᄀᆞ죽又다
一場 ᄒᆞᆫ바탕이라
一般 ᄒᆞᆫ가지라又一種



下稍 내죵漢訓

决定 一定也

恁地 이리 猶言如此

都来 本来

収殺 거두어ᄆᆞᄎᆞ다畢終也

厮殺 醫書云厮炒鄉藥中云漢語厮訓相此只是相殺之意

巴鼻 다힐뒤잡블子語類没巴没鼻亦詳

骨朶 猶言[illegible]日[illegible]語皆物也如言[illegible]語

揩背 드리다

領署 아다猶言ᄆᆞᄋᆞᆷ애ᄃᆞᆫ다漢訓

家事 믈偏器打破ㅣ ㅣ許君實云俗揩器皿為家火此是漢語漢訓

頭當 다힐뒤ᄒᆞᆫ다ᄀᆞᆫ뒤漢訓

不同 与自別仝

一重 ᄒᆞᆫᄀᆞᆯ피라

怎生 漢語怎何也生語辭어ᄃᆡ엇뎨俗訓何也

頓放 두다

差排 猶安排也

捏合 지버ᄆᆡᄒᆞ다

佔畢 佔視也畢簡也見礼記

過着 已為也着字有過意又与消仝 猶ᄒᆞ야 디내다

特地 各別也又ᄀᆞ장漢語云[illegible]

블 이

了然 ᄉᆞᄆᆞᆺ又ᄆᆞᆯᄀᆞᆺ ᄆᆞᆯᄀᆞᆺ

(6장B)

泛泛 피로온번비라 言不拘一隅보 猶活水活潑 不拘一隅也

上面 우ᄒᆡ라 裡ㅣ前ㅣ後ㅣ皆以此義推之

抖擻 떠러ᄇᆞ리다 猶言振之也云

霎然 잠ᄭᆞᆫ

多少 언메나

安頓 노타

索性 ᄆᆞ장 溪訓

公案 귀글월溪訓

揭出 드러내다

提撕 잡드다 眉訓 提而振之也

鋪攤 펴다

零碎 흣ᄇᆞᄉᆞ다

除非 아니ᄒᆞ란말오又아니면말거시니라

下落 다힐귀 猶歸宿也

安排 사ᄅᆞᆷ이힘드려구티여바립ᄌᆞ다

拄撐 拄前人說話撐出辯語

[illegible]捎 ᄐᆞ下捎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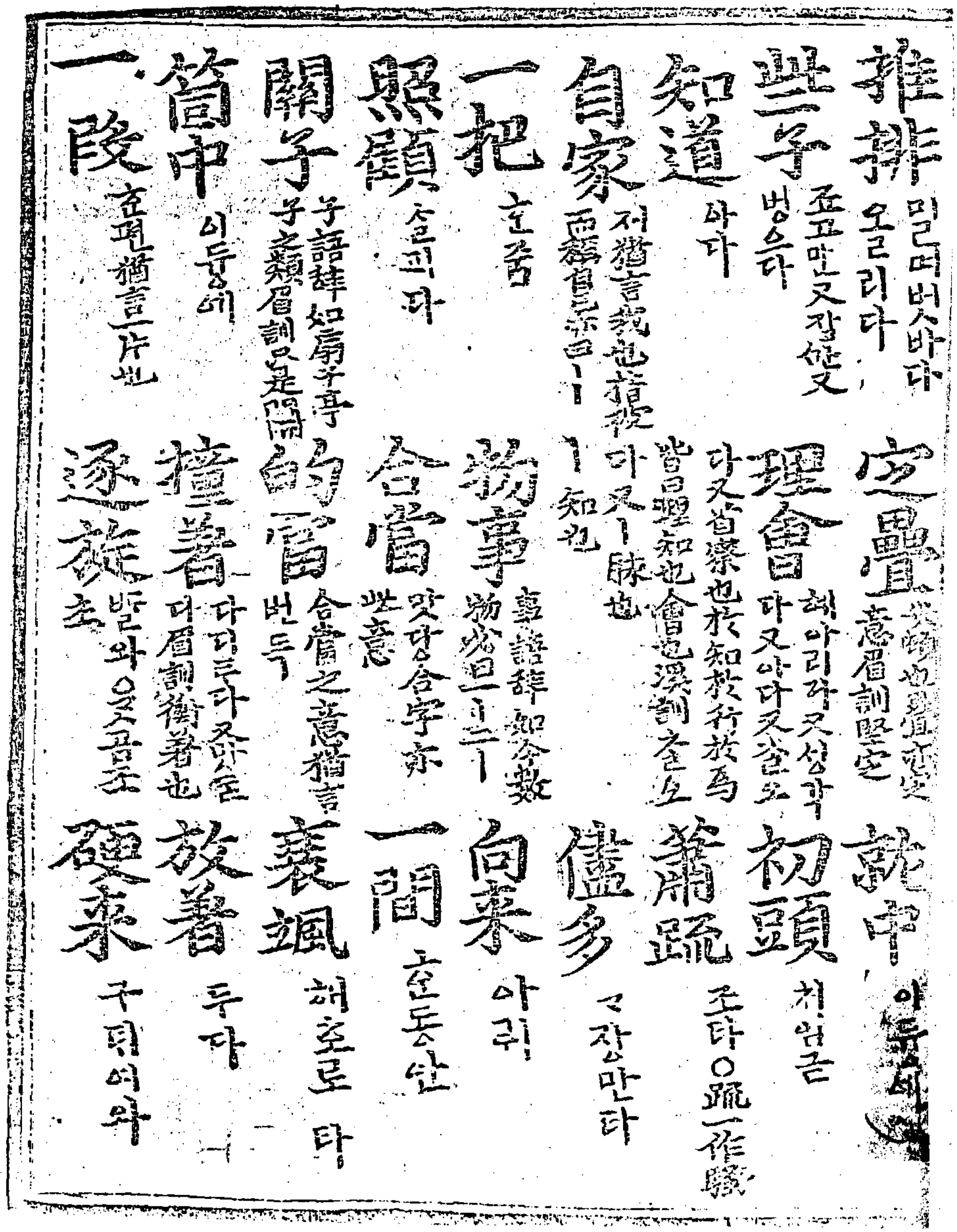
照管 솔피다

自別 自然히各別ᄒᆞ니라此自字非己也 如自當自然之意

打疊 ᄆᆡ다○여ᄇᆞ리다疊字如[illegible]疊鍾之義恐相似也 溪訓眉訓亢已也

賺過 過爲連著也

除是 실란말오除是人間別有天是ᄂᆞᆫ 除去ᄒᆞ고人間애各別히天이잇ᄂᆞ다 言除武鬼神窟之天而於人間別有天地又이ᄂᆞ다



推排 밀며버ㅅ바다

竪子 죠고만잘ᄋᆞᆫ것 ,병슈다

知道 아다

自家 저猶言我也猶提撕다又ㅣ睞也（西稱自家曰ㅣㅣ ㅣ知也）

一把 ᄒᆞᆫ줌

照顧 ᄉᆞᆯ피다

關子 （子語辭如扇子亭子 子之類猶訓只是開）

箇中 이둥에

一段 ᄒᆞᆫ편猶言一片也

安疊 （安排也疊猶亦安 意猶訓堅定）

理會 ᄒᆡ아리다又ᄉᆡᆼ각다又아다又알오다又省察也於知於行於爲皆曰理知也會也渫劃奎乞

物事 （흔語辭如今數 物必曰ㅣㅣ）

合當 맛당合字亦此意

的當 （合當之意猶言 번드）

擡著 다ᄃᆞ르다又조다ᄉᆞᆷ（더猶訓衡着也）

逐旋 밧와옷곰조 초

就中 아듕에

初頭 처엄은

蕭疏 조타○疏一作蹳

儘多 ᄀᆞ장만타

向來 아릐

一間 ᄒᆞᆫ돗산

褭颯 해조로 타

放著 두다

壓來 구틔여와

(5장B)

二字類

合下（猶言當初본뒤又李孝 滚）訓眉訓初也

這箇（이에又시又이거 이）

十分（ᄀᆞ장）

只管（다함又순ᄋᆞ 에）

主張（쥬변ᄀᆞᆷ主ᄒᆞᆫ 意而張皇之）猶져조다

逐時 隨時

査滓 즛ᄭᅴ

揍合（괴ᄒᆞ다又블다 揍當作湊）

單提（바로드다眉訓 獨擧也）

不成（指下文而言不 得爲如此也）

那裏（뎌긔又어ᄃᆡ眉 訓一彼處一何）處

自畫（如畫地以自 限謂自是）而止也

趹撲（趹박차다撲 두드리다）

一截（眉訓截其半而 爲一截ᄒᆞᆫ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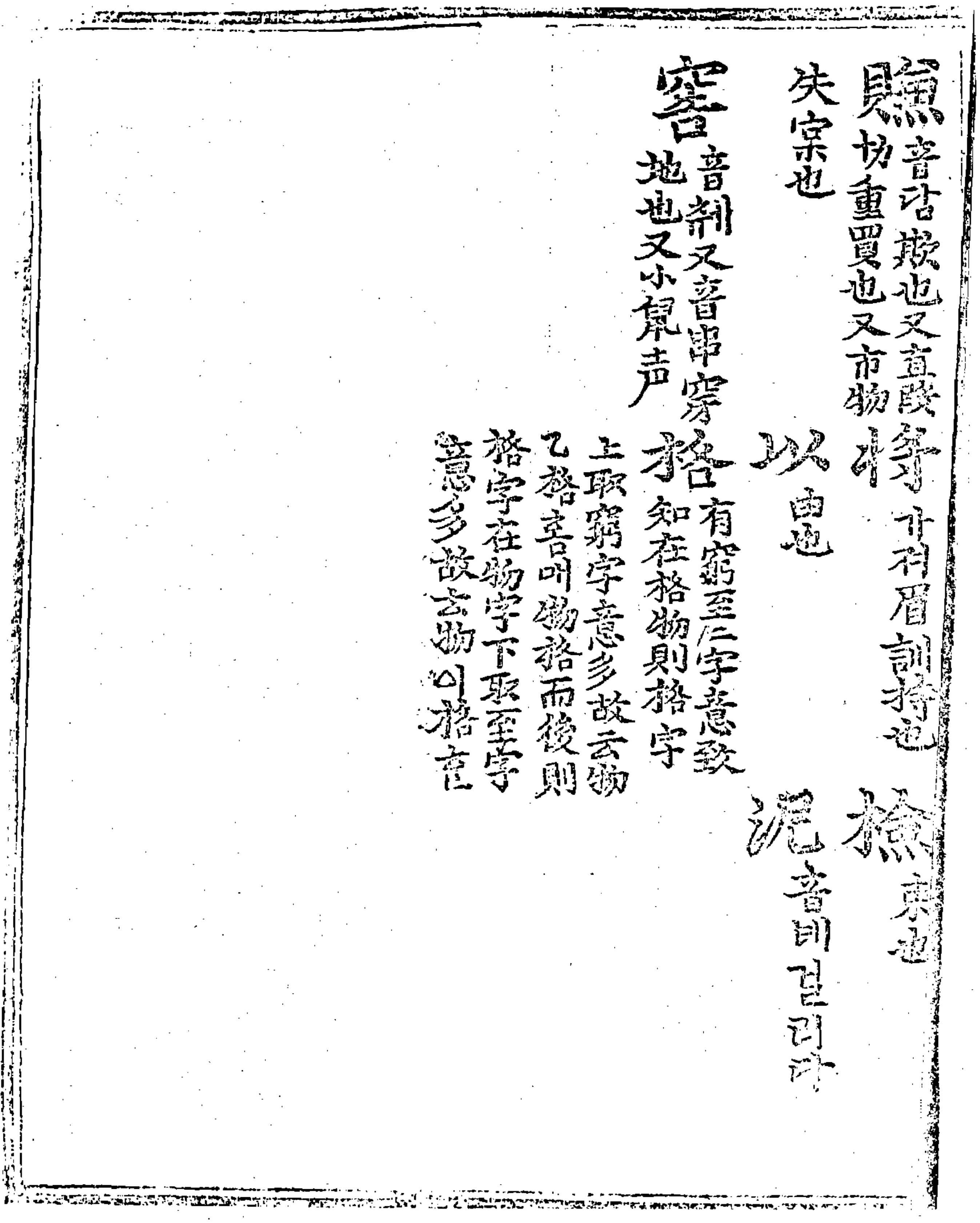
伶俐（ᄆᆞᆰ다ᄆᆞᆯ기다 又영오타眉）訓分明也

太極 太ᄀᆞ장

掐出 자바내다

異時 猶他時

單行 獨行



賺 音잠 欺也又直賤 协重買也又市物 叶 失宗也

窖 音剳又音卯 穿地也又小鼠声

將 가질장 訓持也

以 由也

挌 有窮至仁字意致知在格物則格字上取窮字意多故云物乙格흠며 物格而後則格字在物字下取至字意多故云物이格흠

檢 束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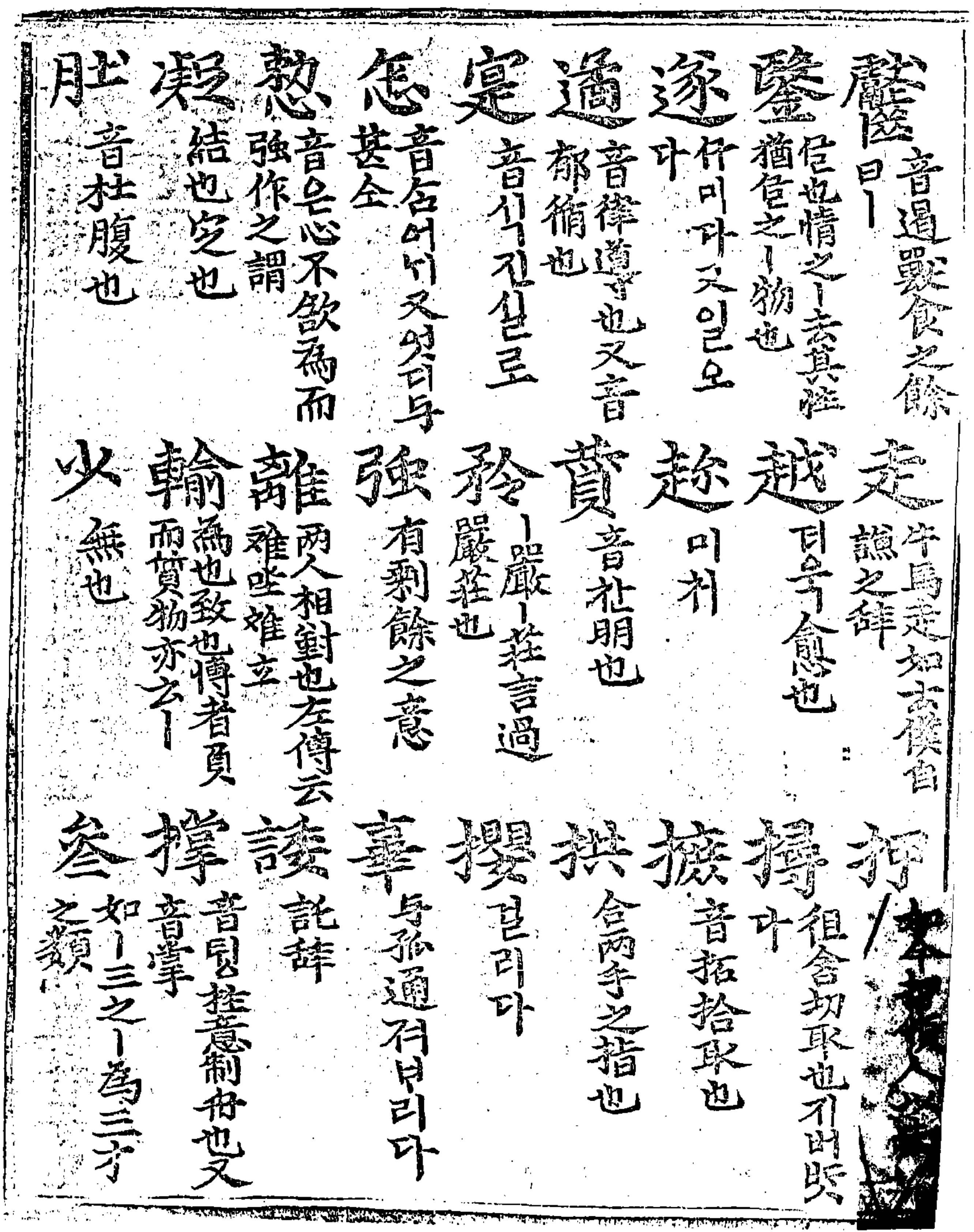
泥 音니 걸리다

（4장B）

碮（거티다）
呷（音甲흔이곱吸ㅣ）
叵（音파不可之意）
寘（音至置也俗音티）
窔（音要室東南隅又與突同）
窒（막디르다）
奧（音오室西南隅）
苄（音户地黃也又音下蒲平草也）
蝺（與齲音義同）

剩（餘也冗長也通作賸）
略（잠간）
下（音하下字言아무字ᄂᆞᆯ노타下手ᄂᆞ리다下工夫齊同）
夫（그語辭）
厎（音至致也）
祇（音其地神）
秖（音之適也오직秪同）
秤（與稱同權衡總名）

體（骨子也猶木之有幹易貞固足以幹事）
剏（與創仝造也初也）
旦（音단明也日出之時避我 太祖諱讀朝）
饜（音厭足也）
覷（音쳐ᅀᅧᅀᅵ보다）
撈（掕同）
偶（偶然）



饜 音遏饜食之餘 曰ㅣ

盪 任也情之ㅣ去其淫 猶任之ㅣ物也

逐 什미다곳일오 다

遹 音律遵也又音 都循也

寔 音식진실로

怎 音즘어니又엇디与 甚全

憖 音은心不欲爲而 强作之謂

凝 結也定之也

肚 音杜腹也

走 牛馬走如云僕自 謙之辭

越 더욱愈也

趂 미처

覩 音社明也

矜 ㅣ嚴ㅣ莊言過 嚴莊也

强 有剩餘之意

離 兩人相對也左傳云 離坐離立

輸 爲也致也傳者負 而質物亦云ㅣ

亾 無也

打/

撏 徂含切取也지비ᄇ 다

摭 音拓拾取也

拱 合兩手之揖也

攖 걸리다

華 与孫通거ᄂ리다

諉 詑辭

撑 音팅拄意制舟也又 音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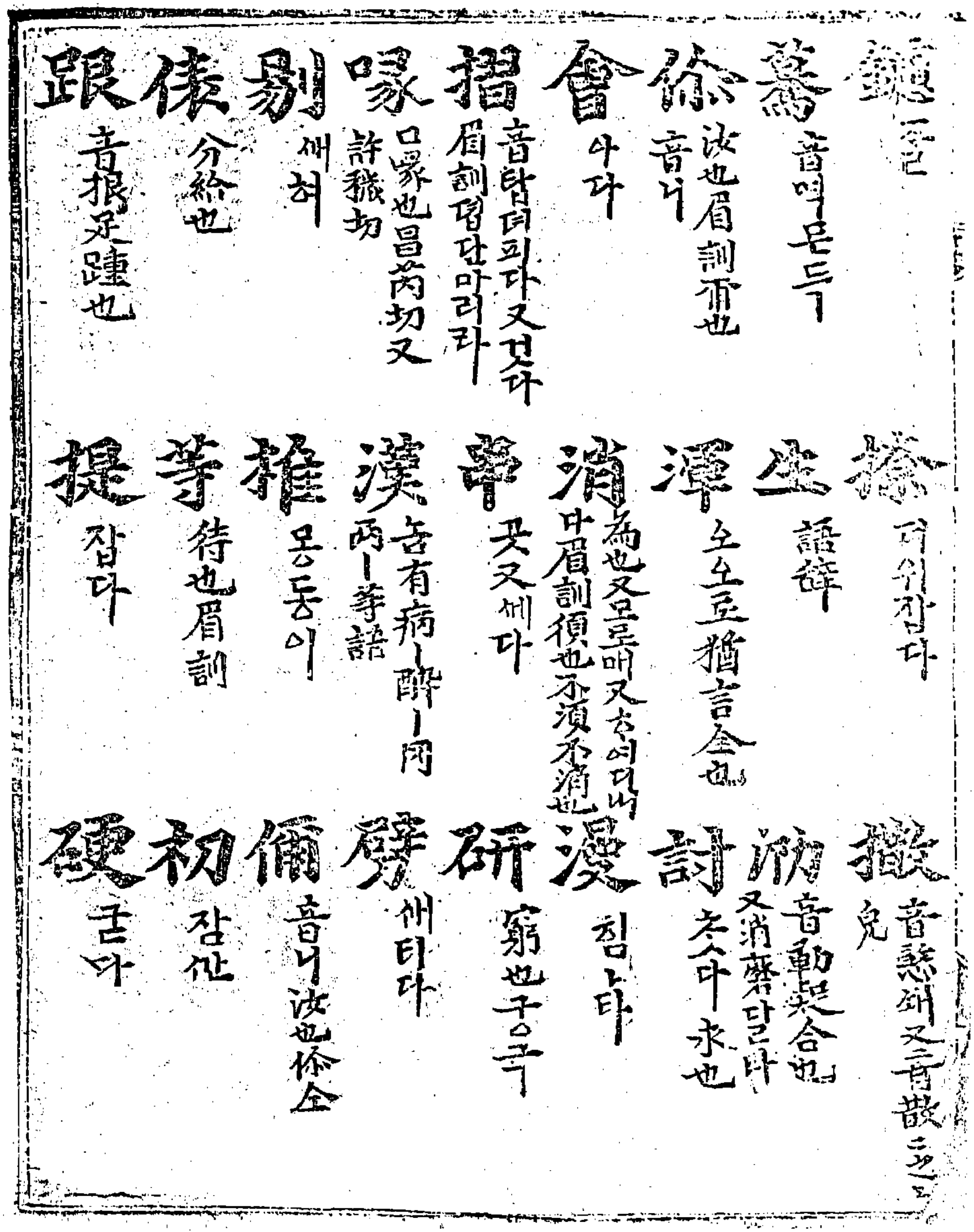
叅 如ㅣ三之ㅣ爲三才 之類

（3장 B）

夯 音向擡也
挨 音埃推也
綫 音善細絲也
担 쥐다又모도다又지버뫼호다音단
直 바ᄅᆞ又ᄎᆞᆫ것
闊 어그럽다
鋸 解截也
化 無所勉強而自中節也
僑 寄也寓也謂旅寓也又音喬高也

踼 音唐跌ㅣ也行失正皃又飛動皃搶也
獃 音埃癡也
羾 音厷飛也
竁 音毳
交 ㅣ付也
霎 音삽少頃也小雨也
妙 衆問人問ㅣ字答曰ㅣ字有運用之意以運用字
有病故說ㅣ字
防 閑也謂檢束其身防閑人欲也

輥 音混車轂齊等皃
弢 弼소
儘 任也
錯 그릇又쇠다
僕 사름
趲 ᄲᆞ라眉訓
抹 ᄒᆞ여ᄇᆞ리다
担 音擔排也
揣 音췌度也



鏂（一字己）

蕎 音뎌론듸

伱 汝也眉訓爾也 音니

會 아다

摺 音탑뎌피다又보다 眉訓뎝단마리라

喙 口喙也昌芮切又許穢切

剔 쌔혀

俵 分給也

跟 青根足踵也

捺 더위잡다

坐 語辭

渾 오ᄋᆞ로猶言全也

消 爲也又조로매又ᄒᆞ여다니 中眉訓須也不須不消也

覃 끗又셰다

漢 舍有病丨醉丨同 兩丨等語

擁 몽동이

等 待也眉訓

提 잡다

撒 音慈研又音散三之三 免

沇 音動吳合也 又消磨닫다

討 ᄎᆞᄌᆞ다求也

漫 ᄌᆞᆷᄂᆞ다

研 窮也궁구丨

劈 쌔티다

儞 音니汝也你仝

初 잠깐

硬 굳다

箇 （[illegible]之也[illegible]습아다眉訓 [illegible]猶也）

差 （차與較仝 又差出之意）

零 （不祀又零細丕者箇 箇也）

劑 即淅字

訣 （絶也又別也 又辭也）

悢 （音兩悲也又悵々 兒又音朗不得志）

在 語辭有在意

[illegible] （[illegible]대眉訓去聲則 猶甚也로막다아리라）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切猶也又手按也）

頓 ᅀᅩᅀᅩ로

遞 （公傳也附遞傳書 謂之丨）

似 （向也眉訓亦於也去 旺一身輕似葉）

蹞 跬仝

譖 音[illegible]

矍 （左右驚顧又視 遽兒）

党 音黨

羑 音弋九切善也

[illegible] 도도히

来 語辭有来意

合 맛당又본디

般 （ᅀᅩ오로다○疑誤合 기다ᄌ가지）

慁 溷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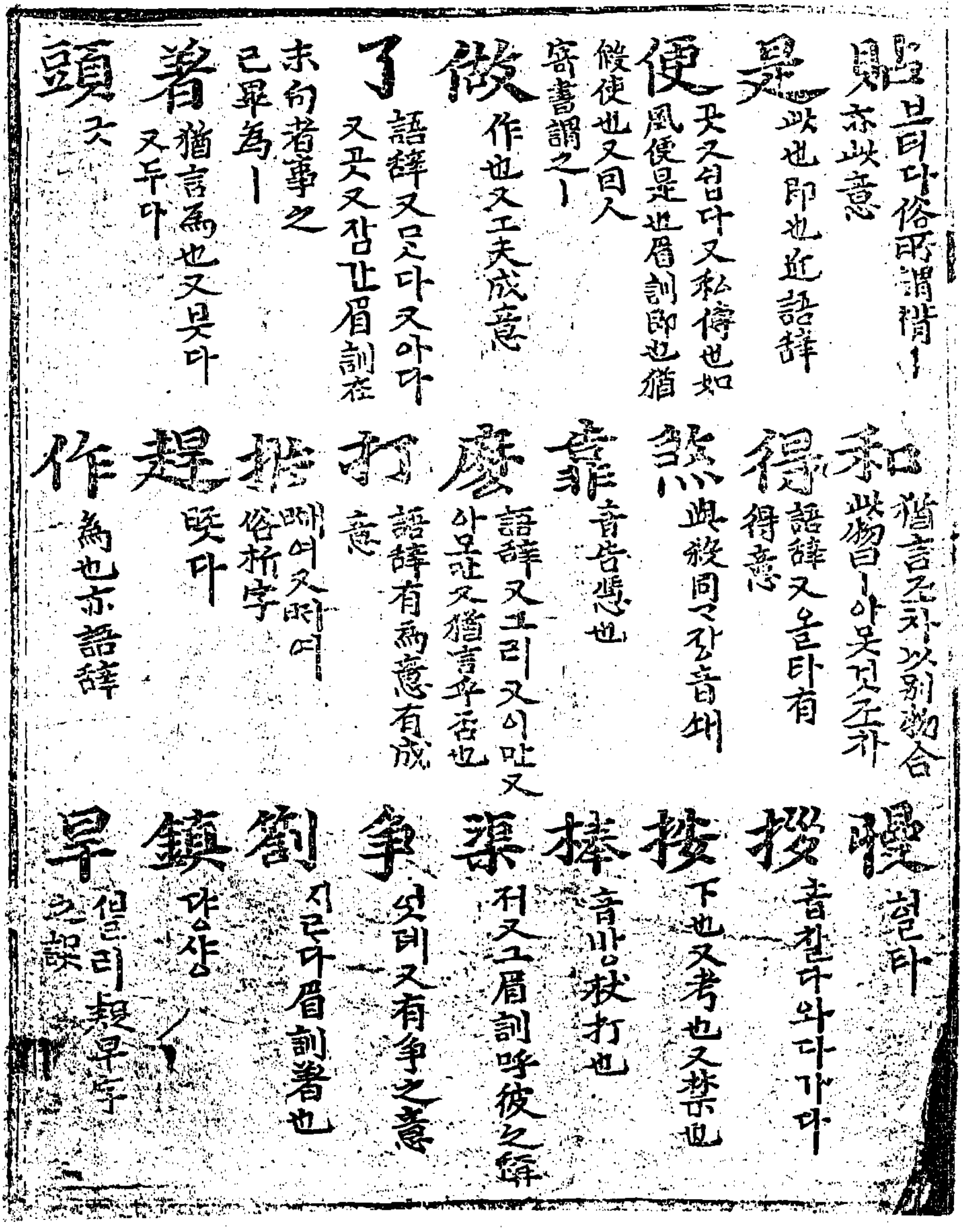
棼 乱也

摑 音괵手打也批也

捽 持頭髮也

惹 乱也又引着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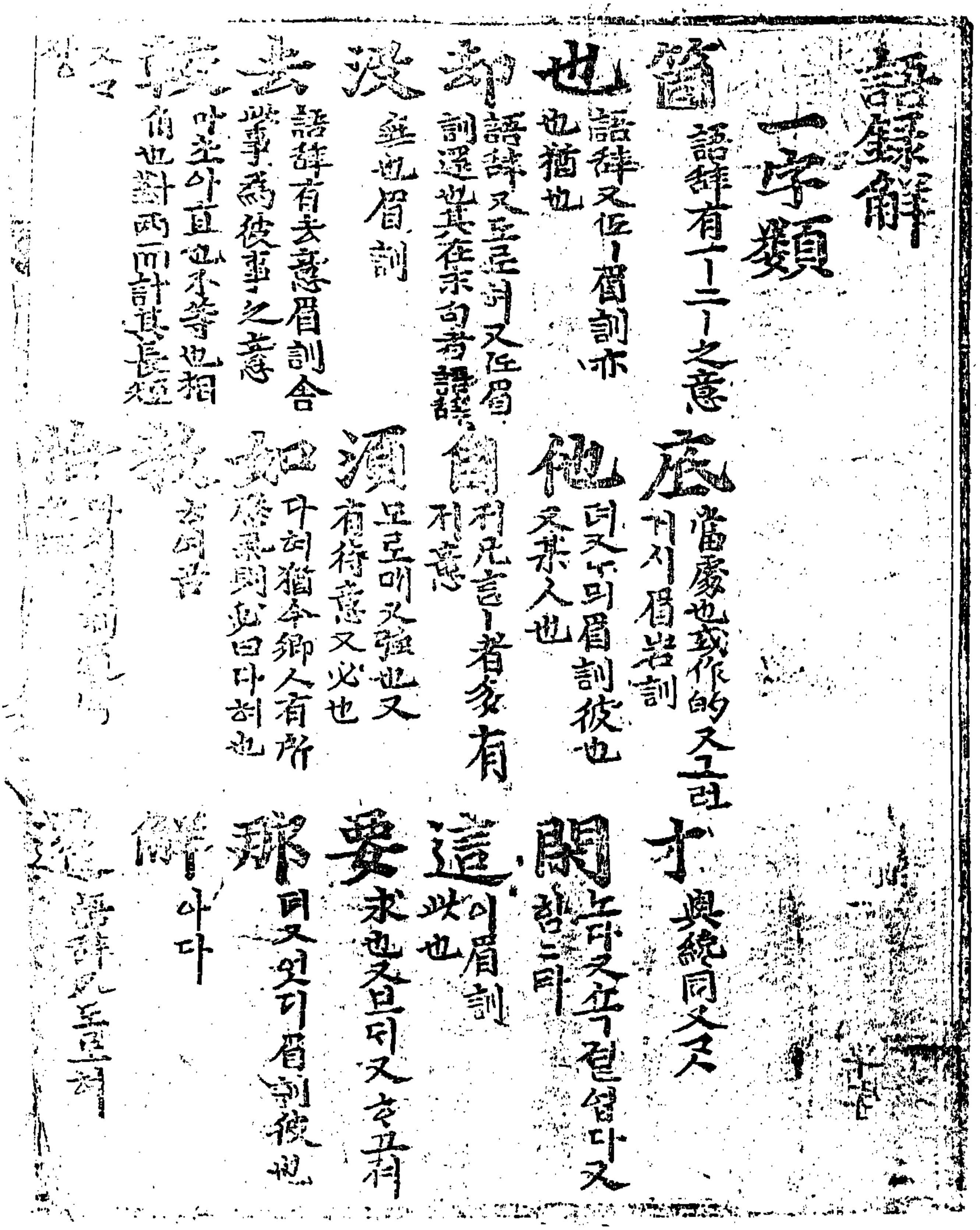
攔 遮也



覷（보다俗所謂背ㅣ亦此意）
是（此也即也近語辭）
便（곧又쉽다又私傳也如風便是也眉訓即也猶假使也又曰人寄書謂之ㅣ）
做（作也又工夫成意）
了（語辭又ᄆᆞᄎᆞ다又아다又곧又잠간眉訓在末句者事之已畢爲ㅣ）
著（猶言爲也又븟다又두다）
頭（긋）

和（猶言ᄒᆞ자以別拗合此醬ㅣ아못거ᄉᆞ라）
得（語辭又올타有得意）
煞（與殺同ᄀᆞ장音쇄）
靠（音告憑也）
麼（語辭又그리又이만又아모만又猶言乎否也）
打（語辭有爲意有成意）
擗（ᄣᅢ여又ᄠᅡ여俗析字）
趕（ᄧᅩᆺ다）
作（爲也亦語辭）

壞（헐타）
撥（音철다와다가다）
按（下也又考也又禁也）
棒（音방杖打也）
渠（저又그眉訓呼彼之辭）
爭（엇뎨又有爭之意）
劉（지ᄅᆞ다眉訓著也）
鎭（댱샹）
早（일즈리投早字之誤）



語錄解

一字類

箇 語辭有一丨二丨之意

也 語辭又ᄯᅩ丨冐訓亦、也猶也

却 語辭又도로혀又ᄯᅩ冐訓還也其在末句者語辭

沒 無也冐訓

去 語辭有去意冐訓含棄事爲彼事之意

較 마조아直也不等也相角也對兩而計其長短

[illegible]

底 當處也或作的又ᄌᆞ리 거시冐岩訓

他 뎌又ᄂᆞᄆᆡ冐訓彼也 又某人也

個 칫凡言丨者多有利意

須 모로미又強也又有待意又必也

如 다혀猶今鄕人有所務求則必曰다혀也

越 [illegible]語

[illegible]

才 與纔同又ᄀᆞᆺ

閑 ᄂᆞ다又쇽졀업다又 ᄒᆞᆷᄒᆞ디

這 이冐訓此也

要 求也又즈ᄋᆞ디又ᄒᆞ고져

那 뎌又엇디冐訓彼也

僻 아다

還 語辭又도로혀